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DYNAMICS OF CHURCH EXPANSION IN KOREA

written by

HOON BOOK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Nam Hyuck Jang

Seyoon Kim

March 4, 2002

DYNAMICS OF CHURCH EXPANSION IN KORE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OON BOOK LEE

MARCH 2002

한국에서 교회증식의 역동성: 창훈대교회의 증식 사례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이 훈 복

2002년 3월

Abstract

Dynamics of Church Expansion In Korea

Hoon Bok Lee

Doctor of Ministry

200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presents the church expansion strategy of CHANGHUNDAI Church based on the dynamic model of the Apostolic Church which provides the foundational scriptural church growth principles. Its purpose is to develop a strategy and to offer insights that will assist the current Korean Church to overcome the state of stagnation and church growth decline.

This paper is divided into seven chapters. Chapter One introduces the current nature of the Korean Church, identifies the causes of the church growth decline and proposes a solution to these phenomena. Chapter Two engages in the in-depth study of the dynamics of church expansion in the New Testament based on the ministries of Jesus Christ and of Apostle Paul and the church growth movement unfolded in the Book of Acts. Chapter Three critically analyzes Donald A. McGavran's theory along with other theories of church growth. Chapter Four examines the founding of Korean Church and the history of its expansion including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itial growth of the Church and the urbanization of church growth. Chapter Five discusses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growth history of CHANGHUNDAI Church and its founding vision and background. Chapter Six illustrates the future ten-year plan of CHANGHUNDAI Church on the strength of dynamics of church expansion. Chapter Seven offers practical guidance for the equipping of the Korean Church and its pastors for the church expansion.

CHANGHUNDAI Church has established the vision to vitalize the small group and lay ministries to strive towards a healthy church deriving from the dynamic expansion model of the Apostolic Church.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 healthier growth model for the Korean Church.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Nam Hyuck Jang,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한국 목회사역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탈진한 상태에 있던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신 김세윤 교수님 내외분께 감사드리며, 12년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송탄남부교회 장동민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훈대교회에 새로 부임하자마자 안식년을 주셔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명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 논문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주시고 정리해주신 백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배우에 눈물과 기도로 밀어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영원이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을 붙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2년 2월

이 훈 복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문제 해결 방안	5
제 3 절 연구 방법	7
제 2 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증식의 역동성	9
제 1 절 하나님: 교회를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	9
1. 교회 증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10
2. 수많은 교회 설립자, 바울	10
3.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	12
4. 초대교회의 교회성장에서 성령의 역할	17
5. 교회성장에 사용된 비유들	19
제 2 절 초대교회의 역동성	20
1. 복음의 역동성	20
2. 헌신된 리더들	21
3. 역동적인 지역교회	22
4. 동기 부여된 평신도	24
제 3 장 다양한 교회 성장론	27
제 1 절 교회성장운동의 성경적 신학적 배경	27
1. 교회성장운동의 출현	27
2.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	29

가. 구약의 교회성장론	29
나. 신약의 교회성장론	30
3. 교회성장운동의 신학적 배경	32
가. 교회와 선교의 상호관계성 개념	32
나. 교회성장운동의 부정적 측면	32
다.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접근	33
제 2 절 맥가브란의 교회성장론	35
1. 맥가브란 교회성장론의 형성배경	35
2. 맥가브란 교회성장학 원리들	36
가. 동질집단의 원리	37
나. 대중운동의 원리	38
다. 수용성의 원리	39
라. 사회과학의 원리	40
마. 토착화의 원리	40
제 3 절 교회성장론의 평가	42
제 4 장 한국교회의 설립과 증식 역사	44
제 1 절 한국교회의 시작	44
1. 카톨릭의 전파	44
2. 기독교의 전파	49
3. 일제 시기의 기독교	51
4. 신사참배에 따른 교단의 분열	53
5. 장로교단의 분열	54
6. 순복음교단의 등장과 성장	57
7. 대학생선교회의 등장과 영향	58
8. 100주년 이후의 교회 성장의 둔화	61
제 2 절 초기 한국교회 성장	62
1.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역사	62

2. 개교회 운동이 한국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64
3. 개교회 운동의 위험	66
제 3 절 근대 한국사회와 교회 성장	66
1. 근대 한국사회의 도시화 문제	66
가. 핵가족화	67
나. 열악한 삶의 질	68
다. 전통, 도덕의 붕괴	68
라. 신사고의 등장	69
2. 도시화의 도전이 주는 교회개혁의 필요성	70
제 5 장 창훈대교회의 성장 역사	71
제 1 절 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71
1. 수원의 역사 이해	71
2. 수원의 지리적 이해	73
3. 수원의 교회들	75
제 2 절 창훈대교회의 역사	75
1. 창립비전	76
2. 교회발전과 목회비전	77
3. 창훈대교회의 조직	79
4. 한명수 목사의 목회 리더십	80
5. 교회성장을 위한 외샅	81
제 6 장 교회증식의 역동성에 의한 향후 10년 목회 계획	87
제 1 절 모범적 리더십 계승	87
제 2 절 향후 10년 목회 전략과 성장 목표	88
제 3 절 증식 전략	91
1. 교회증식의 필요성	91
가. 증식에 의한 교회성장	92

나. 초대교회와 교회증식	94
2. 증식 비전 나누기와 비전 진술	95
3. 증식 준비과정	99
가. 전도에 대한 강조	99
(1) 태신자 운동을 통한 전도	99
(2) 대각성 전도집회를 통한 전도	101
나.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증식의 역동성을 체질화함	102
(1) 성경적 배경	102
(2) 창훈대교회의 소그룹 사역 전략	104
다. 평신도 사역 개발원을 통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107
(1) 취미별 소그룹	109
(2) 양육 소그룹	110
(3) 사역자 훈련학교	112
(4) 성장을 위한 세미나	113
(5) 사역 축제	124
(6) 그외 성장을 위한 과정들	124
제 4 절 증식된 교회의 새로운 모습	125
1.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126
가. 변화하는 21세기 현실과 소그룹의 필요성	127
나. 교회는 어떻게 이 많은 변화를 극복할 것인가?	127
다.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요소	128
라.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의 8가지 기초원리	129
2.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 개발	108
3. 기도사역을 통한 성장	132
4. 역동적 예배를 통한 성장	132
가. 공연으로서의 예배	132
나. 역동적인 예배	132

제 7 장 결 론	134
부록	136
참고문헌	157
VITA	163

표 목 차

〈표 1〉 창훈대교회 행정기관 및 부서조직	79
〈표 2〉 워샷 토의 참가자	82
〈표 3〉 주제 선정과 그 이유	83
〈표 4〉 조별 현상 파악 및 요인 분석	83
〈표 5〉 문제에 대한 대책	84
〈표 6〉 교회의 배가	93
〈표 7〉 향후 교회개척	94
〈표 8〉 창훈대교회 취미별 소그룹 종류	109
〈표 9〉 창훈대교회 양육 소그룹	110
〈표 10〉 창훈대교회 알파 소그룹	111
〈표 11〉 창훈대교회 사역자 훈련학교	112
〈표 12〉 창훈대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	114
〈표 13〉 창훈대교회 사역 축제	12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최근 선교 1세기가 지난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정체라는 암초에 직면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고,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교회 성장의 재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자성의 소리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¹⁾

1910년 한국 선교 25주년에 영국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는 한국을 ‘은둔의 나라’에서 ‘허락의 나라’로 평가했다. 1970년대에 전국민의 20퍼센트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교회성장은 경제성장과 비례해 성장하여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교회 성장학자들의 호평도 받아왔다.²⁾

선교 100년이란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는 ‘경이적인 성장’, ‘폭발적 성장’, ‘세계 제일의 교회들’, ‘가장 열정적인 교회’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의 정체 시대’ 혹은 ‘후기 기독교 시대’라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이미 과거에 “현재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인구의 30퍼센트 정도에 달하며 1980년 말에는 50퍼센트가 넘을 것이다”³⁾라고 예측했으나 1990년대 와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1) 1998년 신학지남(가을호)에서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교회 교육적, 교회성장학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학지남, 1998년 가을호 참고.

2) 이종운,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260.

3) Peter Wagner,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광림출판사, 1989), 60.

이종윤 목사는 “현대 한국교회는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외형적 성장만 하고 있어서 로버트 벨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텅 비고 깨진 조개껍질과 같이 그 원래의 특성을 상실한 병든 교회로 진단이 내려진 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이 외에도 교회의 기업화 현상과 목회자의 세속화 현상, 그리고 신앙의 무속화 현상은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배후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손봉호 교수는 교회성장의 다섯 가지 외적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양적 성장에 필요한 지도자 양성시기가 없었기에 질적인 저하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저해 요인으로는 교회의 내적 요인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대사회적인 요인과 초대형교회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회 내적인 요인이다. 목회와 신학 1992년 6월 호에 게재된 내용 중 종교가 전혀 없는 598명을 대상으로 “만일 앞으로 종교를 믿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택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8.33퍼센트였고, ‘카톨릭’은 23.67퍼센트인 반면, ‘기독교’는 10.0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이른바 세계의 3대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8년 9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한국 기독교의 교회 활동 및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 분석’에 의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젊은이 사역에 대한 현실 인식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18세부터 29세의 비종교인들을 향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믿을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더니 설문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인 36.9퍼센트는 ‘불교’라고 응답했고, 35.4퍼센트가 ‘천주교’를, 나머지 27.7퍼센트가 ‘기독교’를 믿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상화 목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⁵⁾ 그에 따르면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니 답답해서 교회에 가기가 싫고,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해서 가기가 싫다고 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말했다. 특별히 그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언급한 후에 이들 청년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민과

4) 권성수, 양창삼, 이만열, 교회성장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사, 1998), 14.

5)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8-9.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⁶⁾ 떠나고 싶지 않는 교회의 매력 포인트 24라는 책을 기록하고, 거기서 ‘왜 매력 있는 교회여야 하는가?’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시한다.⁷⁾ 그에 따르면 1998년 한국갤럽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 ‘현재 교회를 다니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있다’가 59.7퍼센트로 나타났고, ‘없다’는 40.3퍼센트로 나타났으며,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 교인들 가운데 2번 이상이 47.4퍼센트, 3번 이상이 31.7퍼센트, 4번 이상이 11.0퍼센트, 그리고 5번 이상이 9.5퍼센트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⁸⁾

그에 의하면 과거에는 예배당(hardware)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이제는 양상이 달라져서 교회의 건물을 아무리 확장해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달라졌다고 한다. ‘저 교회의 설교가 어떠하며, 목회 프로그램은 어떻고, 지역 사회에서 소문은 어떻게 나 있는지,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차갑고 닫힌 교회인지’ 이른바 질적 요소(software)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 즉 휴먼웨어(humanware)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⁹⁾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본질적인 요소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참신하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장차 어떤 변화의 목표를 가져야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면에서 지금이 교회를 벗어나는 발길들이 다시 희망의 보루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교회를 매력있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온 힘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¹⁰⁾

그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고 힘있게 만들 수 있을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에 발맞추어 변화의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을 교회

6) 청년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신세대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해야 하며, 예배의 부흥,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재정립, 직장 선교의 중요성 인식과 투자 그리고 인적 자원 계발과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범 교회적 연대를 언급한다.

7) 이상화, 떠나고 싶지 않는 교회: 매력 포인트 24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8-9, 20.

8) Ibid., 17.

9) Ibid., 18.

10) Ibid., 19.

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변화하는 시대에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매력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계층 어느 연령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항상 머물고 싶어하며, 결코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24 가지의 그림을 보여 주고 있다.¹¹⁾

그에 의하면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들 중에 열린 공동체요,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역동적 변화를 꾀하고, 불신자들의 회심전도에 초점을 두며, 소그룹과 남성 사역이 활성화되고, 현대 사회에 시대적 영성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신자 양육자를 훈련하고 개발하며, 비전과 사역에 집중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과 젊은이를 감싸안은 교회라고 말한다.

둘째, 세상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의 상실이란 대 사회적인 요인이다.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사회적 요소, 즉 세상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이 강력했었다. 반면에 한국교회의 정체와 침체의 배경에도 역시 사회적 변화 즉, 세상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 상실이란 큰 요소가 있었다. 교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리더십을 상실했다.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대해 무감각 내지 무관심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때론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을 변화된 사회의 현실에 무리하게 강요함으로 기독교의 보편성과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사고에 젖은 목회방식으로는 21세기의 사회를 이끌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영적,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사회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주로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교회가 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셋째, 초대형 교회들의 등장이다. 초대형 교회들의 등장은 수직이동보다는 수평이동이란 반(反) 성장요인을 낳았다. 더구나 최근의 리더십의 대물림은 대사회적인 성장저해 요소로 대두되었다. 홍정길 목사는 목사 세습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첫째, 목사 세습제는 한 명의 목사의 장기집권의 산물이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셋째, 특별히 목사직 세습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들에게서 광범위한 풍조로 형성되고 있다. 네 번째로 담임목사 세습

11) Ibid., 8-9, 21.

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목사직을 물려받는 자녀이다.¹²⁾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체 내지 둔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교회 성장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성장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 교회' 내지는 '목회자 한 사람의 명예와 집착'에 있었다. 성장의 방법도 성경의 원리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지나치게 추구하였다.

제 2 절 문제 해결 방안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교회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Turnaround Church)에서 “식퇴하는 교회의 8가지 증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데 이들 중에 본 연구자의 교회에는 빈약한 교회 운영, 노인들만 있는 교회,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교인들, 변화를 꺼리는 교인들, 영적으로 냉랭한 교회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침체된 교회를 회생케 하는 11가지 요인 중에서 본 연구자의 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근본적 사랑,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목사, 그리고 질 높은 설교와 헌신적인 교인들의 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¹³⁾ 특별히 바나가 지적한 요인 중에서 목회자가 교인들과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과 목사의 장기적 헌신이 필수적이며 돈이 목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본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⁴⁾

지난 40년 동안 교회 성장에 관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¹⁵⁾ 특별히 최근

12) 홍정길,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일고”, 목회와 신학, 2000년 11월호, 266.

13) George Barna, 교회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안보현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53-73.

14) 바나는 교회를 회생시킨 목회자의 특징에 대해 크게 공통적인 자질들과 독특한 자질들로 구분한다. 공통적인 자질들에는 팀 사역의 마인드와 비전 제시, 영적 성숙, 격려의 능력, 전략적 사고력, 그리고 위험감수 능력을 들고 있다. 독특한 자질들에는 45세 이전의 젊은 나이, 주 60내지 80시간 일하는 일 벌레, 영적 깊이가 있는 헌신자, 자신감 넘치는 강한 개성의 소유자, 잠재적 비전의 소유자, 그리고 강한 지도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바나가 제시한 특징들이 통계적인 것이지 꼭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교회성장’의 개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재고되고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15) 피터 와그너와 도날드 맥가브란은 확실한 자료에 근거한 통찰력 있는 몇 권의 책들을 써서 일단의 사람들을 인도했다. 맥가브란(Macgavran)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1955)와 교회 성장의 이해(1970),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1973)등을 썼다. 와그너(P. Wagner)는 당신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1976), 당신의 교회를 성장으로 이끌기(1984), 건강한 교회(1996)등을 썼다. 그 외에도 프랭크 킬라파의 풀려난 교회(1982), 로버트 로간(R. Logan)의 교

들어 '건강한 교회'란 용어가 등장해서 교회의 새로운 모습, 즉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에서 대부분의 교회 성장 이론들이 '전문 기술적' 접근 방법이나 '영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¹⁶⁾ 전자의 경우는 제도, 프로그램, 방법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제도, 프로그램, 방법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생명체적 패러다임'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마치 대개 식물이 좋은 토양, 충분한 물, 햇빛이 있을 때 자라듯이 교회도 생명체로서 성장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자라게 된다고 보았다.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은 교회 성장에 대한 본 연구자의 개념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교회 성장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혼동을 느낄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결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이들 개념들 중 많은 것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한 그룹은 '초대형 교회'야말로 복음을 들고 지역 사회를 찾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그룹은 이상적인 교회의 규모는 가정 성경공부 모임과 거의 같은 소그룹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성공의 열쇠는 비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예배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예배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⁷⁾

슈바르츠에 따르면 과거의 논의들은 '모델을 통한 개념들'과 '원리들' 사이에 거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델들은 보편적 원리들인 것처럼 확보하고, 때때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들은 마치 '많은 모델들 중 하나'인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는 모델들에 따라서 세워지기

회 성장을 넘어서(1989), 조지 바나(G. Barna)의 접근하기 쉬운 교회(1991), 짐 피터슨(J. Peterson)의 벽 없는 교회(1992), 리트 앤더슨(L. Anderson)의 21세기를 위한 교회(1992),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 이야기(1995) 그리고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 Shuwarz)의 자연적 교회 성장(1996).

16) Christian A. Schu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정진우·박동건·오태균 역, (서울: NCD, 1999), 14.

17) Ibid.

보다는 보편적 원리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관심은 수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건강한 교회의 자질¹⁸⁾을 개발하는 일에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한국교회 성장의 저해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적인 후에 성경적인 교회 성장 원리인 초대교회의 역동적 모델을 살펴본 후에 그 모델에 따라서 창훈대교회의 교회증식에 적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증식의 역동성에 근거한 향후 10년 동안의 창훈대교회의 교회증식(church multiplication)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본 연구자의 창훈대교회의 10년 동안의 목회비전과 전략이기도 하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잘못된 성장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초대형교회 만들기에 급급한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증식의 원리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년 1개씩 총 8개의 교회증식을 통한 증식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church planting'이 건물 개념에만 치우친 것에 반하여 본 논문의 교회증식(church multiplication) 개념은 건물개념을 넘어서 척 스미스처럼 리더십과 사람 중심의 교회성장을 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교회성장임을 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순히 양적 증가를 통한 대형교회주의를 지양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교회증식의 핵심인 복음을 통한 또 다른 교회와 리더십의 증식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6장으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18) 슈바르츠가 주장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그에 의하면 이들 중 어떤 질적 특성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만약 8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무시된다면 무신된 바로 그것에 의하여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가장 최소치를 나타내는 질적 특성을 보강하고 올바로 세울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소치의 법칙이다. 그에 의하면 자연적 교회 성장은 곧 생명체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때 자생적 원리에 의하여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성경적인 교회 성장의 개념을 성경신학적 입장과 현대 교회성장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본 후 확실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성장의 역동성을 초대교회의 생명력인 복음의 역동성에서 찾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현대의 교회성장의 역동성과 비교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론 및 다른 교회 성장 이론들과 앞장에서 다루었던 성경적인 교회 성장론과의 대화를 통하여 비판적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도시화되어 가는 한국 상황에서의 교회 개척의 의미와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교회 개척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근대 한국의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분석과 그 부정적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시화는 보다 건강한 교회들의 증식에 대한 기대감과 꿈을 가져다준다. 현대 대형화된 교회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은 세포분열(cell church planting)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 5 장에서는 창훈대교회의 성장역사를 기술하고 평가할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향후 10년(2001-2010) 동안의 창훈대교회의 교회증식 계획을 통하여 본 논문의 핵심인 교회 증식(church multiplication)의 모델과 케이스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창훈대교회 증식 계획과 비전 그리고 방법과 전략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 증식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증식 형태들을 살펴보고, 증식된 교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회증식에 대한 장애 요인들도 고찰할 것이다. 동시에 사례 연구들에서 발견된 교회 증식의 긍정적인 원리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제 7 장 결론에서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적 교회 증식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할 과제 곧 실제적인 행동지침을 제언할 것이다.

제 2 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증식의 역동성

서론에서 살펴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본 장의 목표이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근거들을 찾아보면서 한국교회 성장의 정체 내지 둔화 현상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제 1 절 하나님: 교회를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

흔히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름을 담임목사의 이름을 따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¹⁹⁾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으며 그분만이 그 교회의 설립자요 건축자시라고 가르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그분의 교회라고 부르셨다(마 16:17, 18).

바울은 이 신성한 소유권이 특정한 지역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와 아볼로논 둘 다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다(고전 3:9,16).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 성장의 모든 참된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쳤다(고전 3:6,7).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분은 교회의 건축자이시다. 그리스도야말로 교회 성장의 진정한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우선적인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어야 한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제한된 시야를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이슈들을 움직여 가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단체들과

19)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애천교회의 정명석같은 이단들은 자신의 영어 이니셜(MSM, JMS)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심지어 주류에 속하는 교단들도 사람의 이름을 따라, 루터파, 갈빈주의자들, 웨슬리파, 메노나이트등으로 부르고 있다.

인간적인 계획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모든 활동의 목표인 그분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진 게츠(Gene Getz)는 지적했다.²⁰⁾

1. 교회 증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소수의 제자훈련, 즉 질적 성장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복음의 확산이라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와 다수의 무리를 모두 사랑하셨다. 소수와 다수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중의 어느 한 가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으로 늘어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다락방에 모인 교인은 120명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탁월한 교회 개척자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와 성도의 배가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그 결과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마 4:23-25)”는 말씀과 “모든 족속”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마음(마 28:19-20; 행 1:8)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증식을 원하셨음을 알려 준다.

2. 수많은 교회 설립자, 바울²¹⁾

20) Gene Getz, Joe Wall,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김현회 역 (서울: 디모데, 2000), 28.

21)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교회를 몸 자체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바울은 교회가 주와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사용한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몸 또는 사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비유의 일차적인 강조점은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통일성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개념을 소개한다. 한 몸이 존재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으며, 이들 지체는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나 몸의 지체들을 기쁘신 뜻대로 배열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일치는 있을 수 없으며, 교회의 일원들 가운데 상호적인 사랑과 관심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김세운 교수는 바울은 그의 선교 전략 중에 개척을 위주로 하였다고 말한다. 김세운 교수는 로마서 15장 20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 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병행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언급하는데 특히 10절과 11절 말씀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중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란 말은 교회 개척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다.²²⁾

김세운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매 중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바울의 생각은 항상 개별적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국가와 지역으로 뻗어나간다. 바울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 각각은, 설립된 그 자체로서,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한다. 즉 빌립보교회는 마케도니아를(빌 4:15), 에베소교회는 아시아를 나타낸다(롬 16:5; 고전 16:19; 고후 1:8).²³⁾

교회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개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세계복음화에 효과적이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교회에 자극과 도전이 되고, 교회 지도자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명성훈 교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바울의 빌립보교회 개척 원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개척팀을 만들라(1-5절). 개척에 성공하려면 성령 파트너와 함께 인간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와 환상적인 팀을 이루어 개척에 성공했다. 개척팀의 동역자는 소명과 목회철학이 같아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은사와 서로간에 충성심이 확실해야 한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6-10절). 초대교회의 개척자는 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셨다.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고백은 개척자들에게 필수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열린 마음, 담대한 믿음, 오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회 대상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셋째, 개척상황에 적응하라(11-15절). 지역도해 즉, 지역의 필요와 특성을 잘 이해하면 목회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바울의 개척팀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룹을 활용한 것은 개척상황

22) 김세운, 신약 성경 신학 I 강의안 144.

23) Ibid., 145.

적응에서 기존 교인을 잘 활용한 예이다. 넷째, 교회개척이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라(16-18절). 교회개척은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다. 바울도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사탄의 공격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이 오므로 인간적 방법이 아닌 영적 권위로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본격적인 핍박에 대비하라(19-24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개척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때 반대와 핍박을 행한다. 그러므로 개척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주민과 불화하는 것은 개척목회에 치명적임을 잊지 말라. 여섯째, 영적승리를 확신하라(25-34절). 야망과 욕심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금방 깨어지므로 금물이다. 소명과 사명으로 개척했다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승리했듯이 개척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기대하라. 일곱째, 균형있는 목회를 추구하라(35-40절). 치우치지 말고 불필요한 고난은 피하라. 한 가지 방법이나 장소를 고집하지 말고 계시와 믿음과 상식을 존중하라.²⁴⁾

이런 언급 후 명성훈 박사는 개척의 성공요소를 다음의 네 가지라고 말한다. 첫째, 성령이 주인이시고, 둘째, 목회자 리더십이 분명해야 하며, 셋째, 적극적인 파트너가 도와야 하고, 넷째, 헌신적인 후원자가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²⁵⁾

3.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은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그 내용과 강조점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 공관복음서의 위임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 이후의 위임으로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의 위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전체의 문을 열어주고 선교와 교회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추진력을 보여 주는 말씀이다.

진 게츠는 사도행전에서의 복음 전달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 활동에 대한 단어들 가운데 누가가 사용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²⁶⁾ 누

24) 명성훈, 교회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106-197.

25) Ibid., 107.

가가 사도행전에서 사용한 복음 전달의 기본 단어들은 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는가에 대해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들은 말했다”이다. “말하다” 혹은 “이야기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라레고(lalego)이며,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기록(행 4:1)과 모든 제들이 성령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행 4:31)에 사용되었다.²⁷⁾ 두 번째 단어는 “그들은 전도했다”이다. 헬라어 ‘euangelizo’는 복음 전달의 수단과 방법까지 보여 준다.²⁸⁾ 세 번째 단어는 “그들은 가르쳤다”이다. 헬라어 ‘didasko’는 그리스도의 인간적 전달과 교제의 방법으로서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²⁹⁾ 네 번째 단어는 “그들은 선포하거나 전파했다”이다. 헬라어 ‘kerusso’는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선포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기술한 모든 단어 가운데서 가장 희귀하지만 가장 중대한 의미로 쓰여졌다.³⁰⁾ 다섯 번째 단어는 “그들은 전했다”이다. 헬라어 ‘katalgello’는 “공공연히 전한다”와 “철저하게 선포하며

26) Gene Getz, 현대 교회 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40-46.

27) 진 게츠는 “말하다”라는 단어들이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도(道, 그들의 메시지)를 말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그들의 권위로) 말했다. 그들은 “담대하게”(그들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그들은 “이 생명의 멍세지”를 말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자 수많은 무리가 믿었다. Ibid., 41.

28) Ibid., 41.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약속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란 의미이다. 특별히 유앙겔리조는 각 개인과 그룹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되었음을 알게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도하였다. 그들은 성전마다,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사막이나 황야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전도했다. 이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한결같이 전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9) 진 게츠에 의하면 디다스코가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자주 등장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행 4:1,2)고 한다. 그러나 처음으로 사도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도(道)를 가르쳤다는 사실은 가장 놀랍고도 중대한 사건이며,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 평신도는 물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한다. Ibid., 42-43.

30)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에서 이 단어 사용의 의미를 잘 볼 수 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사도행전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사역과 함께 연결되어 사용된 이 단어는 불신자를 상대로 한 특별한 복음전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활동을 의미한다(행 10:40-42).

말한다”란 의미이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사도들 특히 바울의 사역에서 그의 복음 전달의 방법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다(행 4:2; 13:5, 38; 15:36; 17:3). 사도 바울은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하고 선포하였다. 여섯 번째 단어는 “그들은 진지하게 증거하였다”이다. 헬라어 ‘martureo’는 목격한 것을 진실되게 증거한다는 의미이다(행 1:8). 특별히 ‘diamarturomai’는 복음 전달 과정을 묘사할 때 이 단어는 지적이고도 감정적인 강한 의미를 수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고도 조심스럽게 결정적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강한 변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행 10:42; 18:5; 20:20-24; 23:11).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이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변증하며 그들의 마음을 확신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그들은 강론했다”이다. 헬라어 디알레고마이(dialegomai)는 “토론하다, 토의하다, 강의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바울은 이 단어를 오직 불신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만 사용했다고 한다(행 17:1-3, 17; 18:4,19; 19:8-10; 24:24-25).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토론’이라는 방법을 분명히 적용시켰다. 특별히 바울은 불신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고 전략적으로 불신자들 사회에 뛰어 들어가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며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성경을 깊이 가르쳤다고 한다.³¹⁾

진 게츠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복음 전도의 방법을 깊이 연구하면, 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과 그 사역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³²⁾ 다시 말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했고, 복된 소식을 공공연히 전파했고, 가르쳤으며, 선포했고 또 증거했으며 불신자들과 토론도 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사도들의 직접적인 사역과 그 활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진 게츠는 신약 성경의 전도 원리를 논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나타난 복음 전도 사역의 특징,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일곱 가지 중에서 본 연구자는 다섯 가지를 오늘날의 교회 성장 현실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개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 복음 전도와 책임을 성실히

31) Ibid., 46.

32) Ibid.

이행하였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해 나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 집단들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생활과 행위를 통해 그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계속해서 도전과 충격을 퍼부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그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으며, 교회가 여러 지역 사회와 여러 나라에 퍼져 설립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삶은 효과적이고 능력있게 복음의 빛을 나타내서 초대교회의 급성장이란 열매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지역 사회를 너무도 소홀히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교회와 자신들뿐인 것을 본다.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은 밖으로 밀려났으며 교회는 단지 활발한 외국 선교 사역을 통해 자신을 치장하고 선전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자가 속한 창훈대교회의 비전 속에도 “지역사회 봉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 게츠의 다음과 같은 말은 본 연구자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개교회가 “예루살렘”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며 어떠한 그럴 듯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전도영역이 전 세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계의 복음화는 바로 우리 집과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도의 표본이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점진적 확산의 원리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행 1:8).³³⁾

둘째, 대중 전도는 개인 전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이 고립된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과 뜻은 모든 부분에서 연합되고 사랑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개교회(local church)가 불신 사회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셋째, 불신자에 대한 복음 전도는 원칙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행되었다. 불신자들이 교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목회자의 특별 설교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불신자

33) Ibid., 54.

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위와 삶의 모범과 너무도 놀랍게 변화된 인격에 의해 크게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다. 어떤 불신자들은 교회의 위선적인 설교와 행위에 대해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은 불신자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 기독교의 실재 즉, 사랑,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체험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 전도는 교회 안에서 보다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언행과 인격을 통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언어와 행실로서 나타내어 불신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넷째, 복음 전도의 제 1차적인 목표는 성인이었고 결국 전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지역 사회와 땅 끝까지 전파하고 있고 또 전파하려는 사역자들을 인정하였다. 신약 성경 서신들은 사도행전에서 있던 순회 전도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복음 전도에 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교회 안에서 밀접한 교제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며, 동일한 복음은 그 당시 세계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순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접하자 자연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악습을 철폐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 양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도 철저하게 변화되자, 불신자들은 그들을 주목하고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완전히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작은 여러 모임 가운데서 나타난 그들의 사랑과 통일성이 너무도 강력하게 표현되자, 그리스도밖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³⁴⁾

34) Gene Getz, 현대 교회 성장학, 38-39.

4. 초대 교회의 교회 성장에서 성령의 역할

혹자는 초대교회의 교회성장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이는 복음전파를 통한 제자화와 선교에 대한 대 위임령의 수행과 성취는 오직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의 임함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공동체, 성령공동체였다. 최초의 제자들의 무리가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할 때에도 오순절 성령체험이 교회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교회의 탄생은 원래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시작되어서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현실화되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명성훈 목사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교회성장, 특히 양적 성장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한다.³⁵⁾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교회는 120명으로 시작되었으나 2장에 가면 창립된 지 10일 만에 성령강림 및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3천 명이 되었다. 거의 매일 회심성장이 일어났으며(행 2:47), 본격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4장에 보면 남자만 5천명, 여자까지 약 1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았고, 6장 1절에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고, 6장 7절에는 제사장을 포함한 종교지도자들 회심하기 시작했고, 8장 12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화되었고, 8장 38절에는 이디오피아인이 구원받았고, 9장 35절에는 온 고을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11장 21절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가 설립되면서 아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13장 12절에는 로마총독이 믿었고, 14장 1절에는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으며, 16장 5절에는 교회들의 수가 매일 늘어났다.

17장 12절에는 귀부인들이 예수를 따랐으며, 18장 8절에는 회당장이 그의 가족

35)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93. 이같은 경이적인 성장률에 대해 와그너는 초대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이내에 유대인 신자만 120명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로버트 콜만에 의하면 오순절 이전의 오백여 명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에는 20여만 명으로 보았다.

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19장 10절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1장 20절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계획을 둘 다 인정해야 한다. 현대 기술과 연구 실적의 도움 없이도 초대 교회는 한 세대 안에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행 17:6).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가? 사실은 그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 운동 전부를 감독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먼저 예루살렘, 그 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행 1:8). 교회가 120명이 모였던 다락방 기도 모임에서 단 하루 사이에 3천명의 군중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행 2:41).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결과로 교회가 5천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행 4:4). 성령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 교회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셨으며(행 4:8,18,29), 그 결과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고(행 10:19), 교회는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성령은 안디옥교회에서 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다(행 13:1-3). 성령은 바울을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로 가도록 인도하셨다(행 16:6-10).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바울을 감옥과 파선에서 끌어내셨으며,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서게 하셨다(행 27:1-28:16).³⁶⁾ 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교회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없다.³⁷⁾

36) 오랫동안 부흥을 연구한 에드윈 오어(J. Edwin Orr)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교회 성장 운동의 배후가 된 동인은 대개 하나님의 백성의 비상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성령의 주권적 역사였다고 논증했다. Gene Getz,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51에서 재인용.

37) 물론 교회 성장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한다고해서, 필요한 지식을 갖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는 책임 있는 인간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균형 혹은 중용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지혜로운 결정을 바탕으로 행동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 선교팀이 제일 먼저 구브로로 향한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가장 가까운 본토는 소아시아였다. 따라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요한 마가는 소아시아로 향해했다. 하지만 후에 제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을 가장 지혜롭게 실제적인 전력은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식민지와 그 수도인 에베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와 그의 일행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다. 바울은 제 3차 선교여행에서야 비로소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주님의 허락을 받았다. 그때 그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했다(고전 16:8,9). 그러므로 지역교회 성장의 열쇠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달려있으며, 성령은 주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지혜와 실제적인 계획과 행동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된다.

5. 교회 성장에 사용된 비유들

신약 성경에는 교회 성장에 대한 비유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 중에 씨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즉, 교회 성장에 대한 비유이다. 13절에서 뿌려진 씨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26절의 “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에서 “썩이 나고 결실한다”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한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란 표현도 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누룩 비유인 33절에서도 “가루 서말 속에 갇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는 표현은 아주 강력한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는 미미하게 시작하였으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도록 성장하고 확장되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에서 48절은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에서 ‘가득했다’는 표현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혼인잔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것에 대한 비유들 즉, 잃은 양(눅 15: 1-7; 마 18:12-14) 비유와 잃은 동전(눅 15:8-10) 그리고 잃은 아들(눅 15:11-32) 비유는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 하나를 얻는 기쁨,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생(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즉 교회 성장의 숫자적 증가개념을 포함한 비유들로는 누룩의 비유(마 13:20,21)와 므나의 비유(눅 19:11-28), 달란트의 비유(마 25:14-20)와 무화과의 비유(눅 13:6-9) 그리고 등경 위의 등불 비유(마 5:15)등이 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어떤 성장에 관심을 둔 효율성을 포함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이들 비유 속에 증가개념이 없다면 이 비유들은 다른 의미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제 2 절 초대교회의 역동성

21세기 교회 부흥의 비결을 확립하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원리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제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 복음의 역동성

이태웅박사는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전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³⁸⁾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또한 사람을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바울같은 사람을 개종시킨 능력이다.

38) 이태웅,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전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의 전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죠이선교회, 1993), 200.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입각해서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니더라도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했을 때 회심시키는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 말고는 아무 것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초대교회 당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한번에 삼천 명, 오천 명이 구원받고, 전혀 전통의 틀에 매였던 사람들도 변화시켰다.

이태웅 박사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 비전을 지난 역사 속에서 빌리 그래함 목사의 경우에서 찾아보았다.³⁹⁾ 그리고 이태웅 박사는 “이것은 빌리 그래함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적하고 싶다”⁴⁰⁾고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해 보고 싶은 것이 본 연구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2. 헌신된 리더들

이태웅 박사는 초대교회는 전도와 제자훈련을 적절히 조화시키므로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⁴¹⁾ 그에 의하면 예수님의 열 두 제자 훈련이외에도 사도 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훈련의 조화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⁴²⁾. 초대교회는 회심 후 “날마다 집에 모여서” 작은 모임(소그룹)을 구성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한 열두 사도들은 회심한 삼천 명을 즉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이다.⁴³⁾ 그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제자훈련은 단순히 제자훈련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39) Ibid, 200-201. 이태웅 박사는 그 예로 1990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던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와 1973년 한국의 여의도 광장 전도대회를 들고 있다.

40) Ibid.

41) Ibid., 197.

42) Ibid.

43) Ibid.

제자훈련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며, 그 열매로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날마다 돌아오는 성도 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은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제자의 삶을 실천한 결과이다.⁴⁴⁾

본 연구자는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은 헌신된 리더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받은 열 두 제자와 이들 열 두 제자들로부터 또다시 제자훈련을 받은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윌리엄 바클레이(W. Barclay)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감한 이야기, 즉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보여진다고 했다⁴⁵⁾.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정의를 행하기를 단념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무리에 의해서도 위협 당하거나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데서 오는 용기였다. 그들의 용기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그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할 수 있었다고 바클레이는 말했다.⁴⁶⁾ 바클레이의 말대로 초대교회의 헌신된 리더들은 결과를 알면서도 보인 용기, 위협이나 굴복 당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확신에서 오는 용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다운 용기의 소유자들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역동적인 지역 교회

윌리엄 바클레이는 초대교회 생명력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했다.⁴⁷⁾ 그것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초대교회의 모든 특성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클레이는 이 구절들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를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그가 찾아낸 초대교회의 특성들을 살펴보자. 첫째,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 42절은 그들이 얼마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던가를 말해 준다. 바클레이의 설명을 들어보자.

44) Ibid., 197-198.

45) W. Barclay, 초대교회 생명력,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0), 40.

46) Ibid., 48.

47) Ibid., 22.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으며, 고도로 조직화된 교회도 없었다. 대부분의 그들의 설교는 노천에서 행해졌으며 거리 모퉁이나 도시의 광장에서 행해졌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커다란 집을 주일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을 빌려주었다. 한 이교도가 길거리나 시가지에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어떤 한 사람 앞에 서 있는 몇 사람의 모임을 보게 된다. 거기서 그는 크게 흥미를 느끼게 될 때 이렇게 묻는다. “어디에 가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소개받고, 거기 가서 신앙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⁴⁸⁾

바클레이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배움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었다. 그에 의하면 “참다운 교회란 언제나 배우는 교회이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배우는 그리스도인”⁴⁹⁾이다.

둘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⁵⁰⁾ 42절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들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곤란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교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으며 살았다. 때로는 핍박과 환란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난국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음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다.

셋째, 초대교회는 두려워하는 교회였다.⁵¹⁾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의 의미보다 경외심을 뜻할 때가 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현존과 존재 앞에서 두려워했다.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시다.

넷째, 초대교회는 사건이 전개되는 교회였다.⁵²⁾ 43절에 사도들에 의해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초대교회에서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 참다운 교회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섯째, 초대교회는 나누어 가지는 교회였다.⁵³⁾ 44절과 45절은 초대교회가 나누

48) Ibid., 23.

49) Ibid.

50) Ibid., 25.

51) Ibid., 26.

52) Ibid., 27.

53) Ibid., 28.

어 가지는 교회, 즉 부자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난하였다. 그 중에 일부는 노예였다. 때때로 주의 날에 가지는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통용하던 시대의 교회였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였다.

여섯째,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다.⁵⁴⁾ 4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말하자면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들은 결코 교회에 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유대감을 가진다. 다 함께 노래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다 함께 말씀을 듣는다. 혼자의 경험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경험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 외에도 바클레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애로 뭉친 형제적인 교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칭송받는 교회 곧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⁵⁵⁾

명성훈 박사는 가장 위대한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고 했다. 변화의 주도자는 하나님이다. 흔히 알고 있듯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⁵⁶⁾ 첫째, 변화를 위한 지도력을 확보하라. 둘째, 건강한 교회의 표적을 구하라. 셋째, 창조적 위기의식을 가지라. 넷째,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 다섯째, 예산과 재정을 재평가하라. 여섯째,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 일곱째, 성도들을 힘있게 하라. 여덟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아홉째, 변화의 재생산을 추구하라. 열째, 변화의 문화를 정착시키라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내외적인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력과 부활의 소망이 주는 능력을 결코 잊지 않으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동기 부여된 평신도

마이클 그린(M. Green)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⁵⁷⁾ 그린에 의하면 오론테스 강변의 안디옥은 부요하고 강

54) Ibid., 29.

55) Ibid., 39.

56) 명성훈, 교회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118-119.

력한 로마의 수리아 속주의 수도였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또한 다민족, 군사도시였으며, 부요한 삶을 살았으나, 방탕하고 섹스에 미친 도시였다. 수많은 우상(행운신, 운명신, 천사신, 불멸신)들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계적인 신앙이 된 것은 바로 이같이 까다롭고 호기심이 많은, 개화된 도시에서부터였다고 한다. 안디옥은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다. 안디옥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위 문화로 남았을 것이라고 그린은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의 반(反)문화가 되었으며, 그 때문에 유대교가 와해되고 로마제국이 멸망해도 살아 남게 되었다고 한다.⁵⁸⁾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그린은 안디옥교회가 근본적인 대안, 반문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제3의 종족으로 보인 것은 국교의 후원이나 성직자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한다. 안디옥교회의 성장은 모두 평신도들, 안디옥의 평범한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신도들의 큰 희생을 각오한 모든 생활 양식이 가져온 결과라고 그린은 말한다.⁵⁹⁾ 매우 평범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고향을 떠나 뵈니게 해안을 따라 위로 올라가며 안디옥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도시들을 방황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 즉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실제로 와서 죽음을 당하고 당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관해 꾸준히 이야기했다. 이 떠도는 시골뜨기(평신도)들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웅 박사는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전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서 초대교회의 전도는 횡적인 면과 종적인 면을 동시에 강조했다.⁶⁰⁾ 여기서 횡적인 확장은 사도행전의 전도 역사를 의미하며, 종적인 확장은 서신서들의 성화 역사를 의미한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양면성을 잃지 않고 전했기에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지 않고 성화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 예로 바울 사도는 신앙의 연륜이 많지 않은 데

57) M.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38-39.

58) Ibid., 38.

59) Ibid., 39.

60) 이태웅,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전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202.

살로니가교회의 초신자들을 향해서 교회의 신빙성과 주의 재림과 성도의 일상 생활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신학적 내용을 언급한다. 또한 전도한지 3년 정도밖에 안된 에베소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신자의 삶에서의 성령의 역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원칙들 같은 실로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그 당시 평신도, 즉 전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이태웅 박사는 주장했다.⁶¹⁾

이것은 바울 사도가 평신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수준있는 사역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고자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언급한 이태웅 박사의 진술을 인용해서 본 연구자의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말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그러나 단순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은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전도의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신학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하겠다. ...온 교인이 신학적으로 깊이 알 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되며 그 순종으로 전도하게 되고 이 세상은 곧 복음화가 될 것이다. 불과 십만 혹은 이십만 명 정도의 선교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전도에 힘써야 한다.⁶²⁾

이와같이 교회의 역동성은 복음 자체의 역동성과 헌신된 리더들 그리고 역동적인 지역 교회와 동기 부여받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교회증식의 역동성의 근거가 된다.

61) Ibid.

62) Ibid., 203.

제 3 장

다양한 교회 성장론

본 장에서는 다양한 교회 성장을 살펴보면서 교회 성장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다음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과 다른 종류의 교회 성장론 그리고 그들의 장점과 문제점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교회 성장과 현대의 교회 성장론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성장운동의 성경적 신학적 배경

교회 성장은 초대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행 2:43-47). 바울은 교회 성장의 성경적 근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고전 4:6-7). 그리고 교회 성장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1969년 “미국 전도 대회”(The America Congress for Evangelism)가 계기가 되었다.

1. 교회 성장 운동의 출현

‘교회 성장’이란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맥가브란이었다. 그가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34년 감리교회 감독 피켓(J. W. Pickett)의 “교회는 자란다”⁶³⁾는 주장에 근거한다고 했다. 맥가브란은 그 후 20여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계속한 결과 1955년 ‘하나님의 다리’를 출판했는데 이것이 교회 성장학의 효시가 되었다. 1961년 맥가브란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최초의 현대적 교회 성장 기구라 할 수 있는 ‘서북 기독교 대학’에서 시작하였다. 이 학교

63) D. A. McGavran, 교회 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9.

는 계속 성장하여 결국 맥가브란은 1965년 세계 선교회 풀러 신학교 초대 학장이 되었고 이 신학교에서 맥가브란은 티팻(A. Tippet), 와그너(C. P. Wagner), 아더 글래스(Arthur Glasser) 그리고 랄프 윈터(Ralph Winter) 등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 경험자들과 교회 성장 사상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들의 고민은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성장을 중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는 것이었다. 거기에 사회 과학과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교회 성장운동은 1960년 한국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성장’이란 전문 용어가 생성된 것은 1950년대 자유주의적 선교사들이 선교를 고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비성경적으로 정의한데 혐오감을 느낀 맥가브란이 성경적인 선교 개념을 모색하는 중에 처음에는 ‘전도’ 혹은 ‘선교’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나 나중에 ‘교회’와 ‘성장’을 결합시켜서 생긴 용어이다.⁶⁴⁾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⁶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교회성장학은 “교회 확장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신학적 원리와 현대 사회 과학과 행동과학의 가장 좋은 점을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학문”⁶⁶⁾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와그너가 교회성장을 가시적이며,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신학과 충실한 성경적 근거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⁶⁷⁾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성장이란 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건실하게 살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기록하고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교인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순종을 의미한다”⁶⁸⁾고 정의했다.

64) 장중렬,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9), 239.

65) Peter Wagner, 교회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10.

66) Peter wagner, 성서적인 교회성장, 홍철하 역 (서울: 보이즈사, 1984), 75.

67) D. A.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김요한, 김종일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87), 8.

68) 은준관, 기독교 사상 제 279호: 교회성장의 문제점과 대안 1981년 9월호, 14.

2. 교회 성장의 성경적 근거

교회는 성경적 근거 위에 성장해야 한다.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엡 1:23-24)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숫자적인 증가가 성경적인 교회성장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성장이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눅 19:20)이요 베드로 설교(벧후 3:9)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성장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마 29:19-20)과 성령을 통한 명령의 실행(행 1:8)에 대한 말씀은 교회성장이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과 성장 발전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 구약의 교회 성장론

구약에서 교회 성장은 원심력적 방법의 선교, 즉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의미에서의 선교활동은 없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사상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다. 피터 와그너는 구약 선교 개념의 뿌리가 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구원의 보편성)에서 교회 성장의 성경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⁶⁹⁾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전 세계는 그의 피조물이다. 구약성경에서 천지창조는 주님의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의 필수적인 기초이다. 둘째, 하나님은 통치자이며 재판관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면 통치자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천지와 인간과 짐승의 창조자이시므로 그는 장차 창조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의 구속자로 자신을 제시할 것이다(시 86:9). 여기에 구약의 선교적 요소가 있으며 교회 성장의 성경적 근거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개념을 내포하는 근본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택이란 ‘특수주의’(particularism)는 세계 구원을 위한 수단, 즉 열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을 위한 약속의 보

69) Peter Wagner, 교회성장 원리, 44.

존자이며 축복의 중계자 그리고 열국의 구원을 통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들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신 33:9), 성결의 아름다움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시 29:2). 일생적 삶을 통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다(미 6:8). 이방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 속에서 유일신교와 도덕적 순결을 보전하므로 여호와와 영광을 전 세계에 알려야 했다(사 62:2). 이것을 통해 이방 나라들이 창조주께 돌아옴으로 구원의 목적을 확장시켰다. 이는 수동적인 방법의 선교의 역할, 다시 말해서 구심적 선교(centripetal mission)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교회성장의 절정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것을 이방인의 자발적 도래(apontaneour coming of heather)라고 했다.⁷⁰⁾ 종말에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들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다(사 2:2; 55:5-6; 66:18-21; 스 8:22).

결론적으로 구약의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백성 모으기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자 전 세계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며 재판관이시다. 그분은 이방의 왕이요 통치자시다. 제사장 나라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였다. 그래서 와그너는 이같이 모든 족속을 불러모으는 구약 선교 역사가 바로 교회성장 원리의 구약적 근거라고 말했다.⁷¹⁾

나. 신약의 교회 성장론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 나라는 영적인 성격을 가지며(롬 14:17),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⁷²⁾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명령(the great commission)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미 제 2 장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서신서를 중심으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70) Herman Bavinck,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53.

71) Peter Wagner, 교회성장의 원리, 15.

72) G. Vos, 하나님 나라, 정정숙 역 (서울: 한국 개혁주의신행협회, 1981), 25.

로버슨 맥퀼킨(Robertson McQuilkin)은 “교회성장의 생각은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숫자적 교회성장이란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의 최후의 목표에의 유용한 요약이다. 그렇다면 이 교회성장 운동의 가장 큰 원리는 단지 성경에 의해 허가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발적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커다란 구속의 목적 속에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명령이다.⁷³⁾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미래의 영역이다(마 8:11, 벰후 1:11).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보편적이며(마 25:31-36), 그 구성은 범세계적이고(마 8:11), 그 기간은 영원한 것이다(눅 1:33). 하나님 나라는 권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것이고(요 8:31-32),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롬 13:8-10),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기초한다(요 18:32-38).

교회를 창조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구속 활동과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히 9:12), 전 세계의 죄로부터 영원한 구속(요일 2:2)을 이루시고 “세상의 주”(요일 4:14)와 “만유의 후사”(히 1:2)가 되셨다. 그분의 부활 사건은 교회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다. 부활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발아래 놓여진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며 만대의 왕이시다(계 15:3-4).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재이시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따라서 만민은 그분의 통치아래 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롬 14:11)과 모든 민족들(계 11:18)과 화해하실 것이다. 이것은 대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하는 근거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책임도 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 개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성장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73) 장현운, “교회성장 이론에 따른 개척교회의 성장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96), 44.

3. 교회 성장 운동의 신학적 배경

교회성장운동(the church growth movement)은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 중의 하나이며 세계 어느 곳의 교회도 교회성장의 메시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태동기부터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세계교회협의회(W.C.C.) 진영과 오랜 논쟁을 해왔다. 1964년 교회성장회보를 통해 호켄다이크(J. C. Hockendijk)와 맥가브란 사이에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하에서 시작된 논쟁을 필두로해서 1968년 W.C.C 제 4차 대회에서의 논쟁은 양 진영이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 후 방콕대회(1973), 로잔대회(1974), 나이로비대회(1975)등에서 양 진영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도 보여주었으나 논쟁은 계속되었다.

가. 교회와 선교의 상호관계성 개념

제 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에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4)에 이르는 “한 세기의 회의”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관심은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문제였다.⁷⁴⁾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모임이 1938년 인도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M.C)의 탐바라 대회(Tambaram, Madras)였다. 1952년 I.M.C.의 빌링겐대회(Willingen)에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교회연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며 선교는 교회의 본질 자체에 속하는 과제라고 선언하였다.⁷⁵⁾ 교회는 선교를 통해 존재한다. 베르카일(Johannes Verkuyl)은 선교는 교회의 본래적이며 핵심적 의무이며, 교회 존재의 이유라고 했다.⁷⁶⁾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살피지 않고 선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선교를 살피지 않고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

나. 교회성장운동의 부정적인 측면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운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된 것을 다섯 가지로 말

74) Charles E. Van Engen,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 An Analysis of the Ecclesiology of the Church Growth Theology (Amsterdam: Redopi, 1981), 8.

75) 조범식, 교회 성장학파의 교회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994), 13.

76) Johannes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27.

하고 있다. 첫째, 교회성장은 신학의 아주 특별한 한 분야이다. 둘째, 교회성장의 새로운 어휘는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색다르고 비신학적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다. 셋째, 교회성장신학은 활동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가장 확실한 한가지 이유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를 요구한다.⁷⁷⁾ 교회 성장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기초를 세우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회성장이론이 “실제적인 현장신학”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연결이나 판단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회성장학파의 글과 그 비평가들의 글에 있어 하나의 특징은 논쟁적 대화이다.

한편 교회성장에 대한 비판도 논쟁적이었다. 독일의 평신도 부쉬(Von dem Bussche)는 교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맥가브란을 ‘미국 팽창주의자’로 단정지었다.⁷⁸⁾ 다비어스(J. G. Davies)는 그의 논문에서 교회성장의 관점을 “모호하고 그릇되고 어리석은 것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일개 부족의 신”⁷⁹⁾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교회성장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대부분 맥가브란의 삶과 그의 선교학적 입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이다.

다.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접근

라토렛(K. S. Latourette)은 지난 세기의 교회의 놀란만한 성장을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 표현하였고, 윌리엄 템플(W. Temple)은 기독교만이 세계적 종교임을 “위대한 새 사실”(the great new fact)라고 설명했다.⁸⁰⁾ 특별히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세계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랄만한 교회성장을 설명하면서 1975년 로잔에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11억 7천 9백만 명이라고 발표했다.⁸¹⁾ 조범식은 교회의 이해와 관련해서 교회성장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을 역사적 관점, 교회의 프락시스(praxis)의 전망에서 그리고 교회자체가 지닌 본질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⁸²⁾

77) Peter Wagner, Frontiers in Mission Strategy (Chicago: Moody, 1971), 37-40.

78) 조범식, 교회성장학파의 교회론 연구, 18.

79) Ibid., 19.

80) Set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Aylesbury, Buks: Hajellwaston & Vinery, 1964), 15.

81) 조범식, 교회성장학파의 교회론 연구, 21.

특별히 교회의 프락시스의 측면에서 맥가브란은 유럽에서 성장을 가져온 사회적 요소가 멕시코에서도 교회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맥가브란에게 있어서 복음은 특별한 문화의 맥락 속에서 호소력을 지니는 것이었다.⁸²⁾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교회성장의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엔 부족하다. 아래로부터(from below)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역사등의 도움 없이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해를 그것들로만 분석한다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회의 존재이유와 사회학적 특징의 둘 모두가 필요하다. 교회는 가시적이고 동시에 불가시적이다. 교회는 믿어지는 것인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운동은 선교학 중에서 사회학, 인류학, 통계학 등의 사용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입장 중의 하나이다. 그들의 사례연구들은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에 기초한 통계자료로 가득하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from below) 교회를 연구한다. 그러면서도 맥가브란은 “위로부터”(from above)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 요소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운동(the church growth movement)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 놓았다. 교회성장운동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들은 인력과 자금 그리고 모든 계획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선한 일들이 행해진다 해도 선교의 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아더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⁸⁴⁾라고 표현했다.

82) Ibid., 19-26.

83) D. A. McGavran, Church Growth in Mexico (Grand Rapids: Eerdmans, 1963), 112.

제 2 절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론

1. 맥가브란 교회 성장론의 형성 배경

맥가브란의 교회성장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삶과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데 동료교수인 티펫(Alan R. Tippet)⁸⁵⁾과 제자인 와그너(C. Peter Wagner)⁸⁶⁾ 그리고 맥가브란 자신의 저서⁸⁷⁾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맥가브란은 1877년에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나 1920년 인디애나폴리스의 버터대학(Butter University)과 1922년 뉴 해븐(New Haven)의 예일대학 내 신학교(Divinity School) 그리고 1923년 인디애나폴리스의 선교대학(College of Mission)에서 각각 학위(B.A., B.D., M.A.)를 받았다. 맥가브란은 선교대학 졸업 후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urch'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연합 기독교 선교회(The United Christian Society) 소속 선교사로 인도의 하다(Harda)에 파송 받았다. 루스 터커에 의하면 그는 원래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선교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선교사가 아닌 법률 분야에 야망을 품고 있었으나 학생선교 자원자 운동을 계기로 선교에 헌신했다고 한다.⁸⁸⁾

그는 선교부에서 교육과 행정직을 맡으면서 막대한 선교자금과 선교사들의 열심과 헌신에 비해 자신이 속한 선교회의 회심자 수가 매년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장을 목격하면서 교회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연구의 동기는 왜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이것을 그의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운동의 시초가 되었다.⁸⁹⁾

84) 조범식, 교회 성장학파의 교회론 연구, 3.

85) Alan R. Tippet, Portrait of a Missiologist By His Colleague in God, Man and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73).

86) Peter Wagner, Church Growth State of Art, (Wheaton: Tyndale, 1986)의 1장과 2장. 그리고 Your Church Can Grow, (Ventura, Ca.: Regal, 1976).

87) Effective Evangelism: Theological Mandate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8) 중에 6장에서 9장까지.

88) R. Teker,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625-626.

89) D. A. McGavran, Church Growth Movement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14.

특별히 당시 감리교 감독 피켓(Jarrel Waskon Pickett)의 저서 Christian Mass Movement in India(1933)에서 그의 사역의 전환점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는 “사실 상 나의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는 감리교 감독 피켓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교회성장에 대한 나의 관심에 불을 붙여주었고 나는 그의 불에 나의 촛불을 붙였다”고 한다.⁹⁰⁾ 1936년 그의 저서 Christian Missions in Mid-India는 선교사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People Movement’ 개념은 기존의 피켓의 ‘Mass Movement’ 개념보다 개인의 인격과 의견이 존중되는 상호의존적 회심을 동반하는 결정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의 전환을 가져왔다.⁹¹⁾

맥가브란은 1954년에 아프리카 8개국을 돌면서 교회들을 현지답사 및 연구 관찰을 통하여 1955년 Bridges of God란 책을 출판하여 여러 선교단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⁹²⁾ 그는 1956년부터 1967년 동안 현지답사를 통하여 교회성장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체계화하여 How Churches Grow를 출판하게 되었다. 1960년 오리건주 유진(Eugene)의 한 학교(North West Christian College)의 초빙을 받아 ‘The Institute of Church Growth’를 설치하여 안식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회성장이란 주제의 강의를 하였다. 그 후 패서디나(Pasadena)의 풀러신학교의 초빙으로 초대 선교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회성장 운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교회성장학과⁹³⁾를 형성하여 그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2.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 원리들

1965년 풀러신학교는 맥가브란으로 하여금 세계선교학교(School of World Mission)를 세워 선교이론과 교회성장학을 접목시켜 선교학을 교회성장학으로 변형시켰다. 맥가브란은 인도에서의 30년 간의 선교 경험을 기초로 하여 교회 성장론을

90) McGavran and G. G. Hunter III,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Nashville: Abingdon, 1980), 14.

91)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70), 339-342.

92) Wilbert R. Shenk, The Challenge of Church Growth: A Symposium (Scottsdale: Herald Press, 1973), 15-22. 배만주, 맥가브란 이론의 신학적 고찰과 그 응용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8.

93) 당시 풀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과교수들은 Alan R. Tippet, Ralph D. Winter, Charles H. Kraft, J. Edwin Orr, Arthur F. Glasser, 그리고 C. Peter Wagner 등이었다.

1960년대에 미국을 제외한 5대주에 그리고 1972년부터는 피터 와그너와 함께 미국교회에 적용하여 오늘날의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론⁹⁴⁾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 동질 집단 원리

동질집단원리(homogeneous)는 맥가브란 이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는 교회성장이 사회적 구조를 중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언어, 인종, 문화 등 서로 같은 부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 동질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모든 사회는 동질단위가 모여서 더 큰 동일집단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교회 성장의 이해에서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또는 계급적 경계선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⁹⁵⁾고 했다.

이는 한 사람을 개종시킬 때 그를 그 속했던 공동체에서 독립시키어 교회나 선교사 마을에 둘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넘지 않게 하여 자기 사회에 그대로 머물도록 한다는 원리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그들의 가족생활과 직업, 경제력, 교육수준 그리고 지역적 배경이 큰 차이가 없을 때 잘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동질집단에 머물도록 하여 가족, 부족, 혈연, 계급 등의 관계를 통하여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다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질단위의 원리에 의하여 교회를 구성할 때의 장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넘지 않고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은 동류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습성으로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셋째, 대화의

94) 맥가브란과 헌터 3세는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18에서 12가지의 풀러 신학교 교회 성장론을 언급하였다. 1.전도의 목적은 제자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2.교회 성장학은 과거의 성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을 계획함에 있어서 통계 숫자와 통계표를 중시한다. 3.교회성장의 목표설정을 중시한다. 4.어떤 특정한 전도 전략만이 모든 문화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토착적 전략을 강조한다. 5.선교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즉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을 중시한다. 6.효과적인 전도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제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7.과거의 전도 원리와 방법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믿는다. 9.과감한 교회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10.이론과 전력을 위한 세계 전체에 걸친 자료를 가지고 있다. 11.결신자를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란 교회관을 믿는다. 12.교회성장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

95) 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198.

편리성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교회 내에 지방색과 분파주의의 원인이 될 위험성도 내포한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극단적인 동질단위, 즉 편협한 '유유상종'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질성의 원리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동질성의 원리는 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양육의 측면에서는 희석화란 부정적 면이 있기에 보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대중운동의 원리

대중운동(people movement)의 원리는 동질집단의 원리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흔히 대중운동원리를 부족운동 혹은 그룹개종이라 부른다. 맥가브란에게 있어서 대중(people) 개념은 결혼 및 친밀한 교제생활이 그 사회 내에서만 발생하는 부족, 카스트 또는 비슷한 동질의 무리를 의미한다. '대중'(people)은 부족 또는 카스트, 종족, 혈족 또는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서로 밀착된 유대를 지니는 부분임을 나타낸다.⁹⁶⁾ 이 대중운동의 효시는 인도 남부의 하층 계급에서 일어나서 교회성장의 원리에 접목된 것이다.

맥가브란은 대중운동의 뿌리를 성경과 서구 사회로 본다. 그는 신약 성경의 개종운동을 동질단위의 부족이 집단으로 개종한 것으로 보았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족속"을 동질 단위의 사람으로 해석하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 5,000명으로 회심한 것도 대중운동의 관점에서 본다. 서양 교회사 속에서 교회성장도 역시 대중운동 때문으로 본다. 어떤 사회이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개인들은 공동체의 제약과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이 공동체의 집단 의식이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각 개인은 그 최후 결정에 참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되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각자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다원적 개인의 회심(multi individual conversion)이라고 맥가브란은 칭한다.⁹⁷⁾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형제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 결심을 알리고 권면하는 것을 상호 의존적 회심(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이라고 부른다.⁹⁸⁾

96) Ibid., 334.

97) Ibid., 340.

98) Ibid.

맥가브란은 집단 개종 운동의 장점을 5가지로 말한다.⁹⁹⁾ 첫째, 토착화의 원리로 서, 저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금같은 신앙을 나타내며 또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둘째, 자립원리로 자기 문화를 버리지 않고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선교사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 자치, 자력 전파가 가능하다. 셋째, 자발적 확장으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넷째, 주변의 동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에게 전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많다. 다섯째는 대중운동은 신자가 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전체 개종자들의 최소한 3분의 2가 대중운동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며, 미래의 성장도 대중운동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다. 수용성 원리

수용성(receptivity)은 한 집단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가를 의미한다.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수용그룹과 저항그룹이 존재한다.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수용적이고, 갈릴리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수용적이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수용적이었다(행 17:11). 수용성 원리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하셨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이론에 기초한다. 특별히 교회성장학파들은 이 원리가 사회와 문화적 요소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두르카임의 아노미 현상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사회보다 불안한 사회는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새 정착민이 사는 교회나 교회의 통행이 잦은 곳, 피정복민족들,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 통제가 심한 나라 그리고 문화변용이 심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다고 한다.¹⁰⁰⁾ 그래서 맥가브란은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나 인종을 분석하여 일종의 추수신학(Harvest theology)으로서 이런 곳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⁰¹⁾ 물론 수용성이 낮다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수용성이 낮다고 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전략상의

99) Ibid., 336.

100) Ibid., 218-220.

101) Donald A. McGavran, The Bridges of God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8), 125.

문제로 수용성이 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 싸여 겹을 먹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맥가브란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개인과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도시와 시골, 선진사회와 후진사회,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수용성의 차이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교회성장을 이해하려면 수용성의 차이를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맥가브란은 주장한다.¹⁰²⁾

라. 사회과학의 원리

교회성장 전략에서 사회과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성장 운동은 교회와 선교회가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문화 인류학과 사회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통계 분석 같은 사회 과학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학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성장을 위하여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다. 그래서 풀러신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의 선교 신학, 교회 성장학, 기독교 선교 운동사, 인류학, 물활론(animism)을 핵심과목으로 요구한다. 맥가브란은 문화와 사회를 유기적 통일체로 보는 고전 사회학 이론에 도움을 받는다. 또한 교회성장의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구속과 상승은 에른스트 트뤼취와 리차드 니버의 사회학 이론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의 신적인 요소를 간과하지는 않는다.

비록 맥가브란이 교회성장에 도움이나 방해가 되는 문화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는 교회성장의 제일 원천은 신학적인 요소임을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는 교회를 신적인 제도 곧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함을 뜻한다.¹⁰³⁾

마. 토착화의 원리

선교역사를 통해서 많은 복음선포가 있었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파고들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직면한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은 그 원인분석에 착수했다. 그래서 복

102) 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179.

103) John T. Seaman,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Church Growth, in God, Man and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3), 95. 티펫(Alan R. Tippet)은 맥가브란의 이런 면을 이어받아 사회과학보다 궁극적인 것, 비문화적인 적 곧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토착 교회 설립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토착교회 원리는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전략에서 특징적인 요소이다.¹⁰⁴⁾ 맥가브란의 선교이론은 19세기 헨리 벤, 루푸스 앤더슨, 네비우스 등의 자립, 자치, 자력전파의 3자 원리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지역문화와 조화되는 토착신학이다. 토착신학이란 신학과 문화를 결합한 일종의 지방신학으로 신학과 문화인류학의 결합체로 볼 수도 있다. 맥가브란은 기독교는 대다수의 문화요소에 대해 전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해서 신학과 문화인류학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성장학은 교회와 신앙이 지역문화의 옷을 입고 토착화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교회성장 운동은 교회와 신앙이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적응하여 토착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확신한 맥가브란은 토착교회가 더 잘 성장하는 이유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⁰⁵⁾ 첫째, 토착적 교회원리를 현명하게 따르는 선교사는 선교를 일차적으로 교회개척으로 해석한다. 둘째, 비기독교인들은 토착 교회들의 무급 지도자들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로, 사실 대부분 그들 자신의 친척들로 본다. 셋째,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행함에 의하여 배우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갑절로 더 많이 배우게 된다. 넷째, 도와주는 선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목사들에게 지불할 돈을 절약하게 된다. 다섯째, 전체 성원에 의한 자연적인 증가가 더욱 가능하게 된다. 여섯째,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책임있는 성원들이 되라고 할 때 교회들은 뜻밖의 장소들에서 배가된다. 일곱째, 교회들의 규모가 커지고 교인들이 증가하게 되면 토착 교회 원리들에 의하여 생활비가 지급되는 전임사역자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여덟 번째, 토착교회 원리들은 교인 규율이 지역 교회들에 일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04) 1890년대부터 1910년까지 미 장로교 극동지역 선교총무였으며 한국 선교사들을 관할하는 책임자였던 로버트 스피어(Robert E. Speer)와 트리니티 신학교의 데이빗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는 바울의 선교전략의 특징을 토착교회 설립이라고 본다.

105) 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78-382.

제 3 절 교회성장론의 평가

모든 이론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교회성장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맥퀼킨(J. R. McQuilkin)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 평가(Measuring the Church Growth)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¹⁰⁶⁾ 첫째 교회성장 학파의 수적 성장 개념은 성경적이다. 이것은 허용만이 아니라 명령이다. 둘째, 수용성원리도 성경의 근거가 있다. 셋째, 대중운동은 성경적 명령은 없지만 전례가 있다. 넷째, 문화인류학은 명령은 없지만 과학을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교회성장 이론을 적용함으로 대성장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마일즈(Delos Miles)는 교회 성장학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울러 맥가브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모든 백성”을 이방이 아닌 동질집단으로 해석한 것과 제자화(discipling)와 완전한 단계(perfecting)를 분리한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한다.¹⁰⁷⁾ 그러나 교회성장 학파의 지나친 문화적 동질 집단 원리만을 고집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성장 운동이 지니는 신학적 문제는 선교의 열의가 신학적 교리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저해 받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 입장만 나눌 뿐 나머지는 각 교파의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¹⁰⁸⁾ 아써 글라서(Arthur F. Glasser)에 의하면 맥가브란의 신학적 유산은 19세기 초 스코틀랜드와 미국 개척자에게서 동시에 발전된 회복운동인 그리스도의 제자운동(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종파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맥가브란은 ‘그리스도의 교회’파에 속하였고, 알란 티펫은 웨슬리 신학의 감리교 목사였으며, 아써 글라서는 약간 온건한 개혁주의 신학의 개혁장로교회 목사였다. 이는 교회성장 이론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도, 웨슬리안도 아니다 이런 혼재는 결국 잘못된 신학적 적용을 낳는다.

또한 교회성장 신학은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성장’을 동일시한 결과 절대주의를 낳고 교회의 사회 참여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장의 동일시는 교회성장 지상주의로 흐르기 쉽다. 이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

106)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243.

107) D. Mildes, Church Growth: A Mighty River (Nashville: Broadman Press, 1981), 134.

108) 맥가브란, Understanding Church Growth, 8-9.

치적 활동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 단위 집단 원리의 강조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사회 문제에 두게되어, 우선순위에 있어 인간의 죄성과 타락보다는 군집전체의 속성에 맞추기 때문에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모든 동질 단위가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 이런 성경의 교훈을 따라 초대교회는 이질 집단이 하나로 모였다. 무식한 자(행 4:13), 제사장(행 6:7), 바리새인(행 15:5), 가난한 자(행 2:44; 4:32-37)가 모였으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동질단위로 모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에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와 유대 출신 바울이 동역하면서 목회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질 집단의 문제를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맥가브란의 동질집단의 원리는 교회성장 원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 적용되고 훈련되어 사용된다면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 의식을 강화하는 초인종적이고 초문화적인 교회 협력과 선교에의 동참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응답을 보이는 이들에게만 전념해야 한다는 복음의 수용성의 원리도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선교의 대위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셋째, 봉사의 본질은 특정한 곳에만 한정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교회성장신학에서 선교를 교회 성장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의 대상은 복음의 수용성에 민감한 곳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이다. 수용성의 정도가 가리키는 수치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사역 자체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 4 장

한국교회의 설립과 증식 역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기독교와 접촉한 것은 1832년의 일이다. 그 해에 동인도회사는 로오드 앰허스토(Lord Amherst)라는 배를 중국 북방으로 보내어 통상의 가능성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의 하나로 귀즐라프(Karl Gutzlaff)라는 독일 선교사가 있었다.

제 1 절 한국교회의 시작

1. 카톨릭의 전파

기독교가 한국에 언제 전래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 기독교의 태동과 연결되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장로교신학대학교 김인수 교수는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카톨릭 선교 이전의 천주교”에서 천주교 이전에 경교의 동양선교의 가능성¹⁰⁹⁾과 교황 인노첸트(Innocent) 4세의 두 번째 몽고 사절 루브룩(William Rubruck)의 한국 소개¹¹⁰⁾ 그리고 한국에 처음 온 카톨릭 성직자 켄스페더스(Gregorio de Cespedes)¹¹¹⁾에

109) 김교수에 의하면 경교(景敎)란 콘스탄티노플(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의 주교 네스토리우스(Nestorius)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것을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 추방된 후 페르시아에 수도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사방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중 알로펜(Alopen)이 635년 인도를 거쳐 중국 당나라에 들어왔고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무역로를 통해 경교가 신라에 들어왔다고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 고든(E. A. Gordon)과 김양선 목사는 주장하지만 김교수는 이를 ‘낭만적인 하나의 화제’로 보고 있다.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

110) 13세기 중엽 몽고의 징기스칸이 이슬람을 친 것에 대해서 교황 이노첸트 4세는 파리 리옹(Lyons) 회의에서 사절단을 몽고에 파송했는데 두 번째 사절단인 루브룩이 고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압록강까지 왔다가 건너지 못하고 귀국했는데 그의 기행문에 고려는 ‘까울레이’(Caulej, 고려의 중국식 발음)가 호시가 되어 ‘꼬레(Corre)에서 Corea 그리고 Korea로 변천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교수는 중측에서 소현세자의 카톨릭 접촉¹¹²⁾과 유학자들의 서학 접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김교수에 의하면 그 후 이승훈은 1784년 2월 북경 북성당에서 예수회 소속 신부 그라몽(L. de Grammont)으로부터 영세를 받으므로 한국인 최초의 수세자가 된다고 한다. 그는 이승훈이 영세를 받은 그 해는 한국 개신교의 첫 선교사인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의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입국한 1884년에서 정확히 100년 전으로서 개신교보다 한 세기를 앞선 교회로 출발하는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한다.¹¹³⁾

이승훈으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인수한 이벽은 열심히 교리서를 탐독한 끝에 기독교 진리와 접하게 되고 감동을 받아 신앙을 받아들여 이승훈에게 영세를 받는다. 이후 이벽은 그가 발견한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경기도 양근에 사는 권철신과 권일신을 전도하여 개심케 한다. 뿐만 아니라 초기 선교역사에 그 업적을 크게 남긴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를 개심시켰고, 이승훈은 이들에게 영세를 베푼다. 이들은 1785년 봄부터 서울 명동 김범우의 집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리강습도 한다. 이 모임은 정식 성직자는 없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에 천주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이승훈이 주교로, 정약전등 10인을 신부로 정하여 성무(聖務)를 보게 하였다.¹¹⁴⁾

김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천주교회는 시대상으로 보나 기존 문화와의 만남에서

했기에 루브룩은 한국을 세계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김교수는 말한다. Ibid., 17.

111) 카톨릭교회의 수도단 중 하나인 예수회선교회(Society of Jesus)의 창립멤버였던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는 동양선교의 뜻을 품고 인도를 거쳐 일본에 상륙하였다. 그는 당시 일본의 통치자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종교관용 정책에 힘입어 카톨릭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그러나 김교수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휘하의 조선에 온 장수 중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군종신부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라는 스페인 출신의 신부를 1593년 초에 우리 나라에 데려오므로 4천년 조선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성직자였다고 한다. Ibid., 18.

112) 만주 오랑케 여진족 1636년 청(淸)나라를 세우고 그해 말에 당태종이 직접 조선을 침공하여 항복시키고 철수할 때 소현세자를 인질로 잡아갔다. 그곳에서 인질 생활 할 때 카톨릭 선교사들은 소현세자를 조선의 차기 왕으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를 카톨릭 신자로 만들었으나 얼마 후 소현세자가 귀국하자 그에게 서적과 천주교 교리서를 주었으나 귀국후 세자는 열병으로 죽고 만다. 김교수는 소현을 통해 카톨릭 국가가 될 뻔했으나 조선은 다시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한다. Ibid., 21.

113) Ibid., 25.

114) Ibid., 26.

보나 그 정착과 생성과정에서 박해와 고난을 피해 갈 길은 없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보수적, 전통 지향적 인습에 젖어 온 민족은 쉽게 외래문화와 종교를 소화해 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1785년 이승훈이 서울 장례원(지금의 명동) 김범우 집에서 당시 사대부를 위시하여 중인(中人)들인 모인 가운데 강론하던 중 형리들이 보고 이들을 압송하고 천주교 서적과 화상들을 압수하였다. 그 후 김범우로 하여금 배교토록 문초하였으나 끝내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므로 그가 살던 집 근처에 오늘날의 명동성당 자리잡았다고 한다. 김범우의 을사추조적발사건은 한국 천주교회가 앞으로 정부와 어떻게 어려운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극의 전조로서,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수간이 가시밭길을 예시해 주는 불길한 예표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천주교라는 생면부지의 종교가 국내에 자리잡고 있음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성균관의 유생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학으로 여겨지게 되어, 그들은 천주교를 고발하는 선전문을 널리 돌렸다.

이처럼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천주교회는 그 시작부터 모진 비바람에 휘몰리기 시작하여 조정과 사회 일각에서는 처음 보는 사학에 대한 탄핵의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박해의 손길이 거세어지자 초기에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하나씩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이승훈과 정약용같은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두 선각자가 배도의 길을 걷 것은 앞으로 다가올 천주교의 박해를 견디어 나가야 하는 교우들의 신고(신고)를 예고해 주는 불길한 전도라고 김교수는 말한다.¹¹⁵⁾

그러나 모진 수난 속에서도 천주교회는 생존하게 되었다. 천주교회가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로 오인되는 신해교난¹¹⁶⁾과 최초의 성직자 주문모 신부의 입국¹¹⁷⁾과

115) Ibid., 28-29.

116) ‘무군무부’의 종교란 임금도 없고 어비도 없는 종교라는 오해는 1785년 장령 유하원의 상소에 “천주교는 다만 천(天)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아버지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써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의혹케 함이 큰 물이나 무서운 짐승의 해(害)보다 더하다”고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사에 커다란 비극을 몰고 온 원인 중 하나는 이 교회가 조상제사를 금지한 일이었다. 이 문제는 천주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순교자와 배교자를 속출케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의 천주교(카톨릭)는 초기의 순교자들의 정신과는 달리 조상제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순교자들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117) 성직자 없이 10여 년을 지내 온 한국의 천주교회는 신부를 북경주교에게 청원하여 1795년 초 중국인 신부 주문모였다. 주 신부는 숨어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조선의 교도들에게 영세를 베풀고 미사를 집전했다. 그러나 당시 순조이 섭정이 된 정순왕후는

그의 순교 그리고 황사영의 백서사건¹¹⁸⁾같은 계속되는 수난 속에서도 천주교회는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갔다.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물리적 방법으로 박멸하면 그 뿌리가 뽑히리라고 생각했지만, 천주교회는 박해 속에서 잠시 움츠러 들기도 했지만, 결코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자랐으며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더욱 성장해 갔다. 이런 불굴의 신앙은 곧 내외에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조선 교구의 독립이라는 뜻깊은 일을 이루어 냈다.¹¹⁹⁾ 김교수는 한국 천주교의 계속되는 박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조선의 천주교회라는 나무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 왔다. 당시 조선교회는 1명의 주교와 3명의 신부들이 암암리에 신자들을 찾아 심방하고 성사를 거행하고 전도에 힘써 교우들의 사기는 진작되었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변절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등 교회가 활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성장과 활기도 잠깐, 또 다시 박해의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쳐 오기 시작하였다.¹²⁰⁾

그에 따르면 기해교난¹²¹⁾으로 앙베르 주교를 포함해서 모방, 샤스팡 신부 등이 국사범의 죄명으로 그 해 9월 21일에 새남터에서 참수형을 당하였고, 그 다음 날 정하상을 비롯하여 54명이 순교했으며, 60여 명이 옥사하고 배교하고 석방된 자들이 50명이었

시파가 천주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빌미 삼아 시파를 박멸할 목적으로 시파의 모든 대신들을 탄핵 파면하였다. 조정의 이러한 서학 박멸 정책으로 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되었다. 신유년 2월에 권철신, 정약종, 최필공, 홍교만, 홍낙민등이 서소문 밖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이승훈도 이 때 참수형을 당했다. 이 신유교난 때 중국인 신부 주문모도 새남터에서 순교당하였다. Ibid., 35-36.

118) 황사영은 정약종의 형 약현의 사위로서 주문모 신부에게서 영세받은 독실한 신자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토굴 속에 숨어 친구 황심과 더불어 조선 조정의 천주교 핍박을 북경 주교에게 보고하여 박해를 면해보자는 심정으로 폭 62센티미터, 길이 38센티미터의 흰 비단에 붓으로 장장 만삼천자에 이르는 놀라운 양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비단에 쓰여졌기에 ‘백서’(帛書)란 일컫게 되었다. 이 백서가 다 쓰여진 며칠 후에 황사영이 은신처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현장에서 압수된 백서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온 조정과 백성들이 그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고, 조정은 기왕에 해왔던 박해가 정당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19) Ibid., 39.

120) Ibid., 41.

121) 1832년 안동 김씨 세력의 주축이었던 김조순이 죽고, 2년 후에 손조가 죽자 현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순원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풍양 조씨 세력에 의해 천주교도 박멸을 명한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을 1893년 4월에 반포하는데 이것이 기해(己亥)교난의 시작이었다. Ibid.

다고 한다.¹²²⁾ 교리상 성직자 없이는 지탱되기 어려운 천주교회는 조선 천주교 초기 역사에서 신부 없이 지낸 세월이 많았지만, 1845년 8월 17일 교회가 창설된 지 60년 만에 첫 번째 조선인 김대건 신부가 서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10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와 함께 충청도 강경을 통해 밀입국에 성공해 서울과 충청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으나 황해도 등산곶에서 1846년 6월에 체포된다. 서울로 압송된 그 해 7월 새남터에서 최초의 한국인 신부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천주교회를 위해 순교 당한다. 이것이 병오교난이다.¹²³⁾

마서 헌트리(Martha Huntley)는 그의 책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에서 초기 천주교회에 대한 정부의 박해(병인교난)와 순교 후의 교회성장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블뤼이(Daveluy) 신부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자인 망나니가 도끼로 내리 찍은 후에 몹시 아파하는 신부에게 마지막 단 한번으로 고통을 덜어 줄테니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2천명에 달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처형되었다. 선교사들을 처형한 망나니들은 목을 자르면서, “이젠 끝났어”라고 외쳤다 한다. 1866년 한국의 천주교회는 이러한 박해(병인교난)를 받았다. 그러나 1884년 천주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되던 해의 한국에는 319개소의 기독교 마을과 1만 7천 5백 77명의 신자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50년 동안 26명의 불란서 선교사들 가운데 12명이 순교하고, 5명은 다른 방법으로 죽었고, 2명은 추방당했으며, 2명은 자발적으로 파났고, 나머지 5명은 그대로 한국에 남아 있었다. 수 천명에 달하는 한국의 신자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남녀노소로서 전국 각처의 감옥에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또한 한강변에서 참수 당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죽었으나 사형집행인들의 눈에는 불란서 제국주의의 앞잡이같이 보였고, 새로운 사상에 감염된 불순분자같이 보였을 뿐이었다.¹²⁴⁾

김교수는 초기 천주교회의 전래와 그 수용 과정에서의 수난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천주교회가 한국인들의 구도(求道)에 의해 시작되었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력으로 국내에 교회를 세웠다는 점은 ‘세계 포교 사상 하나의 기적’을 이룬 것이라고 평

122) Ibid., 42.

123) Ibid., 43.

124) 마서 헌트리(Martha Huntley),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985), 30-31.

가한다.¹²⁵⁾ 고난과 순교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는 그 교세가 3백 만명을 웃돌아 전체 국민의 7.5퍼센트에 이르며, 여러 면에서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적 위치에 있다.¹²⁶⁾

2. 기독교¹²⁷⁾의 전파

신내리(Alvin Sneller) 선교사는 그의 책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가장 이른 연대는 찰스 쿠틀라프(Charles Gutalaff) 목사가 서해안을 따라 40일 동안 항해하면서 전도하고 신앙 소책자들과 중국 성경들을 배포하였던 1832년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²⁸⁾고 했다. 신내리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선교 이전 시기(1832-1884)와 선교 초기(1884-1910), 일제 치하(1910-1945) 그리고 전후의 발전(1945-1986)의 4시기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는 기독교 전파는 선교 이전 시기와 선교 초기시기에 해당된다.

신내리 선교사에 의하면 런던 선교회 소속 중국파송 선교사 토마스(Robert Thomas) 목사가 1865년 조선에 와서 두 달 반 동안 중국 성경을 서해안에 배포하였고, 다음 해에 다시 왔으나 그가 탄 배를 불태워서 순교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년 뒤 한 세례 지원자가 모페트(Samuel A. Moffett)에게 고백하기를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중국 신약성경 한 권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약 10년 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는 만주에서 만난 조선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인들은 차례차례 그것을 조선에까지 전했다고 한다.¹²⁹⁾

신내리 선교사에 의하면 선교 초기에 미 장로교 선교사인 알렌(Allen)박사는 1884년에 미국 공사의 개인 의사로서 조선에 와서 살게된 첫 기독교 선교사였다고 한다. 알렌은 도착하자 황해도 송천에 이미 신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조선인이 수정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을 일본에서 남부지방에 드려온 것이다.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 Appenzeller),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125) Ibid., 46.

126) Ibid.

127) 얼마 전까지 교회사 책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개신교란 용어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개신교란 용어대신 기독교로 통일해서 사용하므로 본고에서도 기독교로 사용하고 있다.

128) Alvin Sneller,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손성은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13.

129) Ibid., 13-14.

인천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선교 개시의 이 기간 동안(1896-1905), 아주 수완이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 선교사들은 교리상 보수적이었고, 대단히 높은 기독교인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 동일한 기준을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비기독교인조차도 그 사람의 행위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선교사들은 주일 성수와 금주를 강조했고, 불성실, 오락, 성적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중혼에 반대하여 유교 도덕 이상의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¹³⁰⁾

신내리 선교사에 의하면 처음부터 선교사들은 그들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었으며, 구원받은 개종자들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만일 성경을 듣는 자들의 언어로 명백하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매력을 느낄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여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¹³¹⁾

김인수 교수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중 하나는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외지에서 한국인들이 먼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하고, 입국하여 전도하고 교회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²⁾ 그에 의하면 1872년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받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는 만주에 도착하여 토마스 목사의 순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선교에 관심을 가지던 중 약 3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중국 국경지역 고려문(高麗門)을 방문한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되고 간단한 한국말을 익히는데, 여기서 의주 출신 한국인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을 만나 한국어 교사로 초빙한다. 이 곳에서 네 청년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마침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1876년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아, 이들은 최초의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된다. 이때 심한 열병 중인 서상륜도 선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감동을 받아 로스로부터 세례

130) 신내리 선교사가 인용한 왓슨(Watson)에 따르면, 선교초기부터 1930년대까지 선교사들에게는 부덕한 일들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선교사들은 훌륭한 성품, 상식, 진지함, 헌신, 친절함, 그리고 세련됨을 지닌 자들이었다고 한다. Ibid., 14-15.

131) Ibid., 16.

132)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56.

를 받는다. 특별히 1882년 임오군란 후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갈 때에 이수정(李樹庭)은 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함께 가게 되는데,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기독교인이며 일본 농학계의 유명한 학자 쓰다센(津田仙) 박사를 만났는데, 그를 통해 기독교 교리 설명을 듣고 한문성경도 선물로 받은 후 마침내 신앙을 고백하고 미국인 녹수(G. W. Knox)에게서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아 일본에서도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생긴 것이다. 이수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성경번역에 착수하여 처음에 한문성경에 토를 단 소위 '현토성서'(懸吐聖書)라는 이름의 '신약전서 마가전'이 1884년 11월에 출판된다. 그러나 이수정은 이것보다는 본격적으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번역하는데, 이 번역본은 미국 성서공회에 의해 1885년 2월 요코하마에서 1천 부가 발간된다. 이 마가복음은 한국의 첫 성직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내한하면서 갖고 들어왔다.¹³³⁾ 김교수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지에서 입교한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말한다.¹³⁴⁾

3. 일제 시기의 기독교

김인수 교수에 의하면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1910년 이후 일제의 종교정책,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줄기차게 탄압과 박멸을 목적으로 일관되었다고 한다.¹³⁵⁾ 김교수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또오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격살되고 초대 총독으로 한국에 온 데라우치 소기(寺內正毅)는 노골적으로 반(反)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독교 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하고 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적 축제일에 일본 천황의 사진에 절하도록 강요했다. 데라우치는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제를 대항한 교회의 조직적인 항일운동의 정치적인 운동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교회의 신앙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데라우치는 교회야말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않고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억누를 음모를 획책하였다. 그 결과 '105인 사건'이란 허무맹랑한 음모를 꾸며서 가장 기독교 세력이 강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교계 지도자들을 '데

133) Ibid., 55-56.

134) Ibid., 53-54.

135) Ibid., 117.

라우치 총독모살 미수사건'의 용의자들로 지목하여 105명을 유죄 판결하여 투옥시켰으나 세계의 눈이 무서워 거의 석방하였다는 것이다.¹³⁶⁾

신내리 선교사에 의하면 1911년부터 1919년까지 선교 사역자들의 수는 늘어갔으나 수세자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숫적 성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양의 교육과 문서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이다.¹³⁷⁾ 또한 이 기간 동안 관립 학교와 병원들이 아주 신속하게 세워졌는데 1910년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3대 1의 비율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¹³⁸⁾ 그에 의하면 1912년 명성황후(민비) 시해 사건은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회의적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더욱 영향력이 강화되고, 다시 수(數)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1919년 기미 독립 운동에 15명의 기독교 지도자, 15명의 천도교 지도자 그리고 3명의 불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33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독립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그것을 따라 조선전역의 백성들이 일제 치하에 반대하여 무저항적으로 궤기하였다고 한다. 선교사들은 중립적이었고,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투옥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과 비무장 궤기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자행하는 방법들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였다고 한다. 선교사들은 부상자들을 기독교병원에서 돌보아 주었다고 한다.¹³⁹⁾

그리고 신내리 선교사에 의하면 1929년부터 1924년 사이에 한국 교회는 성장 운동이 이었다고 한다.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전진운동(the forward movement)이라 불렀고 이 복음 전도 운동은 점점 복음 전도, 가정 제단, 부흥, 십일조, 봉사, 그리고 교회 시설의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기독교 가정 그리고 개교회 구성원들을 갱신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¹⁴⁰⁾

김수진 목사는 한국기독교의 발자취에서 한국교회의 저항과 민족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136) Ibid., 119-120.

137) 신내리,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19.

138) Ibid.

139) Ibid.

140) Ibid., 20.

한국에서의 애국운동은 기독교를 접하면서부터 출발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차차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각 지방마다 교회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유교 문화권의 지배하에서 집단주의, 권위주의, 신분차별, 남녀차별주의 등이 사상들은 기독교를 접하면서부터 성경의 만민 평등주의를 알게 되었다. 이들은 예배시간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서 공과공부 시간에 성경을 배우게 됨으로 과거 유교의 모든 권위적인 전통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미션 스쿨의 설립으로 근대 신교육을 접하면서 많은 학생들은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자주, 자립정신에 입각한 애국심이 스스로 형성되었다. 특별히 교회와 미션 스쿨을 통해서 애국하는 일과 새로운 국가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미션 스쿨이 아닌 민족계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¹⁴¹⁾

4. 신사 참배에 따른 교단의 분열

아시아 제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을 그 전초기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일제는 한국민을 철저하게 황국식민화(皇國臣民化)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착안한 것이 바로 옛날의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神社)에 참배하게 하는 신사참배(神社參拜)였다. 이것을 전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일치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표를 삼아, 한민족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일본화 하려는 정책을 만든 것이다.¹⁴²⁾ 물론 이 정책이 굳이 교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무섭게 피해를 당한 것은 교회였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인수 교수에 의하면 일제는 먼저 통제가 손쉬운 학교부터 신사참배의 공략을 시작하여 종교계에도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군소 교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장 크고 강한 교단인 장로교를 쓰러뜨리는 작전을 세웠다고 한다.¹⁴³⁾ 기독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할 것을 예견한 일제는 교활하게도 이 문제

141) 김수진, 한국기독교의 발자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93-93. 김수진 목사는 1905년부터 전국 각지에 10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불어넣은 기쁜교 신자 이동휘와 1907년 귀국 후 평양의 대성학교를 세운 기독교 지도자 안창호 그리고 안창호의 영향을 받아 오산학당, 가명학교, 신흥학교를 세운 기독교 신자 이승훈을 들고 있다.

142) Ibid., 166.

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의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국민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로 수행하는 종교성 없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일제가 각급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기독교 학교를 굴복시키려는 음모였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들 학교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 식민지 교육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¹⁴⁴⁾

일제는 1937년 7월 신사참배를 교회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지에 신사를 건립하고 매달 6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국기게양, 국가봉창, 조서봉독,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마지막 남은 보루인 교회를 공략하기 위하여 “전 조선에 50만에 달하는 예수교 신자들은 시국에 대하여 대단히 냉담한 태도를 가졌고, 신사참배를 국가적 행사가 아닌 기독교 계명에 위반되는 일로 보며,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는 설명하니 불경죄에 해당되므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포하고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 모든 기독교인은 우상숭배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생명을 걸고 투쟁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이 신사참배를 수용했고, 이어 1936년에 안식교가 가결한 후 성결교회, 구세군, 성공회 심지어 감리교회까지도 1936년 6월 제3차 연회에서 당시 총리사 양주삼 목사가 신사참배를 동조했다.¹⁴⁵⁾

5. 장로교단의 분열

1938년 9월의 장로교 총회 때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사참배를 결의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일제는 우선 각지에서 모이는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공작을 수행했다. 그래서 9월 총회까지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굴복하였다. 그리고 1938년 9월 총회에서 일제의 각본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므로 우리 총회도 신사참배하기를 결정함이 가하다는 안을 총회장 홍택기는 수백 경찰들의 위함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에 찬성을 물으니 두어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이 벌떡 일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놀란 총회장은 부(否)를 묻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¹⁴⁶⁾

143) Ibid., 167.

144) Ibid.

145) Ibid., 169.

반면에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반대투쟁의 대표적 인물이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순교자이다. 1921년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926년 30세에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에 청빙받아 목회를 시작했다. 그후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평양의 산정현교회로 1936년에 부임했고, 1938년 2월에 일제는 주 목사를 검거했다. 그해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하지 일시 석방했으나 1939년 7월 유재기 목사의 농우회 사건에 연루시켜 7개월 동안 구속 후 혐의가 없어 풀어주었다. 그러나 “5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설교 후 다시 구속되어 5년 몇 개월의 옥중생활로 안질과 폐와 심장의 병을 얻어 병감으로 옮겼으나 1944년 4월 21일 47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¹⁴⁷⁾ 이런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김인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우상 앞에 고개 숙인 한국교회를 짓누르고, 우상 앞에 머리를 곧게 쳐들고 우뚝 선 우리 교회의 다니엘이요, 신앙의 사표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을 횃불로서 타고 있는 것이다. 해방을 불과 1년 서너 달 남겨 두고 떠나간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의 선배이다.¹⁴⁸⁾

1938년 총회 이후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던 평양 장로회신학교는 신사참배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무기 휴교에 들어갔다. 신사참배로 인해 보수적인 목사들이 투옥된 상태에서 신학교 재건은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발기했다. 1939년 3월 조선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자 1940년 서울 승동교회에 강습소 인가로 시작했다. 이 신학교 교수 김재준 목사는 선교사들의 신학적 사상을 한국교회의 주체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주창했다. 이렇게 출발한 조선신학교는 결국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후에 기독교 장로회로 갈라져 나가 새로운 교단을 형성함으로써 장로교회가 갈리는 쓰라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¹⁴⁹⁾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더 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출옥 성도들의 교회 재건운동 과정에서 출옥성도와 신사참배파와의 갈등으로 이기선 목

146) Ibid., 170.

147) Ibid., 172-173.

148) Ibid., 173.

149) Ibid., 181.

사를 중심으로 1949년 ‘재건파’ 교회가 생겼다. 해방 후 북한에는 공산당은 기독교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공산당 어용 기독교 단체인 ‘조선기독교도연맹’을 조직했다. 그리고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와 감리교의 성화신학교를 ‘기독교신학교’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 어용 기독교신학교도 6.25와 더불어 완전히 와해되어 소멸되었다.¹⁵⁰⁾

한편 출옥성도가 북한에 비해 훨씬 적었던 남한교회의 재건은 자연히 친일 인사들, 즉 교단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46년 9월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대표들이 모여 조선기독교연합회를 창설했으니 오늘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KNCC의 모체가 되었다. 장로교회의 재건 운동은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1945년 9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 친일인사들은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과거의 모든 죄악을 통회 자복하였으며, 정통 신학에 의한 교회재건을 결의하였다.¹⁵¹⁾ 1946년 6월 12일 승동교회에서 열린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나, 거기에 진실된 참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그 후 1950년대는 분열의 비극이 연속된 시기였다. 6.25의 비극은 민족과 강토의 나뉠뿐 아니라 교회의 분열도 남겼다. 특히 장로교회가 1950년대에 세 번씩이나 나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1951년에 고려파가, 1953년에 기독교장로회가 갈려 나가더니 1959년에는 소위 통합과 합동이라는 두 개의 교단으로 나뉘었다. 불과 10년도 안되는 기간에 반세기 이상을 하나로 내려오던 교회가 세 번씩이나 분열된 것이다.¹⁵²⁾

또한 교회의 분열은 항상 신학교의 분열과 궤를 같이한다. 1959년 장로회 제 44차 총회에서 미화 3,000만 환 유용사건의 책임에 대해 당시 박형룡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에큐메니칼운동 지지측과 박교장을 지지하는 복음주의협회(NA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측은 각각 자파 세력확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노회 정기회 총대투표 결과 NAE측의 승리했으나 재검표 결과 문제가 있어서 임시노회를 열어 재투표하니 공교롭게도 NAE측에서는 목사와 장로 각각 1인

150) 1972년 남북적십자 회담 기자단의 일원이었던 한국일보 사회부장 김창열은 북한의 실정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교회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에 종교는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종교, 유일사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Ibid., 191.

151) Ibid., 195.

152) Ibid., 219.

밖에 당선이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에큐메니칼측이 당선되었다. 이것이 총회에서 문제가 되어 투표로 결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증경총회장들이 경기노회 총대 재선거 결정에 대해 에큐메니칼측 총대들이 서울 연동교회에서 속개하여 총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의 연동측(지금의 통합)과 NAE의 승동측(지금의 합동)으로 분열되었다.¹⁵³⁾ 그리고 1960년 연동측과 결별한 승동측은 10년 전에 갈라져 나간 고신파와 합동하자는 소리가 높았으나 신학교의 위치 문제로 합치지 못했다. 다시 합동측은 1970년대 후반에 주류의 이영수 파와 비주류의 반이영수 파로 나뉘어 세력다툼이 있는 후 서울 방배동의 총회신학교가 생겼다. 그 이후 사당동 총회신학교는 1980년대 무원칙한 신학생 입학 문제로 이사회와 교수회의 갈등이 비화되어 박윤선 박사를 중심한 합동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¹⁵⁴⁾ 물론 이런 교단과 총회 그리고 신학교의 분립과 분열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6. 순복음 교단의 등장과 성장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부터 오늘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5명의 신자가 서울 어느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현재 그 교회는 한국과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이다. 1961년 그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땅을 사서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첫 건물을 세웠다. 1964년에는 18,000명에 달하게 되자, 회중은 서울 여의도의 새 건물로 옮겨갔다. 1977년 성도가 4만 5천명에 달했고, 1979년에는 8만, 1987년에는 53만명이나 되었다. 1964년까지 조 목사가 전체 리더십과 신자 관리를 책임졌으나,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진 뒤, 그는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평신도 리더십과 구역 모임을 구상한다. 그때부터 조 목사는 매주 구역 인도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노력을 집중해 왔다. 그 인도자들이 그것으로 회중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한 양육적 관심을 기울였다.¹⁵⁵⁾

구역모임은 5-10가정으로 구성된다. 한 구역이 성인 20명이 되면 그것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인 허스톤(John Hurston) 목사는 거의

153) Ibid., 222-223.

154) Ibid., 227.

155) 신내리, 한국교회성장의 비결, 36-37.

초창기부터 이 교회와 함께 사역해 왔는데, 그 사역을 설명하는 거미줄에 걸리다 (Caught in the Web)에서 그 구역 단위 체제의 목표는 그 구성원임을 설명한다. 모든 수준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 위 수준의 리더십은 아래 조직을 지원한다. 그 구성원은 자기의 구역 인도자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있으며, 아래 인도자는 위 인도자의 책임이다. 모든 인도자는 조 목사의 책임 하에 있어 그에게 임명받고 모든 최종 결정은 그가 한다. 금요일밤의 이런 구역 모임이 현재(1987년) 5만개나 있다. 세부적인 서면 보고서가 모든 구성원, 그리고 모든 수준의 회합들에 대해 작성되어진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십일조,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을 포함하는 모든 헌금들의 보고서들이 작성되어 있다.¹⁵⁶⁾

7. 대학생 선교회의 등장과 영향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 경이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경제가 부흥되고 대형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군사 정권과 사회적 혼란기를 틈타고 나타난 많은 이단운동 그리고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적 혼란이 공존했지만, 한 편으로는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첫째는 전국 복음화 운동이다. 이는 한국에 복음을 들고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100주년이 되는 1966년을 “복음화 운동의 해”로 정하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전국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실행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국인 부흥사 조세광 박사의 순회집회와 서울운동장 집회 그리고 개교회별 특별집회, 개인전도 등을 통해 전국교회가 교리싸움을 버리고 하나되어 이 강산에 복음을 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¹⁵⁷⁾

둘째는 빌리 그래함 전도운동이다.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 아래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에서 그래함 목사를 주강사로 초교파적인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연인원 334만 명이 모였고, 성가대 동원만 연 4만 2천명이었고 아주 질서정연한 집회가 되었다고 한다.¹⁵⁸⁾

156) Ibid., 37-38.

157) 이영현, 한국 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78), 376-381.

158) 복음의 대향연 (서울: 기독교서회, 1973), 47-55.

셋째는 엑스포로 74전도대회이다.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국제 대학생 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의 후원으로 “예수 혁명, 성령 폭발”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열린 집회로서 매일 밤 60-70만 명이 철야를 했던 성령충만한 집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연인원 650만명과 결신자는 국내 27만명, 외국인 1192년이고 교역자들은 15920명이고 동원된 성가대는 연인원이 9만 명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각 교회의 부흥운동의 초석이 되었고 세계에 한국인의 신앙이 강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¹⁵⁹⁾

넷째는 1977년 민족복음화 운동이다. 1977년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에서 이전에 많은 집회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을 반성하고 양육된 부흥 사들을 중심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인에 의해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원 733만 명, 결신자 7만 명을 내는 역사가 있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민족의 회개 운동으로 4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민족적 회개운동이었다.¹⁶⁰⁾

다섯째는 80 세계 복음화 운동이다.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란 주제와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라는 표어로 연인원 1700만 명이 모였고, 70만 명의 결신자, 10만의 세계 선교사 지망자를 얻었다.¹⁶¹⁾

마지막으로 88세계 복음화대회이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영적인 성화로 점화교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는 표어아래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대회로서 향후 1990년대를 바라보고 민족복음화 전국민의 80퍼센트 이상 신자화를 목표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대회이다.¹⁶²⁾

박용규 교수는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에서 1970년대 한국 교회 복음주의 발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초교파 선교단체들이라고 평가한다.¹⁶³⁾ 선교단체 중에서도 1950년대 NAE와 더불어 한국에 들어와 활동했던 IVF(한국 기독교 학생회)¹⁶⁴⁾, 김준곤 목사가 1958년 미국에서 CCC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시작

159) 김진환, “모범적인 부흥회상”, 월간목회, 1978년 5월호, 260-262.

160) 교회연합신문, 1977년 8월 7일.

161) 김준곤, 나는 찾았네 (서울: 한국대학생 선교회, 1980), 12.

162) 88 세계 복음화 대성회 회보, 1988년 8월 1일자.

163)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116.

한 CCC(대학생선교회), 서양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네비게이토선교회¹⁶⁵⁾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 단체들이다. 박교수는 CCC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있다.

그 중에서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저변 확대에 가장 기여한 초교파 선교단체는 1958년 8월 김준곤 목사에 의해 시작된 CCC이다. 한국 CCC는 1967년 10월 16일 대전 회관에서 있었던 제1차 지구 학생회장회의를 통해 전국의 CCC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1960년대 '오늘의 학원 복음화, 내일의 세계 복음화'를 모토로 힘을 결집한 후 1970년대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곧 이어 1971년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 강습회가 연 인원 42,151명이 참석해 전국적인 호응을 받자, 이를 계기로 전국에 대규모 전도 요원 강습회 붐이 조성되어 민족 복음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1972년 7월의 성시화 운동과 1974년 8월의 세계 기독교 대회(Explo '74) 그리고 1980년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마지막으로 엑스플로 '85의 성공은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전국에 복음주의 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¹⁶⁶⁾

그 후 1980년대 들어 한국 CCC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11개 지역 학생 운동과 복음화를 선도하는 선교 단체로 발돋움한 했다. 한국 CCC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구령에 대한 열정, 민족 복음화 비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젊은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심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들의 탈교회적 모습들(자체 예배와 자체 헌금 등)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오해와 마찰의 소지를 만들었다.¹⁶⁷⁾ 그러나 최근에는 교회와 선교단체들(parachurch) 사이에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 회복되고 있음을 기쁜 일이다.

박교수는 이들 선교단체들이 한국 복음주의 운동에 기여한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대학생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한 선교 단체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동료 젊은이들에게 증거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164) 한국기독학생회는 복음주의적 이상을 젊은 대학생들에게 심어 주었다.

165) 네비게이토선교회는 수많은 교재들을 편찬하고 단계별, 개인별에 따른 성경공부를 통해 한국 젊은이들에게 제자훈련의 이상과 복음주의 정신을 이식시켜 복음주의 운동의 확산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166) Ibid., 117-118.

167) 본 연구자가 알기로는 탈교회 내지 반교회적 이미지(주일성수와 헌금문제)로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게 했던 선교단체들로는 CCC와 UBF 그리고 네비게이토등이고 JOY와 IVF는 교회 사역을 우선순위로 했다고 본다. 요즘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과 교회가 상호 동역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몇몇 선교단체는 교회와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 일깨워 주었다. 둘째, 선교 단체는 한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에 있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셋째,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 단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고, 그들을 주의 말씀과 교재로 양육하고, 바로 세워 캠퍼스와 삶의 현장으로 나가 역동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넷째, 선교단체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주의 신앙을 심어 주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선교단체는 제자 훈련의 비전을 한국 교회에 이식시켜 주었다.¹⁶⁸⁾

8. 100주년 이후의 교회 성장의 둔화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의 입국이였다. 따라서 한국교회 선교의 시점을 이 해로 잡으면 선교 100주년은 1984년이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연인원 350만이 동원되고, 4천명이 헌혈운동에 참여한 한국 기독교 전교단이 참여한 행사였다. 그리고 1985년 10월 순교자 기념예배와 기념대회를 가졌다.¹⁶⁹⁾ 그러나 과연 100주년을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남겼는가 돌이켜보면 요란한 소리는 많았지만, 알찬 수확은 별로 없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선교 1세기가 지난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정체라는 암초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둔화되고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교인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41.2퍼센트에 달했으나 1970년대에서 1980년 사이에는 12.5퍼센트로 감소했고,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연평균 감소율이 4.4퍼센트로 더 감소했다. 1993년 기독교 대연감(기독교 문사)에 의하면 1990년에 개신교 신자수는 11,427,485명으로 연평균 10.8퍼센트 성장하였으나 1991년에는 12,091,837명으로 연평균 5.8퍼센트, 1992년에는 12,571,062명으로 연평균 4.0퍼센트로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10월 11일자 기독신문에 의하면 2000년 가을 총회를 마친 주요 교단 교세를 분석한 결과 예상 대신 교단의 경우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나머지 교단들은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소폭에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교세가 성장했다고 하는

168) Ibid., 119-123.

169) Ibid., 257.

교회들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심을 통한 성장이 아닌 기존교인들의 수평이동에 의한 성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대체적으로 목회자와 교회수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교인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초기 한국 교회 성장

1.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역사

네비우스 정책이란 장로교 선교를 위한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주한 선교사들이 1890년 중국 산둥성 지역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 존 네비우스(John Nevius 1829-1893) 초청 선교정책 세미나에서 소개한 선교 정책을 1893년에 조직된 선교사 공의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한국의 선교정책으로 채택한 것을 말한다.¹⁷⁰⁾

전호진 교수는 네비우스의 고유 원리란 글에서 한국에서 네비우스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한 장로교 선교사는 알렌 박사였다. 그는 뒤 이어 오는 선교사들이 은둔의 나라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선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량적인 임무를 띠고 있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H. G. 언더우드와 H. G. 아펜젤러가 한국에 도착했다. 뒤를 이러 곧 그들의 선교일에 가담할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온 것은 단지 불굴의 의지와 전도사업을 할 모든 힘만 가지고 있었을 뿐 조직적인 훈련은 결핍되어 있었다.¹⁷¹⁾

전교수에 의하면 1890년 6월 네비우스 박사의 두 주간의 서울 방문은 한국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 벤(Henry Venn)이 서아프리카 교회에, 앤더슨(Rufus Anderson)이 하와이 교회에 각각 공헌한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가 네비우스의 덕택을 크게 입었다고 한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네비우스의 저서 중에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선교교회의 개척과 발전, 1885)이었다고 한다.¹⁷²⁾

170)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110-111.

171) 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엠마오, 1985), 157.

172) Ibid., 159.

네비우스 방법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원주민 교회들의 독립을 강조했다. 이 새 방법은 중국에서의 종래의 방법의 실패로부터 나온 것이다. 종래의 방법은 고용된 원주민 대리인에 크게 의존하였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고용 원주민 대리인을 고용했다. 그리고 원주민 기독교인들의 환경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개인 시간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막았다. 그래서 네비우스는 “중국은 결국에는 중국인 자신들에 의해 복음화되어야 한다”(173)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교수에 의하면 네비우스는 6가지 점에서 종래의 선교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첫째, 새로운 개종자들의 고용 대리인을 만든다는 것은 그들이 관련하고 있는 선교지부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즉 고용대리인이 자리를 옮기거나 해고되는 경우 선교사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진다. 둘째, 새로운 개종자 고용 대리인을 만든다는 것은 종종 개인적으로 그에게 해가 된다. 일종의 직업 감각을 자극하여 때때로 자만하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며, 이웃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 셋째, 이 체제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판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채용되지 않았을 때 신앙적으로 퇴보한다. 넷째, 이 체제는 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여 보수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의 수를 증가시킨다. 다섯째, 이것은 자발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울이는 노력을 중단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기독교인 자신들 그리고 비기독교 단체들이 보는 앞에서 전체 선교 사업을 비화시킨다. 즉 이들의 고용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인식이 비취진다.(174)

클라크(Charles Allen Clark)는 Plantin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선교교회의 개척과 발전, 1885)에 소개된 네비우스의 새로운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넓게 순회하는 개인 복음 전도. 둘째, 모든 부분의 일에 성경 중심으로. 셋째, 자기 증식: 모든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의 교사이고 또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가 되는 것. 넷째, 자치: 선택된 무보수 지도자들 아래의 모든 집단과 그들이 고용한 협력자(Helper) 관할하의 순회 교구, 이들은 모두 목사들의 명령에

173) Ibid., 160.

174) Ibid., 161-162.

복종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 신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교회와 그룹은 설립하자마자 순회교구 협력자의 급료를 지급하기 시작, 지원 받는 학교도 일단 설립되면 부분적인 보조, 단독 교회의 어떤 목사도 외국 원조에 의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그룹 지도자와 순회 협력자 밑에서의 모든 신자를 위한 체계적인 성경공부. 일곱째 성경법에 의해 강화된 엄격한 규율. 여덟 번째 다른 지체들과의 협동 연합, 아니면 초소한의 지역 분파. 아홉 번째, 소송 혹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불간섭. 열번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의 문제를 받을 만한 지역에서의 관대한 도움이다.¹⁷⁵⁾

클라크는 이 열 가지는 크게 자력전도(self propagation), 자치제도(self government) 그리고 자급운영(self support)로 요약했다.¹⁷⁶⁾ 이 정책의 중심 이념은 피선교지 교회가 외국인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능력있고 건강한 교회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¹⁷⁷⁾ 그리고 네비우스의 방법의 핵심은 크게 성경반 제도 실행의 결과로 자립과 자치 그리고 자기 증식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10대 정책에서 두 번째와 여섯 번째에 사역의 모든 분야에 성경이 중심이며 조직적인 성경공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방법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 7:20)는 말씀에 근거한다. 그의 강조점은 새로운 고용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자립)이며, 또한 그들을 이전의 소명에서 지내도록 놓아두는 것(자치) 그리고 자기 증식에 있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 출발에서부터 적어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왔다고 한다. 자기 증식의 방법도 선교사들의 심방, 시장 전도, 사랑방 운동, 주막 전도, 팜플렛 배부, 신앙 부흥 전도집회, 성경 공부반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자립과 자기 증식 그리고 자치의 성공에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의 사역에서 성경 공부를 통한 양육 소그룹 즉 구역모임과 각종 성경 공부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2. 개(個)교회 운동이 한국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175) Ibid., 163.

176) Ibid., 165-170에서 재인용.

177) 임주영, 한국교회 성장운동에 대한 총체적 점검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21.

한국교회는 그 동안 매우 수용적인 종교문화 요인과 1960년대 이후 크게 확산되었던 부흥운동, 성령운동, 신유운동, 교회 프로그램의 개발(성경연구, 각종 기도모임, 친교활동) 등의 교회적 요인과 정치부재의 상황과 반공, 안보, 성장 이데올로기, 인권 탄압, 정치 억압 등의 정치 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¹⁷⁸⁾

한국의 개교회주의는 교회성장이라는 교회의 대명제로 인하여 교단주의와 교파주의의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개교회주의로 인하여 한국에는 대형교회가 유난히 많으나 이제는 대형교회도 서서히 성장이 느려지는 추세이다. 칼 조지(Carl F. George)는 북미와 한국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문화적 차이를 들고 있다.¹⁷⁹⁾

경쟁과 분리의 세계관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개교회는 강하지만 교단이나 다른 연합기구는 왜소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교회 모습은 한국교회가 아직도 제2물결 끝자락에서 경쟁과 분리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증거이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혹은 교회 개인주의는 종교적 폐쇄주의에 기인한다. 교회 본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수양관을 건축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구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종교적 폐쇄주의로 말미암은 개교회주의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교회가 사회봉사 혹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음을 좋은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교회가 경쟁과 분열 가운데서 교회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새로운 물결운동은 조만 간에 한국사회의 변동과 미래형 특성인 일회성의

178)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 신학, 1993년 5월호, 41-44.

179) Carl F.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Fleming H. Revel, 1994), 218.

발달로 제3의 물결 증후군과 일치하여 개교회주의를 퇴조시키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할 것으로 본다. 특별히 목회자 자신이 개교회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기독교언론매체의 통계 결과 응답자의 32.4퍼센트가 목회자의 개교회 중심주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 보다 교호연합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3. 개(個)교회 운동의 위험

자기만 잘되면 된다는 폐쇄적인 교회관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다. 대화와 협력 나아가서는 신앙적 기구적 일치운동이 무르익은 세계 교회와 달리 우리 나라는 개교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교단과 교단 사이는 물론이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으며, 이런 현실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개교회의 분열, 교인 쟁탈전, 사이비 신학교와 목사의 범람, 교회 경쟁, 교회 밀집 현상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 폐단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초기 선교정책이었던 네비우스의 방법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핵심인 성경공부와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은 한 편으로는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바람직한 내적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되어,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한국교회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근대 한국사회와 교회성장

1. 근대한국사회의 도시화 문제

제 2차 대전 이후로 기술(technology)의 발달에 따라 물질생산의 영역은 물론이고 사회구조,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지대한 변동을 가져왔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사회를 '산업시대'에서 이른바 '정보, 통신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소위 선진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벗어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탈바꿈하여 첨단과학, 첨단기술이 생활전반을 지배한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요즘은 글로벌(global)시대로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었으며,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어있다.¹⁸⁰⁾ 이런 세

계획의 흐름에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이미 한국사회는 근대 사회로 진입했으며,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우선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1960년도까지 한국의 산업은 농림, 어업이 전 GNP의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생산구조를 보였으나, 1972년에 들어와 광공업의 생산이 GNP의 무려 53.5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 와서는 경공업이 39.8퍼센트로 감소했으나 중화학공업은 60.6퍼센트로 급증했다. 이같은 생산구조의 변동은 결국 노동집약적 생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했고 또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동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결과적으로 거대도시화(megalopolis)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이지만, 이같은 사회현상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그에 따른 허다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¹⁸¹⁾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핵가족화

산업화, 도시화과정을 겪으면서 가족형태가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 되고, 한 가구의 구성원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1세기 위원회의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에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70년 1세대 가족이 전체의 6.8 퍼센트이던 것이 1989년에는 22.1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가구 구성원 수는 1960년 평균 가구당 5.7명이던 것이 1990년 3.8명으로 줄었고, 2001년에는 다시 3.1명으로 감소하리라 보았다.¹⁸²⁾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가계계승의 가치관, 가족구성원의 역할분담, 가부장적 위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에서 사회생활에 미치는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핵가족화 현상, 소인가족의 증가, 낮은 출산율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은 여성의 여가시간을 크게 늘려 놓았다. 여기에 가사의 기계화는 여성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여성의 자립화, 여성의 사회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모든 현상들은 미래사회에서 여성들이 큰 변화의 요인으로 등

180) 김병서, 한국 교회와 사회(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교회 발전) (서울: 나단출판사, 1989), 404.

181) Ibid., 341.

182) 21세기 위원회,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194.

장할 것을 암시해 준다. 이는 15세 이상의 여성 인구의 취업율이 1965년 34.5 퍼센트에서 1989년 45.8 퍼센트로 높아졌고, 기혼자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¹⁸³⁾ 도시화가 주는 가족적 병리현상은 가정 파괴, 가정 결손, 사별, 이혼, 가출, 그리고 생활 기능의 장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 열악한 삶의 질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도시 하층에는 임시직, 일당직, 가내노동, 육체노동의 상대적 과잉인구로 인해 실업상태가 장기화되어 의, 식, 주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런 열악한 삶의 질은 건강이나 체력의 손상이란 생리적 상태에만이 아니라 정신적 퇴폐로 이어져 몸과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살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슬럼(slum)이 형성되어 범죄, 폭력, 매춘, 질병 등 가족 사회병리적 현상을 가져왔다.¹⁸⁴⁾

다. 전통, 도덕의 붕괴

도시화 현상으로 일어난 문제 중 하나는 도시의 병리현상이다.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pathology)은 무엇인가?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구조로서는 유교의 실천윤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족주의 중심의 사회였다. 그러나 도시화 현상으로 풍부한 정서 속에서 삶의 멋을 찾는 가족의 삶의 균형이 깨어져서 빈민가, 우범지대, 공해, 사고, 환락가, 저속적이고 퇴폐적 윤리의 성행 등과 같은 가치관의 혼잡과 행동규범의 무질서(anomie) 현상이 나타났다.¹⁸⁵⁾

이런 도시화 현상 속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현상은 도시의 세속화이다. 이는 도시의 바벨론화라고 볼 수 있다(계 14:6-8; 18:1-24). 세속화되는 도시화의 현상은 주로 실용주의, 공리주의 인간정체성의 상실, 물질만능주의, 무관심, 무모한 경쟁, 신경적 긴장의 고조, 도시의 고독 등이다.¹⁸⁶⁾ 그리고 이런 세속화 현상 속에서 제기되는 목회 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인본주의 곧 바벨탑 사건이 교회 내에 팽배

183) Ibid., 195.

184) 최호준, 도시빈민의 현황과 그 문제(민중과 함께 하는 한국교회)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회부, 1983), 24-25.

185) 김병서, 한국사회의 문화와 사회 현상, 50.

186) Ibid., 83.

되는 현상(창 3:5; 11:4)이다. 둘째, 기복주의 곧 물질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오는 불경한 현상(마 6:19-34)이다. 셋째, 찰나주의 곧 보이는 것에 우선함으로 보이는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성경적 종말신앙에 대한 오해(고후 4:16-5:7; 히 11:10,16)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주의 곧 참된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린 영적 무감각증(시 50:22; 고후 5:8-10; 계 20:11)이다.¹⁸⁷⁾ 그러나 이런 도시화가 가져온 세속화 현상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것이다. 위기는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병리현상이지만, 동시에 기회는 이 시대 도전 앞에 크나큰 선교적 과제라는 것이다. 교회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요 중재자들이기 때문이다(고후 5:21; 뵤전 2:8). 우리는 그린웨이(Greenway)의 “도시의 회개와 변화의 정도는 교회가 선포한 복음 폭만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¹⁸⁸⁾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 신사고의 등장

한국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21세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¹⁸⁹⁾ 첫째, 한국의 경제권과 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환경변화 요인은 통신과 대중매체의 발달, 무역 장벽과 외환규제의 완화,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기업의 사업형태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정보혁명, 북한 체제의 붕괴, 정부규제의 완화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 등이라고 한다. 둘째,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정보혁명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화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국토 선진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 및 업무도시 등이 건설될 것이다. 넷째, 농업이 다원화되고 농촌은 전원생활 공간이 될 것이다. 식생활 양식의 변화, 환경문제, 소득수준의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농촌의 모습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다섯째, 일과 여가의 균형 속에 삶의 질이 추구될 것이다. 한국 사회도 점차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욕구와 자기 실현과 개성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 Ibid., 86-87.

188) Greenway, *Calling our Cities to Christ*, 8.

189) 한혜성, 21세기 도시사회에서 한국교회의 변화전방에 따른 사회성장의 전략적 방향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1998), 45.

핵가족 및 여성의 참여가 넓어진 사회가 될 것이다.¹⁹⁰⁾

2. 도시화의 도전이 주는 교회개혁 필요성

이 같은 도시화가 주는 도전은 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첫째, 교회의 잘못된 직제와 소수독재주의(oligarchy) 그리고 계층성(hierarchy) 현상(막 9:33-37). 둘째, 만남과 대화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갈등으로 인한 이질화 현상(엡 4:1-16). 셋째, 동질그룹이 모여서 제기되는 교회의 기능과 역기능화 현상(고후 6:11-13). 넷째, '찾음'에서 추수된 하나님의 교회가 빈부의 격차나 교회의 상업성 때문에 도리어 '잃음'으로 치달는 악순환 현상(눅 19:10; 막 11:15-19). 그리고 마지막으로 잦은 이동성 때문에 전통적 교회 사랑이 퇴색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상(딤후 3:1-5)이 생긴 것이다.¹⁹¹⁾ 그러므로 이런 도시현상에 맞서서 먼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도시의 제반 문제들은 치유될 것이다. 교회가 먼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갈 때 도시화의 문제는 치료되고 해결될 것이다.

190) Ibid., 46.

191) 김신국, 도시화 현상과 목회,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76.

제 5 장

창훈대교회의 성장 역사

이 장에서는 창훈대교회의 교회성장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창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성장 과정을 개진하고자 한다.

제 1 절 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수원의 역사 이해

2000년에 수원시에서 발간한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의 역사를 선사시대, 삼한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로 구분한다.¹⁹²⁾ 선사시대란 역사시대 이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상 국가 발생 이전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 지역에서도 구석기인들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가정하고 수원의 파장동과 옛 수원지역인 대야미동에서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흔적은 발견되며, 수원지역과 가까운 곳으로는 경기도 양주군,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궁뜰), 실촌면 삼리등이나 아직까지는 수원지역에서는 분명한 구석기 유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살았던 구석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유적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¹⁹³⁾ 수원지역에 남겨진 본격적인 사람들의 발자취는 청동기 시대부터였다. 수원의 서남쪽 권선구 일대에서 반월형 석도와 무문토기편, 돌보습과 갈돌등 농경 및 주거 생활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¹⁹⁴⁾

192)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수원: 경기출판사, 2000), 51.

193) Ibid., 53.

194) Ibid. 특히 교동의 팔달산 남쪽 구룡사면에서 발견된 지석묘는 청동만 아니라 백제시대에

이 청동기 주거지 유적은 출토 토기로 부아 한강 하류지역의 청동기 문화권과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철기 시대의 집터와 집터 주변에서 수습된 토기의 밑바닥에 벼씨 자국이 발견되고 진흙에 벼집이 있는 것을 보면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시대에 걸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⁵⁾

청동기시대 이후는 청동기 및 철기의 사용은 생산활동을 증대시켜 생산력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사회는 크게 진보하였다고 한다.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 내부에 빈부와 권력의 차이가 조장되어 혈연중심의 씨족사회를 붕괴시켰으며, 계급사회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철기시대 이후 한반도 중남부 일대에는 수많은 소국이 성립되어 결국 삼한이 구성된다.¹⁹⁶⁾

수원 지역에서 대량 발견된 백제계 타날문 토기의 고금산 유적은 백제시대의 수원의 역사상을 추정하는데 귀한 자료이다.¹⁹⁷⁾ 삼국 말에는 대 중국 교통의 통로였던 당항성이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군에 의해 누차 공격을 받는데 당항성은 옛 수원의 일부였던 지금의 화성군일대라고 한다.¹⁹⁸⁾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수원지역은 경덕왕 때 수성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군의 위치를 유지하였다.¹⁹⁹⁾ 통일신라시대에 수성군으로 불렸던 수원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940년(태조 23)에 전국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개편에서 수주(水州)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이후 수원 지역은 1018년(현종 9)에 지방 관제의 정비를 통해 지방관이 부임하는 지주사(知州事)로 복구되었으며 수주는 10개의 속현(屬縣)을 거느리는 대읍이 되었다고 한다.²⁰⁰⁾ 또한 수원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경기도에 속하지 않고 양광도에 속하였다고 한다.²⁰¹⁾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 2년 후에 지방의 중심이 되는 25개의 대읍을 계수관으로 정하였는데 수원도 계수관으로 선정되었다. 1394년(태조 3) 한양 천도 다음 해에 양광도에 속한 수원부를 경기좌도에 내속시켜 수원은 경기도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수원은 조선이 건국된 후 40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정조의 부

까지 지속되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한다.

195) Ibid., 54.

196) Ibid., 55.

197) Ibid., 56.

198) Ibid., 57.

199) Ibid., 58.

200) Ibid., 59.

201) Ibid., 60.

친인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이 수원으로 천봉됨을 계기로 새로운 읍치가 조성되고 종래의 도호부가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구 수원보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후기까지 수원의 중심지였던 화산남단의 수원부 관아가 거의 모두 훼손되고 일부만이 현릉원 재실로 사용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²⁰²⁾ 그러다가 1800년 6월 28일 정조서거 이후 정조가 추구했던 ‘자족적인 신도시 건설사업’이라는 화성성역의 목적이 퇴색되어 수원지역의 발전방향이 변화되었다. 그 후 고종 때 대원군 집정시기에는 수원부의 제반행정과 재정, 군역등을 정비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수원의 전향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채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었다고 한다.²⁰³⁾

1905년 일제에 의해 강압적인 불법 조약이 체결되어 주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전국적인 항일독립투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919년 발생한 3.1운동은 한국민의 독립정신과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한 일대 사건이었다. 3.1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수원의 각 지역에서도 제암리 교회의 시위를 비롯하여 화홍문 일대에서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고, 3월 16일에는 서장대에서, 23일에는 서호 부근에서 약 7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밖에도 4월 중순까지 수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시위가 발생하였다.²⁰⁴⁾

일제하에서 수원의 상업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시장의 개설이다. 우시장은 전국적으로 655개소가 있었으며 경기도내에 47개소가 있었다. 이밖에도 수원에는 화성내시장과 성외시장 등 2개의 공설시장이 열렸는데 모두 40만원 이상의 매매차를 기록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만 1년이 되는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은 수원시로 승격되고 수원시는 27개동으로 편성되었다. 수원시로 승격된 이후 한국전쟁과 4.19혁명을 거치면서도 수원시의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7년 6월 23일에는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²⁰⁵⁾

2. 수원의 지리적 이해

202) Ibid., 61-62.

203) Ibid., 63.

204) Ibid., 64.

205) Ibid., 65.

현재의 수원은 조선조 정조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새로운 도시이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수원은 광주와 더불어 삼남(三南)으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듯하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수원을 거쳐 천안-공주로 향하는 길, 광주를 거쳐 충주 방면으로 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수원을 경유하는 역로(驛路)는 정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심 역원(驛院)이 바로 장안문 밖에 있었던 영화역이었다. 결국 수원을 경유하는 역로는 양재역에서 시작하여 용인을 거쳐서 삼남으로 향하는 대로(大路) 도중에, 낙생역에서 분파하는 간로(間路)였을 것이다. 현재 수원시의 관내에 위치한 정조조 이전의 역원으로는 장죽역이 있다. 한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역을 수원의 읍치로 함과 동시에 화성(華城)이라는 신도시를 축조하면서 능행로가 새로이 개설되었고, 결국 후대에 와서는 호서, 남으로 가는 대로로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원이 교통의 요지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수원 북문(장안문) 밖에 영화역이 신설됨과 동시에 양재에 위치했던 찰방역(察訪驛)이 영화역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이 웅변적으로 말하여 준다.²⁰⁶⁾

한편 지금의 1번 국도는 지지대고개를 넘어 파장동으로 이르는 과거의 옛길로부터 약간 동쪽으로 옮겨 확장되었다. 수원의 성내를 통과한 역로는 팔달문을 나와 수원천을 따라 남진하게 된다. 수원천은 화성의 북수문에 해당하는 화홍문으로 흘러나와 황구지천에 합류하는 지천이다. 정조의 능행로였다 하여 현재 ‘정조로’라 이름 붙여진 도로는 수원천 동쪽 제방과 나란히 뻗어 있다.²⁰⁷⁾

한편 장길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통로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수원의 경우 성안장과 성밖장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까닭에 여러 방면으로 뻗은 방사선 모습의 장길을 보여주고 있다.²⁰⁸⁾ 우선 동쪽으로는 한때 수원장보다 규모가 컸던 용인 김량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두 장시를 연결하는 길은 현재의 42번 국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데, 동수원 사거리부터 용인시 경계까지의 구간은 과거 수원선철로가 국도와 나란히 있었던 곳이다. 수원의 북동쪽으로는 판교장(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 있었으며, 일제감점에 풍덕천장(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풍덕천 장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43번 국도와 거

206) Ibid., 69.

207) Ibid., 70.

208) Ibid.

의 일치한다. 반면에 판교장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의 구간이 오솔길 내지는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다.

수원의 북쪽으로는 군포장이 있었다. 수원의 서쪽으로는 반월장이 위치한다. 수원에서 발안으로 향하는 43번 국도는 남양은 물론 안중을 경유하여 아산만을 건너는 충청도의 내포지방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였다. 남양, 발안, 구포 등지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목은 수원시 오목천동-고색동-세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1979년 이후 교통로가 쇠퇴하면서 현재 수원-남양과 수원-발안 사이의 구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인데, 이러한 영향은 수원시에도 미쳐서 오목천동-고색동-세류동 일원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의 남쪽으로 오산(烏山)에 장시가 번성하였다. 역로가 넓은 들판에 비교적 곧게 뻗었던 까닭에 수원과 오산장을 잇는 장길은 역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경부선철도와 거의 일치하는 구간이다.²⁰⁹⁾

3. 수원의 교회들

수원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교회는 장천교회로서 1893년 3월 2일 창립되었다. 그러나 수 백년 내려오는 유교 및 불교의 전통과 외국 문화 배척 사상은 선교사역에 큰 방해가 되었다. 수원 지방은 서울 수복 직후 48개 교회이었으며, 6.25 한국전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빈약한 교회재정 문제는 교세 확장에 어려움을 가져 왔었다. 그 후 1953년 피난민들은 남으로 정착하면서 수원에서도 많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당시 수원의 교회들에 큰 주축을 이룬 교인들은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이들은 수원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²¹⁰⁾

제 2 절 창훈대교회의 역사

창훈대교회 역사에 관한 자료는 1989년 11월 10일에 발간된 창훈대 25년사와 1997년 4월 24일에 발간한 창훈대교회 33년사에 자세히 나와있다. 여기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이 두 책에 근거한다.

209) Ibid., 70-71.

210) 수원제일교회, 제일교회 40년사(1953-1993) (수원: 수원제일교회 출판부, 1993), 100.

1. 창립 비전

창훈대교회는 1964년 4월 한명수 전도사가 보훈가족과 함께 수원시 연무동 89-1에 개척 부임을 시작으로 대지 1,002.93평방미터(303평)를 매입, 그 해 11월 165.3평방미터(50평)의 교회 입당을 시작으로 총 4,103.81평방미터(1,240평)규모의 지금의 교회에 이르고 있다.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와 수원노회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지향한다. 담임 한명수 목사는 서울신학대학(B.A.)과 총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M.A.)을 전공, 도미하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박사(D.Min.)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창훈대교회를 시무하고 있으며 교회의 갱신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이면서 학자이다.

창훈대교회는 창훈대의 길이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전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 사회 봉사, 둘째, 조국통일 독립, 셋째, 말씀의 세계화이다. 그리고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수 1:7)는 실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 양성을 위해 성도의 7가지 신앙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다.²¹¹⁾

창훈대교회 33년사는 “전쟁의 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며, 정해진 터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곳에서 사역할 인도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창훈대교회 33년사의 ‘제 1 장 창훈대 25년 약사’ 부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소개는 교회의 창립 비전의 배경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6.25라고 하는 민족의 슬픈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는 보훈대상자의 직업재활교육을 위해 당시 정부는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 1506호로 정부조직법을 발표하고 동법 제 3장 제 22조에 의해 수원시 영화동 1번지 광교산 밑에 국립보훈원을 설치하고 보훈대상자의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교육을 하게 했다. 당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보훈대상자들은 국립보훈원과 직업재활원에 입소하여 직업재활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갔다.²¹²⁾

211) 1. 성품: 성도는 거룩하고(레 19:2). 2. 성경: 부지런히 성경보고(행 17:11). 3. 기도: 힘써서 기도하고(엡 6:18). 4. 주일: 거룩히 지키고(출 20:8). 5. 십일조: 온전히 드리고(말 3:10). 6. 전도: 열심히 전도하고(딤후 4:2). 7. 생활: 동정하는 자가되자(딤후 6:18).

212) 창훈대교회 33년사 편찬위원회, 창훈대교회 33년사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7), 64..

이렇게 모여든 보훈가족들은 출신지방과 교파가 상이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
는 처소를 누구보다 갈망하여 예배를 드렸다. 당시 상이군인으로 재활원주택 112호에
서 자리잡고 살던 권오은 집사와 이순희 집사 내외는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과 같이
모였으며, 직업보도소와 보훈원강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하던 그들은 독자적인 교회 모
임을 위해 교역자를 물색하게 되었다.²¹³⁾

이때 수원 제일교회 김홍규 목사와 서울의 강원군 목사가 연락이 되어 한명수
전도사를 추천하였고, 한 전도사는 보훈원과 재활원을 중심으로 교회설립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문하여 둘러보고, 이곳에 사회에서 버림받고 쓰라린 아픈 상처를 안
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1964년 4월 마지막
주일에 약속된 예배처소인 보훈원 강당에서 시작했다.²¹⁴⁾

2. 교회 발전과 목회 비전

창훈대교회는 1964년 4월 28일 당시 한명수 전도사의 첫 예배를 보훈원 강당에
서 드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도시 교회의 발전은 토지 매
입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서 꽤 많은 토지를 사들였다. 교회 설립 때 303평의
교회대지를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 두 번 이상의 교회 대
지를 조금씩 추가 구입함으로써 1,276평의 대지가 확보되었다.²¹⁵⁾

그러나 대지구입은 다음과 같은 목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목적 그 자
체는 아니다. 한명수 목사의 교회 창립과 목회 비전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교회가 5대 사업부를 보다 활성화하여 해외선교부와 개척 전
도부 및 교육장학부와 특수전도부를 위시하여 특별히 장애사업부
를 교회의 중점사업으로 소외계층 전도와 보호육성을 지속함으로
써 창훈대교회가 상이군경과 전쟁미망인 및 유자녀와 양로층 중
심으로 설립된 정신을 이어 받아서 소외계층전도에 집중적인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²¹⁶⁾

그리고 담임목사인 한명수 목사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그의 목회비전을 잘 알

213) Ibid.

214) Ibid.

215) Ibid., 140.

216) Ibid., 140.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다.

1964년 이른 봄, 4월이면 화사한 계절이기도한데 그 해의 봄은 왠지 무척이나 추웠던가보다. 아마도 가난한 시절이었고 다들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몇 사람이 웅크리고 손을 맞잡아 비비면서 개척의 꿈을 키우던 그 때가 그래도 그렇기만 하다. ... 이제 앞으로 본당 옆에 복지관과 교육관 등 복합 건물을 지어서 2세 교육과 주님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회봉사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설립하게 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뒷동산 앞 냇가가 있는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얼마의 땅을 구입하여 수양관과 기도원을 건립하고 주말과 쉴 때면 모든 성도들이 그곳을 찾아서 가도로 영적 소생을 경험하며 피곤한 팔과 다리를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 건물의 화려함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내재하는 신령한 교회로서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은혜롭게 지낼 수 있어서 예배하고 전도하며 그늘진 이웃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다시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의 후예들과 후손들도 전에 성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리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33년의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얼마 안 있으면 40년의 세월이 당도할 것인즉, 이제 창훈대교회는 100년 200년 그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며,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기어히 다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217)

또한 월간목회 1996년 9월호에 실린 “창훈대교회 주일 예배 지상중계”란에 실린 다음의 기사 또한 창훈대교회의 비전을 잘 서술해주고 있다.

창훈대교회는 출발부터 국가 보훈 가족들과 지체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고 한명수 목사의 불꽃 같은 의지로 시작되었다. 이름도 보훈유공비를 따서 ‘창훈대’라는 교회명으로 하였다. 가지지 못한 자, 소외된 자, 시대의 주류에 속하지 않고 변방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비주류들을 위한 교회가 창훈대교회이다. 개척한 지 33년 되던 1996년 4월 26일 대지 1,240평, 건평 1,233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받을 보훈가족 연금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사람도 있고, 사글세방에 살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뒤로 한 채 교회건축을 위해 바친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헌금이 강단에 올라올 때면 목회자로서 처절한 마음을 가지

217) Ibid., 141-142.

게 됩니다.” 울먹이며 이내 눈물을 흘리는 한 목사의 순수한 마음이 기자의 눈시울을 붉게 하였다. 교회 안을 들어서면서 왼편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층 계단 뿐 아니라 모든 복도에는 나무로 된 손잡이 봉이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물론 장애인들이 쉽게 의지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모든 계단 옆으로는 휠체어가 쉽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따로 입구 진입로가 준비되어 있었다.²¹⁸⁾

3. 창훈대교회 조직

가. 창훈대교회 행정기관 및 부서 조직

〈표 1〉 창훈대교회 행정기관 및 부서 조직

행정기관 조직

교역자회의	기획조정실	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구역위원회	재정위원회	총무위원회	관리위원회	봉사위원회
음악위원회	장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신 문 사

부서 조직

기관장협의회	장립집사회	권사회	총여전도회
남,여상록회	남,여전도회(각4개, 20개)		평신도 사역 개발원

자치사업부 및 전도대

개척전도부	해외선교부	교육장학부	장애사업부
특수전도부	호스피스회	70인전도대	컴앤씨(찬양단)

기타 봉사 부서

주일학교 교사	각 성가대(5개)	구역장	예배당 청소
차량운행봉사	꽃꽂이 봉사	인터넷 위원회	주보접기 봉사
새벽기도반주	유치부 보모	호스피스봉사	음향 엔지니어

218) Ibid., 178-179.

4. 한명수 목사의 목회 리더십

그러면 본 교회 담임인 한명수 목사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너털웃음에 어딘지 모르게 수더분하면서도 이지적인 한명수 목사는 지난 시절 위암 말기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불굴의 신앙으로 펼쳐 일어났다. 그의 다음과 같은 죽음을 넘어서신 신앙 속에서 그의 목회철학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지금 위가 전혀 없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선고가 저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들면서 평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없었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219)

한명수 목사의 목회 리더십 중에 독특한 것은 부교역자들과 사역을 분담하는 것인데, 이는 항상 예배 강단 위에는 3명의 목사가 서게 되는 것이다. 설교담당, 사회담당, 축도담당 목사와 기도담당 장로의 네 명이 등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명수 목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부교역자들에게 강단을 많이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적인 예배는 누가 설교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과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배는 다 같은 예배요, 목사 역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의미에서 다 같은 말씀 선포자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담임목사인 제가 주일 낮 예배의 사회를 맡기도 하고 또는 축도만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최선을 다하여 사회를 보고 축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220)

그러면 이와 같은 한명수 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그는 목회를 하시면서 중점을 두시는 분야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

219) Ibid., 179.

220) Ibid., 180-181.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전도사로 있던 시절, 교회 내의 참혹한 분쟁을 목격하면서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교회의 가치는 크기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인들이나 그 사회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저의 목회에 계속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20세에 믿게 되었는데 당시 안용준 목사님이 쓰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든가 일본의 화천부어시가 쓴 사선을 넘어서, 성 다미안이 나환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 등을 읽으면서 일단 소외 계층, 눌린 자, 힘이 없는 약한 사람 편에서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²²¹⁾

2001년 10월 16일자 창훈대신문에 게재한 다음과 같은 본 연구자의 글은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명수 목사의 리더십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고 보며,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목사님께서서는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존칭을 사용하시는 겸손함을 지니셨으며, 국외 출장시 마다 돌아오실 때 교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일일이 챙기시는 섬세한 정을 지니신 분입니다. 또한 목회자나 교회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주일 대예배 시 부목사들의 축도는 창훈대교회와 한목사님이 지니신 건강한 목회철학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려는 태도를 지니시고 가끔 다른 분들의 좋은 글들을 카피해서 주시며 좋은 내용의 글이 있으면 복사해서 서로 나누어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목회사역 40여 년을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니시고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²²²⁾

5. 교회 성장을 위한 워십

지난 1999년 10월 5일 창훈대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워십이 있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루어진 공증된 객관적 평가가 아닌 교회 자체의 구성원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이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는 교회 성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료를 통해 교회 성장의 방향과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221) Ibid., 185.

222) 창훈대신문, 2001년 10월 16일.

토론의 주제는 두 가지로 한 조(1조)는 “창훈대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토의했으며, 다른 한 조(2조)는 “어떻게 하면 창훈대교회가 성장할 것인가?”였다. 조별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조가 평가한 교회성장 저해 요인은 기도부족으로 인한 영적 리더십의 부재와 전도에 대한 전교회적 참여의 저조, 평신도 사역과 제자훈련에 대한 교역자의 의식의 부족과 교회내의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영성의 부재였다. 그리고 2조가 평가한 교회성장 저해 요인은 교회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부재와 교역자들의 전문화된 사역과 업무분장의 부재, 목회비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역의 활성화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새신자들에 대한 관리 및 양육체계의 부족과 기존신자의 기득권 행사로 인한 텃새현상이다.

이들 교회성장 저해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아래에서 제시했다. 이들 성장 저해 요인들은 현재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되고 있으며 점차로 발전적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성장의 저해 요인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의 넓은 목회 마인드에 힘입어서 본 연구자는 예배와 영성의 회복을 통한 건강한 창훈대교회 만들기과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성숙하고 훈련된 제자)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토의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워샷 토의 참가자

성 명	직 책	소 속 기 관	직 분
이경환	1조 조장	청년1부,전도위원회,심방,새신자 심방 심방 관리	목 사
이인희	1조 서기		전 도사
조명희	1조 조원		전 도사
우준식	1조 조원		집 사
김병수	2조 조장	청년2부,심방,신문사 비서,초등부 장년부,심방,행정 심방 관리	강도사
강호숙	2조 서기		전 도사
이하빈	2조 조원		목 사
박승순	2조 조원		전 도사
황차순	2조 조원		집 사

그리고 당시 주제에 대한 선정과 그 이유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3> 주제 선정과 그 이유

조별	주 제	주 제 선 정 사 유
1조	창훈대 교회가 성장 (영적.양적.질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영적 침체성 2. 양적 정체성 3. 질적 위기감
2조	어떻게 하면 창훈대 교회 가 성장 할것인가?	1.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므로 마땅히 성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교회는 정체되면 죽음을 의미함으로 교회는 성장하여야 한다. 3.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시 조별 현상파악 및 요인 분석을 보면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조별 현상파악 및 요인 분석

조별	주 요 인	구 체 적 요 인	기타
1조 : 성장 저해 요인	리더쉽 부재	* 기도부족 * 눈높이보기	
	전도	* 전교인참여요망* 지도자들의 참여부족(교역자,장로)	
	평신도 활용	* 평신도 활용에 대한 교역자 의식의 전환 * 제자훈련부족 * 고질적인 “끼리문화”	
	영성	* 케리그마 설교 선포요망 * 기도하지 않음	
2조 : 성장 저해 요인	교회교육	* 교회 지도자 영성 * 제직 교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부재 * 프로그램 연구부족 * 필요성 제시 부족 * 주일학교 교사의 장년화 * 교사의 재교육 문제 * 교사의 수급 * 투자 PROJECT(에어콘)	
	교역자 능력문제	* 재교육 부재(예산부족) * 수급문제→전문가영입(새신자교육,찬양) * 업무과다(책임성 분배 부족) * 자체영성훈련	
	목회방향성문제	* 청년들 투자부족 * 당회장 목회방향제시부족 * 직무 중복성, 책임성의 질서문제 * 영성부족(통성기도,찬양) * 지도그룹의 대화, 교통의 부족	
	새신자관리	* 기존교인의 텃새 * 관리전문가필요 * 교육체계화(금지부여) * 부서와의 연계부재 * 교역자 심방부족	

이런 문제와 요인에 대한 대책을 다음 <표 5>와 같이 수립했다.

<표 5> 문제에 대한 대책

요 인		대책	기한(기간)	담당자(부서)
1.리더십 부재	①기도부재	교역자들의 정기기도 모임	매월 첫 주	
	②눈높이 보기	“성경적인 ” 심방 형편에 맞는 신앙교육		
2.전도	①전 교인 참여	전 교인 전도의날 실시 전도부흥회 70인 전도대 활성화 (구역장, 설교자, 권찰참여)	월 1회 금요기도회 이용(한달간)	※ 중직자들 필히 참석
	②지도자들의 참여 부족	새신자 양육프로그램에 중직자 참석요망	년초 (한국강해설 교연구원)	전 교역자, 장로
3.평신도 활용	①교역자의 의식전환	세미나 참석요망 타교회 탐방		
	②제자훈련 부족	평신도교육화 평신도 지도자 양육 중직자들이 먼저 섬기는 본을 보여줌 동기부여 (섬길수 있는 기회제공)		
4.영성	①케리그마 선포요망	설교요망		
	② 기도하지 않음	각 부서별 기관별 모임 활성화 지구별 기도회 실시		
5.제직의 교육참여 부족	①제직임명시 의무적 교육이수 (헌법, 예배, 기본사항이수)		2,000년도	당회장
	②구역장, 설교자, 권찰의 연2회 교육			
	③장로 안수 집사등			
	④임직자 준비교육 프로그램-영성훈련			
	⑤프로그램연구개발 ●부부세미나, ●결혼세미나 실시			

요 인	대 책	기 한 (기간)	담당자 (부서)
6. 주일학교 교육 투자계획 부재	①교육을 위한 투자계획 ◆에어콘 설치 ◆심방 전화기 설치 ◆주일학교 차량운행 ② 청년에 대한투자 ◆농구장, 단기선 교지원 ③ 음향시설 종합점검(초등부,고등부,세미나실)		
7. 교역자 전문가 영입	① 달란트에 맞게 전문사역 맡기자 ② 업무분배의 형성성 및 과중 업무 지양 ③ 부서 배치시 교역자 의견 수렴 (유치원설립 예배시간 조정문제)		
8. 교역자 재교육 부재	① 세미나 참석 예산 지원(연2회) ◆1회-전체교육(교갱협등) ◆2회-본인선택 ② 교역자 정기 기도회 실시 ③ 교역자 친선도모-야유회등		
9.영성 부족	① 통성기도의 강화-수요예배시 ② 새벽기도회-설교는 짧게, 기도는 많이 할당 ③ 뜨거운 찬양유도(영성교육) ◆ 예배시 찬양 리더자 요청 ④ 당회원 정기 기도회 시행		
10. 예산운용 편중성, 유동성 부족	① 예배비의 넉넉한 책정(코팅기,스캐너등) ② 교육재정강화 ③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각 부서 의견 반영할 통로개설		
11. 지도그룹 대화부족	① 당회, 교역자의 연합세미나 실시 중요정책 결정시 교역자 의견수렴 ② 현실적 사례비 책정-교역자를 위한 것		
12. 새신자 관리, 교육의 체계화 부족	① 전담교역자,새신자부교재,교역자의견수렴 ② 기관협조를 위한 통로개설 ③ 차량운행 강화		당회가 협조
13. 사랑부족 (텃새)	① 기존교인에 대한 사랑교육 강화 ② 교역자의 경직된 자세- 친절, 인상의 개선 ③ 은혜를 받을수 있는 교회 분위기조성 ◆ 저녁 예배시 인사주고 받는 시간 만들기		

이런 토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소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한다. 둘째, WORK SHOP을 통해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고 한다. 셋째,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을 위해 자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 6장

교회 증식의 역동성에 의한 향후 10년 목회 계획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초대교회가 지닌 사도행전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창훈대교회는 교회 증식의 꿈을 가꾸어갈 것이다. 최근의 많은 대형교회들은 교회 증식의 역동성보다는 리더십의 세습화의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히 교회의 수직적 증식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증식에 있어서 모범적 리더십의 계승은 교회 성장의 역동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리더십 이양과 계승에서 실패하므로 지금까지의 성장과 사역의 열매들을 하루아침에 실패하거나 상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 장에서 모범적 리더십 계승의 중요성과 그 바탕 위에 본 연구자의 10년 목회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모범적 리더십 계승

본 연구자는 2001년 1월 1일에 창훈대교회에 부임했다. 부임 후 약 9개월간의 유학휴가를 받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시카고에 머물면서 건강한 미국 교회들과 미국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과 사역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성장 배경에는 모범적 리더십 계승과 팀사역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2001년 9월 귀국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서 6월 중순에 귀국하여 지금까지 후임목사로 목회 사역에 전념하는바, 2002년부터 동사목사 제도를 시행하여 한명수 목사가 원당회장으로 본 연구자는 부당회장으로 사역하며, 2003년부터 본 연

구자가 원당회장으로 한명수 목사가 부당회장으로 섬기게 된다. 그래서 2004년 4월에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원만한 리더십 이양과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 교체의 후유증으로 개인과 교회 전체가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습화나 기존 세력들의 텃세나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섬기는 창훈대교회는 일찍이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일찍이 후임자를 내정하고 후임자로 하여금 목회 사역과 당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관에서 그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별히 동사무사 제도는 그 교회에서 경험하는 담임목사 훈련과정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담임목사로서의 정책 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후임자와 당회와의 알력으로 인한 문제를 일찍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담임목사가 후임목사로 하여금 당회와 교회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미리부터 주기 때문이다.

제 2 절 향후 10년 목회 전략과 성장 목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향후 10년 목회 전략의 포인트를 두려고 한다. 첫째,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란 의미 속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인가 신적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예배가 지루하다는 것은 이러한 신적 감동, 즉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루한 예배는 교회성장의 최대 장애이다. 지루한 설교, 지루한 순서, 지루한 시간은 현대인의 발길을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제 1원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배를 살려야 한다.

명성훈 목사는 지루한 예배를 극복하는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³⁾ 첫째는 다양성이다.²²⁴⁾ 둘째는 메시지이다.²²⁵⁾ 셋째는 열정이다.²²⁶⁾ 넷째는 새사람이

223) 명성훈, 교회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172-173.

224) 다양성이란 변화를 의미한다. 현대인에게 변화란 곧 생활양식이다. 100년전의 예배나 10년전의 예배나 거의 변함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예배의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일꾼으로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찬양과 기도순서와 성경봉독과 광고시간

다.²²⁷⁾ 명성훈 목사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선교마인드(mission mind)를 심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목회자 자신부터 지루함을 탈피하라고 권한다. 예배가 지루해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침체될 것이므로 교회의 앞문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이다. 건강한 교회는 단지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다. 소그룹의 본질은 공동체(community)이다. 공동체란 더불어 하나가 되는 몸을 의미한다. 서로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하하는 만남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오이코스(관계) 전도를 개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자의 교회는 소그룹을 취미별 소그룹과 양육 소그룹으로 구분한다. 취미별 소그룹은 각종 스포츠나 오락 및 예술 그리고 취미별로 모임을 갖는다. 양육 소그룹은 삶에 대한 자신의 문제나 관심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소그룹이다. 각종 삶의 고민과 갈등들을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므로 치료하는 것이다. 양육 소그룹은 신앙와 성숙과 재미와 삶의 변화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다. 구역회도 양육 소그룹의 성격을 가지지만 기존의 모임을 유지하고 구역모임 인도방법에 기술적 변화만 줄 것이다.

모든 소그룹의 목적은 소그룹 활성화와 서로의 관계 증진을 통한 복음화이다. 모든 소그룹 인도자(리더)는 평신도 사역자 개발원의 은사 배치팀과 양육팀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역 훈련을 받는다. 모든 소그룹은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셀 개척 원리, 빈자리 전략)에서 출발해서 많은 인원으로 증가하면 다시 소그룹 번식(세포 분열원리)을 한다.

본 연구자는 평신도 사역자 개발원을 통한 기존 교인의 사역 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지시만 받는 평신도 개념에서 사역자의 마인드를 지닌 평신도 개념을 세우는

도 늘 변화를 주어야 한다.

225) 그것이 강해설교이든 제목설교이든 교회성장형 설교는 지루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세대들은 전통적인 웅변조의 설교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즐겨한다. 즉 프리칭(preaching)이 아니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원한다.

226) 열정은 모든 지루함을 파괴시킨다. 예배 인도자는 열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찬양과 설교와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27) 항상 같은 교인만 있으면 식상한 예배가 된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워진다.

것이다. 이는 과거 전통적인 직분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은사에 기초한 역동적인 직분론을 실현하는 것 즉,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은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의 말씀처럼 직분을 사역이나 은사와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평신도 사역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 소그룹(구역)을 인도할 유능한 지도자이다.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핵심적 헌신적 그룹이다. 평신도 사역자는 셀 그룹 번식을 통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다. 평신도 사역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 개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은사배치 사역, 소그룹 인도자 훈련(LTC), 예배자 학교, 새신자 양육자 학교, 전도자 훈련학교, 가정성장학교, 제직학교, 중보기도학교, 성령학교등 사역 훈련 개발이 그것이다.

셋째, 단기목회 혹은 텀(term)계획이다.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장기목회보다는 단기 혹은 텀(term) 목회가 목회 2세대를 이끌 목회자 개인이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데 유익하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정진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역의 목표를 세워서 사역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맛보고 거둘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의 텀(term)을 4시기로 나누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여행이다. 바울은 A.D. 35년 회심 이후 1차(46-48년), 2차(50-52년), 3차(53-57년) 그리고 로마여행(59년)과 62년 투옥 후 67(70년 사이)년 순교를 끝으로 사역을 마쳤다. 본 연구자도 바울과 같은 텀목회를 통해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 사역 방향은 선교사로 파송 받는 것이다.

넷째, 교회 증식을 통한 사도행전적 복음전파이다. 본 연구자는 전임 지도자의 목회비전인 창훈대의 길이란 반석 위에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고, 지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본인의 목회 비전을 겸손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지교회 개척(church planting)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개인이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교회는 늘 목회자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피나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양적 성장과정을 거쳐왔다. 그 동안 목회자는 탈진하거나 병으로 지쳐서 더 이상 건강한 사역과 전문화된 사역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교회 성장과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자 한 개인을 중심으로 개척하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건강한 모교회(mother church)가 또 다른 건강한 지교회(daughter church)를 세우는 것이 보다 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여 사역의 열매들을 맺는데 유익하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지교회를 개척하여 더 큰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교회성장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 중반이후 90년대까지의 교회성장의 제3의 물결은 9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교회형태의 창출로 이어졌다.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신사도적 개혁교회'(NAR: New Apostolic Reformed Church)운동이다.

여기서 신사도적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를 세우셔서 목회환경을 초월하여 탁월한 부흥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주의적 개혁교회를 말한다. 명성훈 목사는 이들 신사도적 개혁교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말한다.²²⁸⁾ 첫째, 교회나 사역현장에서 검증된 토착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신사도적 개혁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도적 연결망(apostolic network)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신사도적 개혁교회는 현대적 예배를 드린다. 넷째, 이들 교회는 기도합주회(concerts of prayer)를 가진다. 다섯째, 이들 교회는 능력목회(power ministry)에 탁월하다.

제 3 절 증식(성장) 전략

1. 교회 증식의 필요성

교회 증식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한다는 생

²²⁸⁾ 명성훈, 교회성장 에센스, 182-183.

각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가?”, “이미 충분히 많은 교회가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존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것인가?”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진 게츠가 언급한 여섯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자.²²⁹⁾ 첫째, 기존 교회들은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으로 사람들을 흠뻑 적시지 못했다. 둘째, 인구 성장은 계속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세워지길 요구한다. 셋째, 많은 지역 사회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문화 집단들은 특수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넷째, 많은 지역 사회에서 일부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안으로만 향하고자 하는 성향에 사로잡힌 나머지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많은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근절되었다. 여섯째, 많은 지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을 통해 축복을 받고 있지만 깊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 증식(배가)에 의한 교회성장

영적이고 수적인 교회 성장은 이미 세워진 지역 교회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들은 또한 교회 개척, 교회 안에서의 목회 훈련, 그리고 효과적인 선교적 노력들을 통한 증식(multiplication, 배가)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에,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새로 믿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이 몇 세대에 걸쳐 반복된다면, 배가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원리가 32년 동안 매년 반복된다면 이 세계에 대략 현재 존재하는 불신자의 수와 비슷한 40억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생길 것이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노력을 배가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배가’를 생각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배가의 개념을 제시한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본문은 흔히 개인 전도와 양육에 적용된다. 하지만

229) Gene Getz,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2000), 204.

문맥을 볼 때 우선적인 강조점은 지역 교회 리더십의 배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배가를 내포한다. 배가의 원리는 더 많은 새로운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들을 생산하고, 동시에 본래의 교회도 계속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 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교회의 배가는 기하급수적인 비율로 교회를 개척해 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뒤 새로운 교회들은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모체가 되는 교회도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이다. 진 게츠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 전략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면 평균적으로 매 3년마다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새 교회들은 각각 다음 3년 안에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한다고 할 때 30년이 지나면 천 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한다.²³⁰⁾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회의 배가

첫째 3년	둘째 3년	셋째 3년	넷째 3년	다섯째 3년
2개 교회	4개 교회	8개 교회	16개 교회	32개 교회
여섯째 3년	일곱째 3년	여덟째 3년	아홉째 3년	열 번째 3년
64개 교회	128개 교회	256개 교회	512개 교회	1024개 교회

물론 게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교회개척의 비전과 패턴은 무너지고 만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제한된 규모 안에서 이 신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록 이 비전이 동일한 패턴대로는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른다.

본 연구자가 꿈꾸는 교회 증식(multiplication, 개척, 배가)을 통한 교회 성장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창훈대교회가 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들 8개의 교회들이 5년 안에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 간다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될 것인가는 자명하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²³⁰⁾ Ibid., 200.

〈표 7〉 향후 교회개척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개 교회	3개 교회	4개 교회	5개 교회	7개 교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개 교회	11개 교회	13개 교회	15개 교회	18개 교회

나. 초대교회와 교회증식

마이클 그린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의 특성들²³¹⁾ 중에서 초대교회는 자기 교회 밖을 내다보는 교회였다고 언급한다.²³²⁾ 안디옥교회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어린 교회였지만 안디옥 자체가 하나의 선교 현장이 되어 안디옥 내에서도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지역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왔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와 남부 소아시아로 기꺼이 파송했다. 그들은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뻗어갈 것을 꿈꾼 것이다.²³³⁾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식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안디옥교회의 증식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필요를 기꺼이 무시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보다 도움이 필요한 곳(해외이든 국내이든)으로 눈을 돌릴 때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의 사역에도 복음의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교회증식에 대한 비전의 실행은 '다른 곳에 물을 대주는 교회는 스스로 물을 공급받는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증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회증식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다. 많은 교회들은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교회증식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

231) 그 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대교회는 온 교인이 사역에 참여했다. 둘째, 초대교회는 관심(새신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셋째, 초대교회에는 참다운 교제가 있었다. 넷째, 지도력이 분배되었다. 다섯째, 활기찬 예배를 드렸다. 여섯째, 사려 깊은 가르침에 탁월했다. 일곱째,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M. Green, 교회의 전도, 37-65.

232) Ibid., 57.

233) Ibid., 57.

변의 상황들은 교회증식을 요청하고 있다. 수많은 개척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사역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은 열악한 사역환경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정은 개인이 거대한 교회라는 유기적 조직체를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게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것을 한 개인과 그의 가족만이 아닌 기존의 교회가 감당한다면 교회개척은 보다 역동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는 한 개인이 개척하기보다는 교회가 개척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들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세력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다 많은 성도, 보다 많은 헌금, 보다 넓은 공간, 보다 큰 대사회적 영향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교회 개척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액수를 가지고 한 달에 몇 십 교회를 돕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교회증식의 진정한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이는 교회가 쉽고 편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만일 안디옥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면 오늘날 유럽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가 먼저 교회증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머지 않아 그 비전을 전교회가 공유하게 될 것이다. 안디옥교회의 부흥은 그들이 교회증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울과 바나바를 임명하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도왔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모였고 함께 기도하였다. 안디옥은 자기 영역을 초월하여 밖을 내다 본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증식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실현한 교회였다.

2. 증식 비전 나누기와 비전 진술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그 사역의 목적을 담은 사명 선언서와 사역 철학을 갖는 것은 사역의 성패에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치있는 목적지를 향해 향해 할 때 도움을 주어 정확한 항로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조지 바나는 비전있는 지도자 비전있는 사역에서 비전을 가졌던 위인들로 성경에서는 모세와 다윗,

느헤미야와 바울을 언급하며, 현대에서는 테레사 수녀와 마틴 루터 킹 2세 그리고 도날드 맥가브란과 빌 하이벨스를 대표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다.²³⁴⁾

모세가 받은 비전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창조자의 화목을 위한 것이었다. 비록 모세가 친부모에게서 포기되고, 살인을 하여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인의 손에서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구하여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일에 모세를 지명하셨다. 그리하여 모세는 규율도 없고 예의도 모르며 항상 불평하는 무리를 이끌고 희생과 의심, 고통, 슬픔의 나날 속에서 사십 년간의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사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려는 비전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남아 있었다.²³⁵⁾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전의 사람이었다. 다윗에게서는 진정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과 순종,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었다.²³⁶⁾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과, 대적하는 여러 종족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 안락한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적의 심장부에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 위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느 2:12) 바로 그 비전을 성취하였다.²³⁷⁾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애썼던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말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특별히 사도행전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²³⁸⁾

알바니아의 자그마한 여인 테레사 수녀는 젊은 시절 학생으로서나 지도자로서 남다른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기도생활 중에서 자기 만족을 초월하여 극빈자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게 되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4) G. Barna, 비전있는 지도자 비전있는 사역, 광춘희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3), 18-24.

235) Ibid., 20.

236) Ibid., 19.

237) Ibid. 20.

238) Ibid., 18.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라는 비전을 성취하게 되었다.²³⁹⁾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의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는 탁월한 지도자나 개혁가로서 처음부터 평가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킹에게 인종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상처와 불평등을 해결하라는 더 큰 소명을 주셨다. 킹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소명에 충실하였다.²⁴⁰⁾

1950년대 인도 파송 선교사였던 도날드 맥가브란은 효과적인 전도의 유형과 비 효과적인 전도의 유형을 연구하여 교회성장운동의 기초 이론을 소개했으나 오히려 목회자 협회에서 탈퇴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동료들의 저항과 논쟁이란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그를 지탱시켜 준 것은 사역에 대한 비전이였다.²⁴¹⁾

마지막으로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크릭커뮤니티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전도하려는 열정을 품고 구도자중심의 예배(seeker service)를 통해 수천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비전을 실현하였다.²⁴²⁾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으며, 비전을 갖지 않았을 때에 볼 수 없었던 강한 헌신이 있었다. 바나 연구소의 교회 성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비전(vision)과 열정(passion)이라고 한다.²⁴³⁾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장기적이며 전반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떤 조건들에 대처하지 않고 변화하는 삶 속에서 총동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려 할 때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전을 찾는 데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사역에 대한 비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낸 비

239) Ibid., 21.

240) Ibid., 22.

241) Ibid., 23.

242) Ibid., 24.

243) G. Barna,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45.

전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전이 없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한다.

조지 바나는 비전을 “사역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에게 보여 주시는 것으로서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44)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서 사역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보인 것이다.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은 종종 개인적으로나 교회 차원의 수양회를 개최하여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회자이다. 자기 과시나 자기만족을 위하여 일하기 보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이다. 그들은 사역에 대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일치시킨다.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은 헌신된 지도자가 부족하여 회중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목회자들을 위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교회 안에 방향감각, 미래에 대한 기대, 회중에게 활력을 주는 사역의 독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들이 계속적인 좌절을 겪게 될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한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을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는다. 비전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그 교회 상황에 적합하며, 다른 교회의 것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다. 비전은 지도자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비전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여준다.(245) 조지 바나는 사명과 비전의 차이를 소개하면서, 사명은 너무 막연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역에 열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지만, 비전은 사명에 발을 달아주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명이 본질상 원리적인 반면에 비전은 성격상 전략적이라고 바나는 말한다.(246) 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44) Ibid., 28.

245) Ibid., 39.

비전은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전은 고무적이다. 비전은 사역의 활동과 발전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비전은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 비전은 능력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비전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비전은 사람 중심이다.²⁴⁷⁾

그리고 바나는 비전이 사역에 주는 유익들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언급한다. 비전은 큰 꿈을 갖게 한다. 비전은 과거의 교훈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자료화하여 사역이 계속되게 한다. 비전은 목적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원하는 분명한 이유도 알게 해준다. 교회가 비전을 갖게 되면 평신도는 사역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헌신하게 된다. 비전의 부산물은 변화이다. 비전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다. 비전은 죄의식 없이 다른 사역의 기회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지도자가 그의 독자적인 은사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비전이 못 미치는 영역의 필요를 감당하게 한다. 비전은 개방적이 되게 한다. 비전은 격려한다.

3. 증식 준비 과정

가. 전도에 대한 강조

(1) 태신자 운동을 통한 전도

지난 해 2001년 8월 26일은 '온 가족 전 구역 초청주일'로 지냈다. 교회는 태신자 운동의 하나로 매년 5월에 '온 가족 전 구역 초청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태신자란 말은 '작정된 전도 대상자'라는 뜻으로 '...제자를 삼아'(make disciples)라는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마 28:19-20). 이는 마치 어머니가 열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간직했다가 열달 후 출산하는 것과 같이 한사람의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과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목적으로 세 사람 또는 한 두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약 10개월) 동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출산(결신)하는 것을 말한다.

'태신자 전도 운동'이란 주변의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연초에 한 명의 성도

246) Ibid.

247) Ibid., 96-103.

가 세 사람 또는 한 구역이 세 가정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마음에 작정하고, 10개월 간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작정된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하고 등록케 한 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는 전도운동이다. 또한 모든 성도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체험을 하는 새 생명 운동이다. 이런 전도운동을 통하여 교회는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추구한다.

그러면 태신자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은 '나의 상급 나의 전도 대상자(태신자)'를 찾는 방법 10가지이다. 첫째, 3촌 이내 가족(조부모, 부모, 아내, 남편, 친정부모, 장인, 장모, 형제....)이다. 둘째, 4촌 이상 친척(외가집, 사촌, 사돈댁, 고모댁, 이모댁.....)이다. 셋째, 가족이나 친척에 관계되신 분들(배우자 주변, 자녀들의 친구부모, 학원선생님, 유치원 교사....)이다. 넷째, 같은 마을(아파트)주변의 사람들(주인, 세든 사람, 같은 번지, 같은 아파트동과 단지, 반상회원...)의 사람들이다. 다섯째, 직장과 생업에 관련되신 분들(직장동료, 회장, 사장, 직속상관, 부하직원, 거래처...)이다. 여섯째, 친구들(동창생, 선후배, 고향사람, 종친회, 친목회, 계모임....)이다. 일곱째, 방문전도에서 만난 분들(축호방문가정, 단골음식점, 미장원, 목욕탕, 서점, 제과점, 문방구, 옷가게, 슈퍼마켓....)이다. 여덟째, 거리전도(시장, 사거리, 정류장, 지하철, 택시, 약수터, 버스, 백화점 셔틀버스, 마을버스 기사, 버스 안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등...)이다. 아홉째, 구역 식구 주변 사람들(구역원 친척, 친구, 이웃 등)이다. 이외에 기타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작정한 태신자들을 지정한 후에는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개인의 이름을 적은 후에 가능성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좋은 이웃 캠페인 지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으면서 접촉해야 한다. 셋째, 구역이나 대각성전도집회에 태신자를 모시고 온다.

그리고 다음은 태신자 전도가 단순한 말만의 전도운동이 아닌 삶 속에서의 관계 전도운동임을 보여준다. 마치 어머니가 열달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귀중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태신자 사랑 실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진행하는 태신자 사랑 실천 운동의 실례를 소개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첫째, 걱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이다. 이를 위해서 2주간 특별 새벽기도하기, 금식 및 금요철야 기도하기, 정시기도하기(실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계속 기도), 구역예배 때마다 태신자 위해 기도하기(빈방석 놓기)가 구체적인 실천사항이다.

둘째, 걱정한 태신자에게 관심 보여주기이다. 이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동네나 아파트에서 인사나누기, 전화 안부 묻기, 함께 다과 나누기, 함께 식사하기(손수 만든 음식 나누기), 함께 취미 생활하기, 이사온 집 찾아가서 도와주기, 쓰레기 분리수거 돕기, 걱정한 태신자의 영적 상태 파악하기를 실천사항으로 두고 있다.

셋째, 걱정한 태신자에게 교회 소개하기이다. 이를 위해서 창훈대 신문 전달하기, 교회와 목사님 자랑하기, 성경 및 찬송가 선물하기, 신앙서적 선물하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전달하기, 직접 쓴 사랑의 편지 보내기, 전도집회 초청장 전달하기, 그리고 자신의 신앙 생활 간증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넷째는 교회에서 연중 1회 실시하는 대각성 전도집회의 날 소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대각성 전도집회를 통한 전도

‘대각성전도집회’는 말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며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진 집회이다. 대각성전도집회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일과 결신한 영혼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제자가 되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것이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전도 인력을 결집하고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대각성 전도집회에 대한 우리의 사역 비전은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복음으로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

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다.

나.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한 증식의 역동성을 체질화함

소그룹 사역은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 기초로 말미암아 교회에 홍수처럼 다가오는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도 소그룹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유지될 수 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흥미 있고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적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내 무너지고 만다. 그럼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성경적 배경

(가)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소그룹의 형태는 하나님의 본질에서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엘로힘)의 존재는 단수 명사로 사용되었지만, 문법 형태는 복수형으로 삼위 일체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도 소그룹이 필요하며 소그룹을 활용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²⁴⁸⁾

(나)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248)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1), 14. 물론 성경에는 소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삼위일체란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룹 개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명칭과 여러 관행에는 그룹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위로는 민족 전체에서부터 아래로는 일가족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삶 속에는 코고 작은 그룹의 개념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맥브라이는 주장한다. 특별히 유대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딸’이란 소개형식의 말은 그 사회에서 아버지와 연결시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가족이 유대 사회의 핵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이었다. Ibid.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열왕기하 4장 38절과 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엘리사 시대의 집단생활의 모습을 통해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의 그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그룹 인도자로서 우리의 모범이시다.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한 가지 열쇠가 바로 소그룹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지역 교회의 사역에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맥브라이드는 소그룹 인도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핵심을 다음의 일곱 가지로 말하고 있다.²⁴⁹⁾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소그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마 4:18-22, 눅 6:13-16).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사역에 모두 활동적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대그룹 사역(막 12:37)과 소그룹 사역(마태복음 26:6)을 동시에 행하셨으나 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특별한 그룹이었던 열두 제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다(막 3:7). 셋째, 무리들에게 대한 사역은 소그룹 사역으로 나아갔으며, 또한 소그룹 사역에서 시작하여 무리들에 대한 사역(대그룹 사역)으로 발전되었다. 예수님은 소그룹 사역을 발판으로 삼아 무리들에게로 사역을 확장하셨다.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그룹과 함께 보내셨다. 예수님 생애의 대부분을 열두 제자의 소그룹 사역에 사용하시고 무리들에게 할애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다섯째, 소그룹 인도자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사역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신 것이다. 여섯째, 영적인 지식과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소그룹을 활용하셨다. 소그룹을 형성하신 다음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심으로써 영적인 진리들을 삶을 통해 가르치셨다. 열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소그룹은 바로 삶을 배우는 강의실이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지도자 훈련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선택한 소그룹인 사도들을 계발하는 일에 주로 시간과 관심을 사용하셨다. 이는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들로 무장시키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성패를 현재의 성취가 아니라 이 사도들이 장차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두고 계셨던 것이다.

249) Ibid., 17-19.

로버트 콜만은 그의 책 주님의 전도계획(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에서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수행에 있어서 여덟 가지 원리들을 통한 소그룹 제자훈련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²⁵⁰⁾ 콜만이 주장한 여덟 가지 원리들은 선택, 동거, 헌신, 분여, 시범, 위임, 감독 그리고 재생산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 사람들이 그의 방법이었고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서 소수에게 집중하셨다(선택).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것이다(동거).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 십자가의 길은 대가를 계산해야 하는 길이였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헌신). 그들에게 자신을 주셨다. 그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 심지어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셨다.(분여).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다(시범). 그들의 사역을 위탁하셨다(위임). 그들의 사역을 점검하시고 평가하셨다(감독).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생산할 것을 기대하셨다(재생산).

그리고 주님의 소그룹 제자훈련과 전도 사역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무엇보다도 콜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가 언제,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분의 성품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통해서만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²⁵¹⁾

(2) 창훈대교회의 소그룹 사역 전략

창훈대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그룹의 형태는 취미별 소그룹과 양육 소그룹이다. 취미별 소그룹은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당신의 영광과 몸 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전제 아래 취미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개인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여 전도와 제자화를 그 목표로 한다.

양육 소그룹은 정해진 목표와 프로그램을 가진 훈련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된 제자, 온전한 사역자로 양육받고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50) Robert Colmann, 주님의 전도계획, 편집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21-23.

251) Ibid., 115.

가) 교역자 소그룹

부록1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앞으로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교역자 소그룹모델의 한 형태이다.

나) 중직자 소그룹

본 연구자가 가진 교회와 목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꿈꾸며 세워 나갈 중직자들과 사역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먼저 교회의 중직자(장로와 장립집사)들을 중심으로 사역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나누고자 부록1와 같은 소그룹을 진행 중에 있다.

다) 젊은 부부 소그룹

이 소그룹은 창훈대교회의 노령화 즉, 교회 구성원의 노인층이 젊은 층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젊은층 사역의 활성화로 앞으로 교회의 노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코자 한 소그룹이다.

창훈대교회의 허리부분이요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군들을 신앙으로 훈련하고자 의도한 소그룹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3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다.

라) 구역장 제자 훈련

본 연구자는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로 측정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구역장은 본 연구자의 목회의 동반자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 설교보다도 구역장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간주한다. 설교는 실패해도 되지만 구역장 훈련에 실패하면 목회에 실패한 것과도 같다. 구역을 통한 전도, 한 사람의 구역장을 철저하게 헌신된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헌신된 제자로 세우게 될 때(딤후 2:2), 주님의 나라는 왕성해 질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구장들과 구역장 그리고 부구역장들에게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구장의 직무이다. 교구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담당 구역이 구역장을 중심으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교구별 경조팀을 조직하여 담당 구역에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 최선으로 협력한다. 세 번째로, 구역 심방 순회를 통해 구역을 사랑으로 섬긴다. 네 번째로, 구역장 및 부구역장들로 하여금 구역을 섬길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격려한다. 다섯 번째로, 교구장 사역의 최종목적은 구역 배가(새로운 구역의 탄생)임을 항상 기억한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구역을 통해 성취되도록 한다.

둘째, 구역장의 직무이다. 이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구역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도하며, 성숙한 영적 지도력을 위해 힘쓴다. 두 번째로, 충실한 말씀묵상을 통하여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한다. 세 번째로, 구역장 사역의 최종목적은 구역 배가(새로운 구역의 탄생)임을 항상 기억한다. 네 번째로, 매주 수요일(오전 혹은 오후)에 실시되는 구역장훈련에 반드시 참석하고, 지도받은 대로 구역을 인도하며, 매 주일까지 구역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한다. 다섯 번째로, 구역모임을 통한 금전거래 및 상행위는 일체 금한다. 여섯 번째로, 구역에 애경사가 생기면 교구장 및 지구장(담당 전도사)에게 알리고 구역원 전원이 일에 끝까지 협조하는 사랑의 모범을 보인다. 일곱 번째로, 삶의 최우선순위가 구역과 구역원을 섬기며 돌보는 것임을 기억한다. 여덟 번째로 구역방학 기간은 성경공부 모임만 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구역을 돌보는 사역은 계속한다. 아홉 번째로, 구역원의 주소 및 전화 변경, 환자, 애경사등을 파악하여 교구장과 지구장에게 연락한다. 마지막 열 번째로,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구역을 통해 달성되도록 한다.

셋째, 부구역장의 직무이다. 이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구역장을 도와서 각 구역원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에 협력한다. 두 번째로 신입 구역원이 구역모임과 구역 활동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세 번째로, 구역 배가시 새로운 구역을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네 번째로 구역장 부재시 그 역할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받는다. 다섯 번째로 구역의 최종목표인 구역의 배가(새로운 구역 탄생)

생)를 위해 구역장을 도와주며, 구역 배가시 새로운 구역을 인도한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구역을 통해 성취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부록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역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되고 유능한 소그룹 인도자를 세워 나갈 계획이다. 구역장들을 영적 유모와 같이 구역원들을 섬기며 돌보는 유능한 소그룹 인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과 오후(8시부터 9시)까지 구역장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부록4의 내용은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귀납법적 성경공부방식을 통한 소그룹 모임용 구역공과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설교형식의 구역예배 형식에서 이제는 말씀을 귀납법적으로 발견해내며 발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나누므로 다시금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소그룹 모임이 되고 있다. 부록에는 구역에서 사용되는 소그룹 공과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구역 인도자(구역장)용이고 다른 하나는 구역원(그룹원)용이다.

다. 평신도 사역 개발원을 통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평신도 사역자(lay-minister)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 핸드릭 크래머(H. Kraemer)는 평신도 사역자(lay-minister)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아코노이, 즉 사역자들이다”라고 정의했다. 김점옥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우라에서 평신도 사역자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협의의 개념은 일정한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사역자들을 지칭한다고 했다. 김점옥 목사는 화와이 호놀룰루의 새소망 크리스천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을 평신도 사역 훈련 때문이라고 했다. 즉 전도 지향적인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갖고 있다. 그는 교회의 사역이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

평신도 사역자의 종류에 대해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는 “넓은 의미로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 좁은 의미로는 교회 내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모든 구역장, 순장, 다락방 사역자, 선교회 임원, 위원회 임원,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등으로 정의했다. 특별히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의

사역은 전형적인 평신도 목회자이다. 그 종류는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상담자, 평신도 성경교사,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찬양 사역자 등으로 보았다.

평신도 사역자가 주는 유익들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평신도 사역자는 직분을 사역과 기능적으로 연결시킨다. 평신도 사역자는 전통적인 직분론을 극복하고 은사에 기초한 성경적인 직분론을 실현하는데 공헌한다. 모든 성도의 은사가 목회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평신도 사역자의 개념은 평신도가 은사를 가진 존재이고,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실제로 은사 점검과 계발을 통하여 적절한 사역지를 찾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둘째, 평신도 사역자는 성도를 교육생이 아니라 사역자로 만들어낸다.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목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생각하고 교육시킨다면 그들은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성도의 가슴속에 '나는 사역자다'란 영적인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소그룹을 인도할 유능한 지도자이다. 유명무실한 구역 조직의 대안은 교인의 절박한 필요가 있는 그 곳에 평신도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사역팀이 목회자보다, 신문기자보다 먼저 달려가서 성도들을 돌보는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

넷째,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불만 요소를 해결하는 필요 충족 소그룹을 만들어낸다. 성도들의 필요는 다양화되고, 목회의 영역은 더욱 전문화되고, 목회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 이상으로 더 강해질 수는 없다. 각 교회는 교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잘 계획된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헌신하며 그분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할 훈련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야 하는 이유는 '점점 늘어만 가는 성도들의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느냐?'하는 문제와 '한 명의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의 성도를 완벽하게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평신도 사역자는 셀 그룹 번식을 통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성장 비결은 구역 소그룹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구역조직은 무력화되어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침체를 의미한다. 한국교회의 구역조직의 회복, 소그룹 또는 셀 운동의 회복은 평신도 사역자 목회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의 현장인 구역(소그룹, 셀 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건강과 성장도 평신도 사역자들인 구역장, 설교자, 각 기관의 임원들의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란 헌신 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창훈대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훈대의 길 위에 소그룹과 영성 그리고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둘째, 교회의 모든 양육과정과 사역자 훈련과 세미나 그리고 축제를 지원하고 지도하여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 개발원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사역들을 주관 혹은 지원한다.

(1) 취미별 소그룹

창훈대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취미별 소그룹은 다음과 같다. 취미별 소그룹의 존재목적은 취미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관계 전도 프로그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당신의 영광과 몸 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취미별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두텁게 하고 더불어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임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회원을 한 명씩 인도하는 것을 불문율로 정하고 있다. 취미를 통한 이웃 및 친구들의 관계전도가 소그룹의 목적이다.

〈표 8〉 창훈대교회 취미별 소그룹 종류

그룹명	교역자	회장/총무	그룹명	교역자	회장/총무
등산	김병수	여동학/황종환	스키	조명희	이건모/윤용재
축구	이병철	김수길/윤준희	수영	이남숙	백정인/임근숙
테니스	백현	이태영/이상원	게이트볼	이인희	이만휘/전춘자
골프	권태경	우성교/이상철	낚시	박기범	강명우/한성훈
볼링	임철민	김범연/한성근	서예	이훈복	유한종/배원희
탁구	김성태	이갑수/김도희	독서	한명수	윤창익/심미경
배드민턴	박승순	조성희/이종필	꽃꽂이	김복순	황정옥/이동경

(2) 양육 소그룹

취미별 소그룹 모임은 받은 은사와 취미에 따라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 프로그램이라면, 양육 소그룹은 보다 준비되고 조직적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성장 프로그램이다. 물론 양육 소그룹의 최종 목적도 소그룹을 통한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그룹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예배, 양육,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전도이듯이 전도는 소그룹의 최종 목표, 즉 예배와 양육과 공동체적 교제의 활성화를 통한 전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의 전략 중에 빈자리 전략, 즉 매 모임마다 한 좌석을 비워두므로 그룹원 모두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게 된다.

아직은 소그룹의 정착단계에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 사역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교역자들과 온 교회가 공유한다면 머지 않아 교회는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만들기에 아주 가까이 있을 것이다. 양육 소그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 훈련된 사역자, 구비된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다. 현재 창훈대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 소그룹은 다음과 같다.

〈표 9〉 창훈대교회의 양육 소그룹

과 목	시 간	담당자	장소	내 용
새가족 성경공부	주 오전 10:00-10:45 주 오전 12:10-13:00	백 현 목사	새가족실	기초 6주
일대일 양육	매주 목 06:00-07:00	백 현 목사	영아실(2층)	15주 과정
중직자 소그룹	매주 일 13:00-14:00	이훈복 목사	세미나실	알파(4학기)
남자 제자반	매주 수 19:00-20:30	백 현 목사	전도위원회실	알파(4학기)
여자 제자반	매주 목 19:00-20:30	김병수 목사	전도위원회실	알파(4학기)
젊은 부부반	매주 일 17:00-18:30	박기범 목사	새가족실	알파(4학기)
여전도회 임원반	각자 정함(5반)	여전도사	각자 정함	알파(4학기)
교역자 소그룹	매주 토 9:00-10:30	이훈복 목사	세미나실	사역 개발원

창훈대교회 중직자와 남녀제자반 그리고 젊은부부 및 여전도회 임원반은 알파 코스 과정에 따라 약 2년(총 55주)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모든 양육 소그룹은 교재에 기초해서 말씀과 삶을 나누게 되지만 교재에 얽매어서 교재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그룹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비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므로 변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근거로 삶에 도전을 준다.

〈표 10〉 창훈대교회의 알파코스 소그룹

과 목	내 용	교 재	과 정
알파코스(초급)	기독교를 바로 알고 소개한다	알파 게스트용	10주 과정
알파코스(중급)	빌립보서를 통한 삶의 회복	유익한 삶	10주 과정
알파코스(고급)	이사야서를 통한 영적 부흥 경험	부흥의 본질	12주 과정
알파코스(지도자)	산상수훈을 통한 영적 성숙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	20주 과정

특별히 새가족 사역은 다음과 같은 취지 하에 새가족 6주 과정 교육을 통해 창훈대교회 등록교인으로 세우고 있다. 첫째, 창훈대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먼저 ‘창훈대교회 신입교인등록카드’(흰색)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어 6주 동안 ‘새가족 6주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로써 교회의 일원이 됨과 아울러 성도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둘째, 새가족 성경공부는 주일 오전 10시 10분과 오전 12시 20분 중(약 50분) 택일하여 참석하면 된다. 셋째, 대학 및 청년들은 청년국에서 자체 실

시하는 새가족 모임을 통해 등록교인이 될 수 있다.

(3) 사역자 훈련 학교

창훈대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원은 각종 사역훈련 학교 과정을 마련하고 교회의 구성원 한 성도 한 성도로 하여금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진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사역자 훈련학교는 주로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발행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교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학기제로 운영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족한 면을 사역자 훈련 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며 준비된 사역자로 세우고 있다. 물론 한 학기를 이수했다고 바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과정은 성도로 하여금 사역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고 이를 뒤에서 적극 후원해주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고 훈련해서 사역자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가장 기초과정이므로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강한 동기부여와 함께 실제 사역의 장(場)에서 봉사하게 하므로 사역의 기쁨과 열매들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비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표 11〉 창훈대교회의 사역자 훈련학교

학교 과 목	시간(2002년 학기)	담당자	장 소	내 용
전도자 훈련 학교	봄학기(3월 개강)	박기범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내적 치유 학교	봄학기(3월 개강)	백 현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예배 학교	봄학기(3월 개강)	김병수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새가족 양육자 학교	여름학기(6월 개강)	김병수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가정 성장 학교	여름학기(6월 개강)	박기범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성령 학교	여름학기(6월 개강)	백 현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은사 학교	가을학기(9월 개강)	백 현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기도 훈련 학교	가을학기(9월 개강)	박기범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상 담 훈련 학교	겨울학기(12월 개강)	백 현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제직 학교	겨울학기(12월 개강)	김병수목사	세미나실	13주 과정

창훈대교회 청년국 리더는 청년국 자체에서 리더훈련(LTC)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분기별로 리더훈련을 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저녁 2타임을 리더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이 리더훈련과정은 소그룹과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공부와 상담등 소그룹 리더가 갖추어야 할 사역의 기술들과 영성을 훈련하고 나누는 과정이다. 특별히 유능한 소그룹 리더는 학식이 많은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라 소그룹의 사회자와 유모같은 섬김과 돌봄의 목자 스타일의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라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들 중심의 주일 4부 예배를 통해서 젊은이들에 맞는 예배 스타일과 영성 그리고 사역의 스타일을 훈련하고 개발하여 건강한 신앙인격자로 성장하고 있다. 특별히 창훈대교회의 구성원이 현재 노년층이 많아서 만일 젊은 층이 교회의 중심적 구성원과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극히 노령화된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모든 계층의 구성원이 공존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4) 성장을 위한 세미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경험, 삶의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구원은 한 순간에 받지만 성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써야 될 영적 싸움이요 전투이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성장 프로그램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야 한다. 더욱이 교역자와 중직자(장로, 권사, 장립 집사)들은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투자해야 한다. 교회 내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구비된 사역자로 훈련하고 세우는 사역을 평신도 사역 개발원이 감당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 훈련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통해서 구비될 수 있는 것이다.

〈표 12〉 창훈대교회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

종 류	시 간	담당자	장 소	내 용
제 직 세 미 나	매년	외부강사	본 당	제 직 의 사 명
구 역 장 세 미 나	매년 6월, 12월	외부, 내부	본당, 외 부	소그룹 인도법
교역자 세 미 나	매년 3월, 9월	교역자회	외 부	팜, 안성수양관
장 로 세 미 나	매년 7월(수양회)	장로회	외 부	교회 탐방 1월, 10월
찬양 세 미 나	매년 8월 중순경	음악위원회	교 회	찬양대원 성장
은사매치 세 미 나	매년 2월	사역 개발원	세 미 나 실	평신도 사역배치

한편 창훈대교회는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독립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사 양성교육과 교사 계속 교육 그리고 교사 추가 교육의 3단계를 통해서 주일학교에 필요한 헌신되고 유능한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 개발원은 교회의 기존 성도들과 새로 오는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은사매치 사역 세미나를 열어서 그들의 은사와 적성에 맞는 사역의 장(場)을 열어주고자 한다. 은사매치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된다. 첫째, 당신의 영적 은사를 더욱 분명케 하고, 둘째로 우리의 영적 은사를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 그리고 셋째, 우리의 주된 열정과 주된 영적 은사를 연결시켜 준다.

다음은 효과적인 사역 배치를 위한 은사 진단 점검표이다.

*효과적인 사역배치를 위한 창훈대교회 은사진단 점검표

1. 사람, 사업 또는 행사를 총괄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2.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3. 나무, 형겅, 물감, 금속, 유리,, 기타의 재료를 가지고 공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4. 여러 예술의 형태를 이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5. 영적인 진리와 오류, 선과 악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6. 사람들의 잠재력을 잘 파악한다.
7. 복음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전한다.
8. 하나님께서 내 기도예 응답하심을 믿는 일이 쉽고 자연스럽다.
9.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사업에 기쁜 마음으로 풍성히 헌금한다.
10.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11. 내 집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 장소를 생각한다.
12. 기도 부탁을 받으면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13. 사람들이 성경 구절이나 성경적 진리에 관해 나의 의견을 종종 물어온다.
14.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수 있다.
15.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이 치유받는 동안 도움을 주고 싶다.
16.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매기해 줄 수 있다.
17. 남을 돌보거나 양육하는 일에 시간 쓰기를 좋아한다.
18.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19. 개인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에 관한 충고의 부탁을 종종 받는다.
20. 세부적인 면을 다루는 데 철저하고 신중하며 능숙하다.
21. 다른 나라나 다른 인종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일에 흥미가 있다.
22. 여러 종류의 연장을 잘 다룬다.
23. 미술, 연극, 음악, 사진 등의 예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24. 첫인상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파악한다.
25.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를 좋아한다.
26. 비신자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는다.
27.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28.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십일조 이상의 헌금을 한다.
29. 사역을 돕는 일상적인 사무 일을 즐겨한다.

30.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환영받는다느 느낌을 주는 일들이 즐겁다.
31.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32. 자연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떠한 사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알게 될 때가 있다.
33. 다른 이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3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
35.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느낌을 받는다.
36.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감싸주고 싶다.
37. 진리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38. 갈등이나 혼돈 가운데서 종종 간단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때가 많다.
39.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40. 개척교회를 세우는 데 기꺼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41. 사역에 필요한 물건 만들기를 좋아한다.
42.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3.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거짓이나 가식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다.
44.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소망을 얻게 한다.
45. 복음의 핵심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는 일을 잘 한다.
46. 큰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고 확신한다.
47. 더 많은 구제헌금을 하기 위해 돈 관리를 잘 한다.

48.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교회안팎의 잡일들을 한다.
49. 다른 사람과 연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신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50. 나는 기도할 때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51. 성경을 정확하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따로 할당한다.
52. 다른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도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
53. 구제불능 또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즐겁다.
54.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문화적 추세나 가르침, 행사들을 담대하게 지적한다.
55. 전인격적인 차원 즉 이성적, 감정적, 영적인 면에서 지도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56. 가르치는 사람의 말, 어구, 내용 등에 대해 세심히 관심을 집중한다.
57. 여러 가능한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쉽게 골라낼 수 있다.
58.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일을 할 수 있다.
59. 다른 문화나 환경에 잘 적응한다.
60. 어떤 것을 만들기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다.
61.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찾기 좋아한다.
62.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는 편이다.
63. 믿음 생활, 가정 생활 또는 전체 삶 가운데 용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다.
64. 밀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권한다.
65.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66. 소득이 더 많은 부분을 헌금할 수 있도록 내 생활 방식을 절제해야겠다는 도전을 받는다.
67. 실제적인 일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68. 사람들이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
69.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70. 통찰력이 있고 진실을 금방 알 수 있다.
71.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사람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
72.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73. 대부분의 행동을 옳고 그름의 견지에서 보게 되는 때가 많으며,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74. 장기간 변함 없이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도울 수 있다.
75. 보다 조직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택하고 싶다.
76.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야기할 결과를 쉽게 예지할 수 있다.
77. 어떤 기관이나 집단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78.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문화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
79. 나의 기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80.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예술을 도입한다.
81. 나의 통찰력이나 관찰력을 사람들이 인정한다.
82.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강건케 한다.
83.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며 사람들이 내 믿음에 관해 물어오기를 원한다.
84.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매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85.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과 사역에 나의 헌금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즐겁다.
86. 해야 할 잡다한 일들을 찾아내기 좋아하며 부탁받지 않더라도 종종 그러한 일들을 하곤 한다.

87. 사람들 접대하기를 좋아하며 내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88.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는다.
89. 다른 사람들에 관한 어떤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는 때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
90.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91.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나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 진정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2.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93.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침을 주는 것을 즐긴다.
94.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줄 수 있다.
95.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준다.
96. 한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배우기를 좋아한다.
97.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98. 손으로 하는 일을 잘 하며 좋아한다.
99.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100.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이나 설교, 말씀을 분간할 수 있다.
101. 영적인 성장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기를 좋아한다.
102.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담대하게 말한다.
103.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 도전을 준다.
104.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풍성히 헌금한다.
105. 남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보조자의 역할도 기꺼이 한다.
106. 다른 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한다.
107. 기도 부탁을 받으면 영광으로 생각한다.
108.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몸매 속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

을 주는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109. 다른 이들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110.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를 좋아한다.

111.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다지 환영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다.

112. 방황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와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다.

113.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적용하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다.

114. 사람들이 실제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도록 성경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다.

115. 앞의 행사를 미리 그려보고, 가능한 문제들을 예상하여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16. 교회의 여러 사역을 총괄, 지휘할 수 있다.

117. 교회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구상하고 만들 수 있다.

118. 명상하며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가끔 필요하다.

119.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잘 감지할 수 있다.

120.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전을 주거나 꾸짖을 수 있다.

121.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122.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반대나 비협조를 무릅쓰고라도 추진할 수 있다.

123.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많이 드리기 위하여 내게 많은 자원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124.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기술을 늘 기꺼이 사용한다.

125. 낯선 환경 중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 126. 내 기도의 직접적인 응답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자주 본다.
- 127. 나의 지식이나 통찰을 다른 사람과 담대하게 나눈다.
- 128. 목적지가 어딘 지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129.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 130. 죄를 볼 때마다 이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 131. 다른 이들이 신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양육하는 것을 좋아한다.
- 132.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 133.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이들 점검표에 따라 각각의 은사별로 나누어지게 된다.

다스림(행정관리)의 은사는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며,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철저함, 객관적, 책임감, 조직적, 목표 지향적, 능률적, 양심적이나 지도자의 비전을 가리지 않도록, 계획들을 조종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사람들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전 12:28, 행 6:1-7, 출 18:13-26).

사도의 은사(메시지와 함께 보냄을 받는 것)는 새로운 은사는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나 사역 조직체계의 개발을 시작하며 감독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이 가졌던 사도직의 직위는 특별한 것이고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직의 역할은 영적은사를 통해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전 12:28-29, 엡 4:11-12, 롬 1:5, 행 13:2-3).

재주(기술, 기능)의 은사(만들고 고안하고 짓는 것)는 사역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출 31:3, 35:31-35, 행 9:36-39,

왕하 22:5-6).

예능(창의적 의사 전달)의 은사는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시 150:3-5, 삼하 6:14-15, 막 4:2,33).

영분별의 은사(분리시키거나, 구별하거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는 진리와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영을 분별하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고전 12:10, 행 5:1-4, 마 16:21-33).

권위(encouragement)의 은사는 신앙을 버렸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며, 위로하고,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리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2:8, 행 11:22-24, 15:30-32).

전도의 은사(좋은 소식을 가져 가는것)는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며 제자화시키는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엡 4:11, 행 8:26-40, 눅 19:1-10).

믿음의 은사(신뢰하며, 확신을 가지며 믿는 것)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 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고전 12:9, 13:2, 히 11:1, 롬 4:18-21).

구제의 은사(일부를 주며 나누는 것)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과 물자를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게 내어놓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얼마의 돈이 드는가?”를 자문한다(롬 12:8, 고후 6:8, 눅 21:1-4).

병 고치는 은사(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는 원래 ‘치유들’이라는 뜻의 복수 단어이다. 이 은사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감정적, 관계적, 영적, 육체적 치유 등). 치유의 은사는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고전 12:9, 28, 30, 행 3:1-16, 막 2:1-12).

돕는 은사(누구를 대신하여 하는것)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덜어주거나, 지원하거나, 채워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고전 12:28, 롬 12:7, 행 6:1-4, 롬 16:1-2).

대접하는 은사(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는 사람들에게 친교와 음식, 잠자리를 제공하며 보살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벧전 4:9-10, 롬 12:13, 히 13:1-2).

중보기도(도고)의 은사(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며 중보하는 것)는 중보기도의 은사는 빈번하고도 뚜렷한 기도의 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거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성한 능력이다(롬 8:26-27, 요 17:9-26, 딤후 2:1-2, 골 1:9-12, 4:12-13).

통역의 은사(번역하고 통역하는 것)는 방언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교회에 알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고전 12:10, 14:5, 14:26-28).

지식의 은사(아는 것)는 지식의 은사는 계시나 성경적 통찰을 통해 교회에 진리를 전하는 신성한 능력이다(고전 12:8, 막 2:6-8, 요 1:45-50).

지도력의 은사(앞에 서는 것)는 하나님의 목적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지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롬 12:8, 히 13:17, 눅 22:25-26).

금휼의 은사(민망히 여기는 것)는 동정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고통받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기쁘게 돕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롬 12:8, 마 5:7, 막 10:46-52, 눅 10:25-37).

능력의 은사(강력한 일을 행하는 것)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고전 12:10, 28-29, 요 2:1-11, 눅 5:1-11).

예언의 은사(미리 말하는 것)는 예언의 은사는 이해, 바르게 함, 회개 혹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신성한 능력이다. 즉각적인 또한 미래적인 예언이 있다(롬 12:6, 고전 12:10, 28, 13:2, 벧후 1:19-21).

목사(목자)의 은사(양떼를 보호하고 기쁨)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며 지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엡 4:11-12, 벧전 5:1-4, 요 10:1-18).

가르침(교사)의 은사는 듣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더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롬 12:7, 고전 12:28-29, 행 18:24-28, 딤후 2:2).

방언의 은사는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통역의 은사를 통해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

를 받을 수 있다(고전 12:10, 28-30, 13:1, 14:1-33, 행 2:1-1).

지혜의 은사(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는 영적 진리를 특별한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고전 12:8, 약 3:13-18, 고전 2:3-14, 롬 9:23-24).

(5) 사역 축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을 경축하고 격려하여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행사를 축제로 이벤트화한다. 전성도들에게 그들의 비전과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고자 다음과 같은 축제를 열 것이다.

〈표 13〉 창훈대교회의 사역 축제

종 류	일 시	주관 부서	장 소	내 용
청년 축제	매년 부활절 주간	청년국	본 당	학술제 및 세미나
가정 사역 축제	매년 5월	사역개발원	본 당	가정 생활 세미나
찬양 축제	매년 8월	음악위원회	본 당	한여름밤의 임마누엘
새생명 축제	매년 10월	전도위원회	본 당	대각성 전도집회
1318 문화축제	매년 10월 말	고등부	본 당	친구초정 전도 축제
새가족 축제	매년 6월과 11월	새가족위원회	본 당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
소그룹 축제	매년 11월	사역개발원	본 당	전체 소그룹 발표회
찬미의 밤 축제	매년 12월	중등부	본 당	수성여중 전도 축제

(6) 그 외 성장을 위한 과정들

창훈대교회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2천번 읽기, 듣기, 쓰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2002년 1월 13일 현재 1960독을 기록하고 있다. 목회비전 창훈대의 길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 조국통일 독립, 말씀의 세계화 중에서 말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전 교인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쓰기 운동에 다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전 교인에게 나눠주는 주보에 성경공부 간지를 끼워주고 이것

을 다음주까지 제출하여 채점 후에 다시 돌려 주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주보성경 공부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매주 출제되는 성경공부는 일년에 약 45과정도가 출제되어 연말에 가서는 각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므로 창훈대의 길 중에 하나인 말씀의 세계화를 이루는 또 다른 방편이 되고 있다. 특별히 말씀을 귀납법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데 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창훈대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의 내용은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부록 참조).

제 4 절 증식된 교회의 새로운 모습

칼 조지는 뉴욕의 새생활교회(스케제로 목사)의 성장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교회에 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음악과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즐겁고 현대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생활과 관련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를 들으며, 셀 그룹을 통해 돌봄을 받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따라갈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도 한몫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피트 스케제로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새생활교회는 즐겁게 지낼 만한 장소가 된 것이다.²⁵²⁾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회 성장의 열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만일 위에서 언급한 새생활교회의 성장요인들 즉 즐겁고 현대적인 예배, 생활과 연관된 설교, 셀 그룹을 통한 돌봄과 구성원들의 리더십 개발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빠졌다면 교회성장 모습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완벽한 교회와 목회자는 없다. 그러나 이들 요소들은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언급하는 요소들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기 보다는 본 연구자가 꿈꾸고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온전함을 위해 계

²⁵²⁾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301.

속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1.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누룩과 같이 사망으로 퍼져갔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독특한 성경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바울도 자신이 설립한 교회들에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롬 16:4-5), 고린도에는 스테반의 집(고전 16:15), 갈라디아에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다(갈 6:10). 그리고 빌립보에는 복음에 힘쓰던 부녀 소그룹이 있었다(빌 4:3). 이처럼 초대교회의 확장 이면에는 소그룹이 자립잡고 있었다.

맥가브란과 안은 교회 성장의 열 단계에서 소그룹에 대해서 “큰 몸인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이 있어 새로운 교인들을 단순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케 하지 않는 한, 뒤 문은 열림 채 그대로 있는 것이다”(253)라고 했다. 이는 전인적 소그룹이 전도의 궁극적인 결심과 열매를 가져다주는 핵심적 요소임을 의미한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소그룹이야말로 소외감이 팽배한 현대 세속도시에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요, 도시사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예배나 제도적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대중 방송 매체들보다 교회의 사명에 보다 알맞으며, 교회의 기본 구조요 교회 생활의 기본단위이라고 했다.(254)

소그룹의 형태는 그룹의 크기, 형성 기준, 응집력, 과제와 환경, 상호작용 과정, 효율성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255) 칼 로저스(Carl R. Rogers)는 그룹을 강조점과 특성에 따라 10가지로 세분화했다.(256) 켄프(C. Gratton Kemp)는 교육 그룹, 카운셀링 그룹, 치료그룹으로 나누었다.(257) 이런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253) McGavran & Ar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San Francisco: Row, 1977), 86.

254) H. Snyder, 새술은 새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59.

255) 전요섭, 그룹 지도 방법 (서울: 백합출판사, 1987), 39.

256) Carl R. Rogers,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362-363. 이들 열 개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 훈련그룹, 만남의 그룹, 감수성 훈련 그룹, 과제 그룹, 감각 각성 그룹, 창조성 워크숍, 조직 개발 그룹, 팀 형성 그룹, Gestalt 조직, Synanon 조직.

257) C. Gratton Kemp, Small Groups and Self-Renewal (New York: The Saebury Press, 1971), 41-42.

소그룹들은 나이, 직업, 역할, 관심 등에 따라서 성경연구, 찬교, 연구, 선교, 치료, 봉사, 상담, 양육 등 다양한 소그룹을 구성하여 많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기능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이연길은 소그룹이 왜 평신도 훈련의 장(場)으로서 용이한 6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²⁵⁸⁾ 첫째, 교육적인 면에서 소그룹은 개인을 훈련시킴으로 학습과정에 참여케 한다. 둘째, 공감대 형성에서 소그룹은 밀도있는 교제를 가능케 함으로 믿음과 지식과 신령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밖으로는 이웃들을 교제권 안으로 쉽게 초대할 수 있다. 셋째, 신앙성장 면에서 소그룹은 강의식 보다 대화식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신앙적 성장을 가져온다. 넷째, 소그룹은 신앙의 독단을 막아주며 영적 고립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다섯째, 지도자 육성 면에서 소그룹은 차기 리더를 양육하고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활동 면에서 소그룹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룹원 간의 인격적 만남과 대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복종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하다.

가. 변화하는 21세기의 현실과 소그룹의 필요성

그러면 소그룹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까지 변화가 일고 있다. 변화는 언제나 있어 왔다. 3인 이내의 핵가족의 변화와 아파트 문화가 낳은 이웃사촌관계의 단절,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었다. 더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찬화되고 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교제하고, 놀고, 모이고, 수많은 활동을 즐기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는 현재의 정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에서 역삼각형의 불안정한 구도로 바뀌고 있다.

나. 교회는 어떻게 이 많은 변화를 극복할 것인가?

258) 이연길, 소그룹 성경 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3), 33.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목표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존구조와 체제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선명한 비전에서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이 나온다.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문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다.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 창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리더들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의 리더들, 중직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중직자들이 먼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 진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은 소그룹의 활성화에 있다. 교회들이 점점 거대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바로 소그룹이다. 소그룹 모임은 구약시대에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제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소그룹 중심의 나눔 공동체에서 근거한다. 이 소그룹으로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다.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요소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강한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성숙하게 세울 수 있고, 서로 섬김으로써 거대한 조직에서 힘을 쓰지 못하던 사람들 개개인에게 새로운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미국 풀러신 학교 교회 성장 연구소 칼 조지(Carl George)박사는 미래를 위해 당신의 교회를 준비시키라에서 미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8가지 요소를 언급했다. 첫째, 미래 교회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미래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래교회는 교회를 둘러싸고 세상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미래교회는 급속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미래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여섯째, 미래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신앙의 영역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분발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미래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과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미래교회는 모든 교회공동체 구성원이 인격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칼 조지 박사는 미래교회에 필요한 이상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소그룹이라고 강조한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건강한 소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 유지해야 할 기초적인 원리를 무엇인가?

라.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의 8가지 기초 원리

첫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특한 인격과 재능을 부여받은 우리는 소그룹이란 장(場)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잠재력은 예수님의 의해서만이 최고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협력과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넷째,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임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결단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영육간의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과 어떤 상처로 인해 치유 받기를 바라는 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역동적 건강한 소그룹이 되는 것이다. 여섯째,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 영적인 전체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여덟째,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2.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 개발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교역자(clergy)와 평신도(la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3세기 중엽에 씨프리아누스(Cyprianus)가 성직계급에 속한 자와 구별되는 의미로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결국 이것을 계기로 평신도는 교회 내에서 부수적인 위치로 전락했다. 더 아나가 4세기 초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되면서 더욱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가 되어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더욱 벌어졌다. 그러다가 12세기 이후부터 평신도의 의미가 크게 강조되면서

위클리프, 루터, 웨슬레에 이르는 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됐으며, 현대에 다시금 모든 분야의 사역에서 평신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특별히 현대 평신도 신학운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신약성경 안에는 'cleros'와 'laos'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후대의 교회가 이를 평신도와 교직자로 굳이 구분하여 불렀기에 교회를 이원화시켰다고 말했는데, 크래머는 이를 "교회의 상식적 개념으로부터의 이탈"²⁵⁹⁾이라고 표현했다.

피커 와그너(Peter Wagner)는 Your Church Can Grow에서 교회 성장에 관한 원리 7가지 즉, 유능한 목사, 평신도 운동, 넉넉한 교회 규모, 예배와 세포조직의 연합체로서의 교회, 동질 구성단위, 효과적인 전도방법, 우선 순위의 배열을 제시했다.²⁶⁰⁾ 그 중에 와그너가 말한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기동력을 지닌 평신도 운동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부름 받은 만인제사장으로서 인식할 때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와그너는 평신도의 기동화에 주목하면서 평신도의 은사발견과 개발 그리고 활용에 이르는 훈련에 관심을 두었다.

교회 성장학을 체계화시킨 맥가브란(D. A. McGavran)도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 성장을 이루려면 평신도 지도자(layman leader)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분담과 기능개발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⁶¹⁾

존 스토틀(John Stott)는 현대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요인 4가지를 제시했다.²⁶²⁾ 첫째는 사회적 요인인데, 전에는 성직자가 교회 치리를 홀로 감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과로에 지쳐 평신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실용적 요인으로 이는 교회가 재능있는 평신도들에게 그에 적합한 임무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재능은 모두 세상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시대 정신이다. 교회도 금세기 전세계가 겪었던 사회적, 정치적 변혁인 '참여하는

259) H. Kraemer,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52.

260) Peter Wagner,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75-253.

261) 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Co., 1970), 286-287.

262) John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87), 13-14.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평신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적 논리인데, 성직자와 평신도 양편에 대한 숫적 불균형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평신도의 능동적인 활용은 교회 성장의 관건이며, 소그룹은 평신도 훈련의 가장 적합한 장(場)임을 알 수 있다. 소그룹 내에서는 그룹의 역동성이 보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런 다이내믹스는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에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소그룹 자체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많은 소그룹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 전체에 활력소를 불어넣게 되어 결국 소그룹의 역동성은 교회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평신도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성장을 이룬 뉴 호프 커뮤니티교회의 모습에 대한 칼 조지의 묘사이다.

1972년 33살의 데일 젤러웨이 목사에는 돈고, 핵심그룹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의 우천시 자동차 전용극장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1990년이 되었을 때 주일 아침 예배 평균 출석수는 6,000명 정도였다. 게다가 450개의 가정 단위의 작은 친교그룹이 매주 모였고, 각 그룹은 훈련받은 평신도 목사가 돌보았다. 이 소그룹 목자들의 60에서 70퍼센트는 여성들이다. 이 소그룹 목자들은 한 주간 사역을 하면서 15,000명 가량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젤러웨이 목사와 뉴 호프 커뮤니티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을 개발하는 일에 개척자이며 모범으로서 그들의 목표는 2000년에는 교인수를 1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다.²⁶³⁾

칼 조지에 의하면 젤러웨이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회중으로 모이는 모임과 가정에서 모이는 사역에 대한 '20:20비전'으로 교회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 목사(X)와 평신도 목사 훈련생(Xa)은 부드러운 사랑의 양육그룹(Tender Loving Care Groups: 쉘그룹)을 감독한다. 이 양육그룹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이 그룹의 리더들은 전임구역 담당목사(D)로부터 또 유급 부교역자나 협동목사

263) Carl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321.

(L)로부터 세심한 훈련과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훈련을 받고 영감을 얻기 위해 매주 모인다. 젤러웨이 목사는 TLC 그룹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건전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성공률은 부드러운 양육그룹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는 셀 사역에 소속되는 것과 양육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의 본질'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이 이 같은 그룹에 소속되지 않는 한 "설교와 교육 혹은 음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2,3년 안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²⁶⁴⁾라고 말하므로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3. 기도 사역을 통한 성장

기도사역을 통한 성장은 교회의 기본 역할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창훈대 교회의 기도사역은 부록5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밝히고 있다.

4. 역동적 예배를 통한 성장

가. 공연으로서의 예배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는 당신을 향하여, 당신 앞에서, 혹은 당신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당신 개인의 경험은 아니다. 회중은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다만 그 예배가 흥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문을 들어섰을 때 덤덤한 느낌 그대로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한 채 교회 문을 나선다. 결국 목사는 예배 순서를 짜고 카리스마적 권위를 드러내고 감동적인 음악을 선정해서 끼워 넣으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례를 받는 것이다.

나. 역동적인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인도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드리는 회중이 하나

²⁶⁴⁾ Ibid., 323.

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고,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예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에는 비밀이 있다. 세미나나 교육과 다르다. 놀라운 파워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는 주일예배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부터 온다. 만남으로부터 오는 감격, 치유, 회복,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변한다. 나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살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임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선포해야 한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히 10:19-20). 예배에서 형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예배의 중심부분은 변하지 않지만, 예배의 형식은 변할 수 있다. 예배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대가 좋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폭 잠길 수 있어야 한다(느 8:1-9:4).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회중의 영적인 필요(need)와 영적 정서적 가능한 모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진실한 모습에 은혜를 받는다. 모든 예배 진행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였건, 적은 사람이 모였건, 하나님과 일 대 일로 반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테크닉과 숫자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예배의 눈물이 있는가? 가슴 벅참이 있는가? 설레임이 있는가? 예배시간이 기다려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예배에 있어서 교회와 사역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교회증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증식원리에 따른 교회성장에 관해서 논했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교회증식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보았다. 교회증식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교회성장론을 비교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성장 이론이 지니고 있는 교회증식의 개념들을 비평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증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특히 한국교회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증식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시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런 이론적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창훈대교회의 교회증식에 관해서 세밀하게 논했다. 특히 교회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바람직한 증식 사례와 그렇지 못한 부분을 균형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목회 계획과 아울러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회증식의 원리와 실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별히 교회의 건강한 성장 전략과 청사진에 대해 논의했다.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양육체계,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교회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교회증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교회증식의 장애 요인들도 염두해야 한다. 리더들의 굳어진 사고 방식, 명확한 전략들의 부재, 한 방향으로 치우친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미의 교회 성장의 핵심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상적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분리되면 반드시 성장한다. 둘째, 좋은 전략을 가진 교회는 더 잘 성장할 확률이 높다. 셋째, 평신도 사역자의 활약이 관건이다. 넷째,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아닌 권력 분산형 교회가 급성장한다. 다섯째,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의 조화가 교회 성장을 돕는다. 여섯째, 효과적인 전도가 교회 증식의 열쇠이다.

교회증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증식에 대한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 증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잊어서는 안될 것이 각 교회에 맞는 증식에 대한 전략 마련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초대형교회 지향의 교회 성장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교회증식의 역동성에 근거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증식과 개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용해야 한다.

부록 1

창훈대교회 제 1기 교역자 소그룹 훈련 과정(LTC)

1. 목적 진술

교회의 비전인 창훈대의 길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교회의 사역 방향을 교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며, 전 성도들로 하여금 “한 성도 한 사역 운동”에 참여케 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교역자들이 소그룹 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훈련과정은 유능한 소그룹 인도자로서 지녀야 할 사역철학과 사역의 기술들을 배우고 나누고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시: 2001년 9월 1일-12월 8일(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14주 과정)

3. 장소: 세미나실

4. 그룹 편성

그룹명	리더	그룹원
바나바반	이훈복	김병수, 김복순, 이인희, 이남숙, 권태경, 김성태,
디모데반	백현	박기범, 박승순, 조명희, 이기순, 이병철, 임철민

5. 교재: 소그룹 인도법은 개별 구입, 관계회복은 지원함.

주교재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 소그룹 개념)	관계회복(엠마오, 소그룹교재)
보조교재	①소그룹이야기(디모데), ②소그룹 리더 핸드북, ③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IVP) ④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기독교신문사), ⑤소그룹 만들기(네비게이토) ⑥셀 교회 평신도, ⑦셀 그룹 폭발(NCD), ⑧ 성경공부의 모든 것(IVP)	

6. 시간 및 모임 진행: 소그룹 인도법 요약발표 및 토의(50분), 소그룹실제(60분)

7. 예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회비	소그룹 교제 $2500 * 16 = 40,000$
$10,000 * 15 = 150,000$	외부 모임 지원 $2 * 100,000 = 200,000$
성경연구원	리더용 교재 개발비 $2 * 5권 * 약 8,000 = 80,000$
200,000	보조 자료(OHP 용지 등) 30,000
총: 350,000	총 : 350,000

8. 세부 프로그램

순서	소그룹 만들기	관계회복	일시(토)	비고
1주	오리엔테이션 (아이스 브레이크 사용법)	1과 들어가면서	9/1	헌약서 작성
2주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2과 하나님 사랑하기	9/8	①의 1부 ④의 1장
3주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2.1과 사단 대적하기	9/15	②의 2장 ①의 31-32p
4주	건강한 소그룹(4대 전략과 8가지 기초원칙)	3과 자기 자신 사랑하기	9/22	④의 2장
5주	소그룹의 핵심적 4요소	3.1과 하나님의 자녀	9/29	③의 8-11장 ②의 3장, 4부
6주	소그룹과 셀그룹의 차이	4과 가족 사랑하기	10/6	⑥의 1, 2, 6장 ⑦의 2, 10, 11장
7주	그룹 인도자로서의 당신	4.1과 가족 관계	10/13	②의 3부
8주	그룹 발단 단계의 이해	5과 공동체 안에서 이웃사랑	10/27	①의 4부 ②의 4장 ③의 6장
9주	그룹을 파악함	5.1과 우리의 한계 넓히기	11/3	①의 5부 115p
10주	그룹을 인도함	6과 공동체 밖에서 이웃사랑	11/10	①의 5부 124p
11주	그룹의 문제점을 다룸	6.1과 아웃 사이더 사랑하기	11/17	②의 7장 ①의 6부 189p
12주	그룹을 평가함 ..end..	7과 원수 사랑하기	11/24	①의 174pp
13주	사역의 배가(출산/재생산)및 교회 소그룹 활동 전략	7.1과 바울의 원수들	12/1	①의 7부 ③의 12장
14주	소그룹 활동자료 사용법	성경공부의 모든 것(IVP)	12/8	②의 부록2 ④의 146pp
졸업	주일 대예배 때 수료식	양육 소그룹 과정소개	12/9 (주일)	제1기지도자과정 수료식
참조 사항	1.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리더가 오픈 한 만큼만 그룹원도 오픈 한다. 2. 모임시간은 50분씩 2타임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시간업수). 3. 모임을 사랑하고 힘들어도 2번 이상 결석하지 않는다(결석: 벌금). 4. 4주 후부터 소그룹 인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5. 리더관련 도서목록 ②의 부록 3에 있음. 6. 우리 교회의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장을 교역자들이 먼저 열자! 7. 간식은 돌아가면서 가볍게 준비하고 벌금으로 2회 정도 외부 모임함. 8. 시작할 때 10분간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워라" 잔여분 발표합니다.			

부록 2

제 1기 중직자 소그룹 (기초과정, 알파 코스)

1. 목적 진술

교회의 비전인 창훈대의 길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교회의 사역 방향을 교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며, 전 성도들로 하여금 “한 성도 한 사역 운동”에 참여케 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소그룹 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 이미 교역자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는바 또한 중직자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본 중직자 소그룹은 크게 기초(알파 코스 11주), 중급(유익한 삶 10주), 고급(부흥의 본질 12주), 그리고 지도자 과정(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 20주)의 총 53주(약 1년 반)로 구성된다. 이는 알파코스에 따른 과정이다.

그러므로 본 훈련과정은 교회의 중직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신선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여 이를 평신도들과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유능한 리더와 사역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시: 2001.12.2.-2002.2.24. (매주일 오후 2:00-3:00, 12주 과정)

3. 장소: 세미나실

4. 참석 대상: 장로와 장립집사

5. 교재 : 알파 코스(게스트용)

6. 모임 진행: 찬양(7분), 토크 및 소그룹(40분), 섬김과 돌봄(13분)

7. 예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회비	알파코스 교제 2500 * 20 = 50,000
20,000 * 20 = 400,000	주말 주말회 500,000
평신도사역 개발원 지원	진행비(자료 및 보조자료) 150,000
400,000	간식 및 기타 비용 100,000
총: 800,000	총 : 800,000

8. 세부 프로그램

순서	내 용(인생의 의문점들)	일시	비고
1주	오리엔테이션	12/2	첫 모임
2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12/9	
3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12/16	
4주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12/23	
5주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12/30	
6주	왜 어떻게 기도할까?	1/6	2002년
7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1/13	
7주말	성령은 누구 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1/19 (토)	주말 수양회 (안성 수양관)
8주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1/20	
9주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	1/27	
10주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2/3	
11주	교회에 대하여	2/17	알파코스 종료
12주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2/24	손님초대
참조 사항	1.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2. 모임시간은 60분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시간엄수). 3. 모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들어도 결석하지 않는다 (벌금제 운영: 지각은 10분마다 천원씩, 결석은 만원). 4. 우리 교회의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의 장을 중직들이 먼저 열자! 5. 본 알파코스(중직자 소그룹)은 복음과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부록 3

제 1기 가정 성장 학교

1. 목적 진술

요즘 젊은 부부 3쌍 중 1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현 사회현실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을 만들고자 창훈대교회 제 1기 가정성장학교 모임을 만들었다.

가정 살림과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 양육에 지쳐있는 젊은 부부들이 2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과 부부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므로 건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 모임은 교회의 허리부분인 젊은 층의 활성화되어서 균형있는 모습(노년층과 젊은 층의 균형)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다.

2. 모임명: 제1기 가정성장 학교(결혼 후 10년 이내의 부부)

3. 일시: 2001년 11월 17일(토) - 2002년 2월 24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15주 과정)

4. 장소: 세미나실(새가족실) 1층

5. 인도자: 백 현 목사

6. 회비: 가정 당 5만원 (6가정 선착순 마감)

7. 교재 :

나눔 교재	가정성장 학교	교회성장 연구소, 8,000원
	부부들(특별교재)	엠마오, 세렌디피티교재, 2,000원
토론 교재	행복한 부부 만들기	IVP, 3,500원

8.예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회비 300,000원	교재(2권) 구입비 11,500원 × 12명 = 138,000원
(50,000+6가정)	자녀 돌봄비 14번 × 2명 × 10,000 = 280,000원
교회 지원	자녀 교육 프로그램비 14번 × 5,000 = 70,000원
250,000	졸업 만찬 행사 진행비 52,000원
총: 550,000	총 : 550,000

9. 세부 프로그램

순서	가정 성장 학교	행복한 부부 만들기	일시	비고
1주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시작할까?	11/17	현약서 작성
2주	가정의 중요성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라	11/24	
3주	성경적 가정상	감정 소통	12/1	
4주	행복한 부부(1)	상한 감정의 전달	12/8	
5주	행복한 부부(2)	변함없는 헌신	12/15	
6주	아버지의 위치	갈등 해소	12/22	
7주	어머니의 역할	역할 분담	12/29	
8주	부모공경의 축복	동기 유발	2002. 1/5	
9주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의사 결정	1/12	
10주	가정의 경제 활동	부와 소유	1/19	
11주	가정의 문제해결	영적 성장	1/26	
12주	가정과 교회 성장	성적 만족	2/3	
13주	하나되는 가정의 위하여	잘못과 용서	2/10	
14주	고부간의 갈등	목표 설정	2/17	
종강	졸업 만찬 및 파송식 (주일 대예배 때 수료식)		2/24	3월 3일 수료
참조 사항	1.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2. 모임시간은 50분씩 2타임,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시간엄수). 3. 모임을 사랑하고 2번 이상 결석하지 않는다(결석: 벌금, 5천 원). 4. 간식은 돌아가면서 가볍게 준비하고 벌금으로 외부 모임(2회).			

제1기 가정성장학교 아이 돌봄 신청서

1. 모집 인원 : 2명

가. 프로그램 담당 1명 나. 아이 돌봄 담당 1명

2. 신청 자격 :

가. 유아, 유치 교육 자격증 소지자 혹은 자녀 돌봄 은사 있는 분
나. 자원하는 마음의 소유자

3. 아이 돌봄 비 14일(2시간) × 10,000 = 140,000원

4. 신청서

이 름		전화번호	
지원 동기		지원 구분	프로그램 () 돌 봄 ()
14 주 돌 봄 프 로 그 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제1기 가정성장학교 신청서

창훈대교회에서 실시하는 제1기 가정성장 학교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름	남편: 아내:	주 소	
자 녀 들		전화	집: H.P.
지원 동기			
가 족 소 개			
가 정 비 전			
기 대 감			

부록 4

2001 하반기 구역장/설교자 세미나

1. 주제: 영적 유모가 되자!
2. 주제성구: “오직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살전 2:7,8)
3. 강사: 이훈복, 백현, 조광훈(사랑의 교회 분당교구) 목사
4. 일시: 8월 16일(목) ~ 17일(금) 저녁 6시 30분 ~ 9시
5. 장소: 본 당
6. 대상: 구역장 · 설교자 · 2002년 봉사자, 자원자
7. 프로그램

시간	16일(목)	17일(금)
6:30 ~ 6:50	찬양과 경배 (come & see)	
6:50 ~ 7:50	주제강의 I 영적 유모가 되자!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 이훈복 목사	주제강의 II 구역장의 자세와 역할 조광훈 목사
7:50 ~ 8:00	휴식과 다과 시간	
8:00 ~ 9:00	소그룹특강 I 구역조직을 셀 그룹으로 바꾸라! 백 현 목사	소그룹 특강 II 구역(소그룹) 인도법 조광훈 목사

7. 예 산

(단위: 원)

수 입	지 출
교회 재정 보조 300,000	강사비(3명) 300,000
구역위원회 200,000	간식비 200명*2회*800,000 = 160,000
	모범구역 시상(2구역) 40,000
총 : 500,000	총 : 500,000

8. 교육참가 특혜

- 가) 본 과정 이수자만 2002년 구역 인도자로 섬길 수 있다.
- 나) 모범 구역 인도자 시상(2구역)

2002 구역장 헌약서

나 _____는 구역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세로 구역장의 임무를 감당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구역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2. 구역 모임을 내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 모임에 최우선권을 두고 참여하겠습니다.
3. 나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담당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4. 구역 배가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5. 구역원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6. 매일 말씀묵상을 생활화하며 묵상한 말씀을 구역원들과 나누(sharing)겠습니다.
7. 구역장으로 섬기는 한 해 동안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부구역장을 양성하겠습니다.
8. 구역소그룹을 통한 내 삶의 변화를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9. 구역위원회에서 계획한 모든 구역 리더훈련과정(LTC)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10.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와 함께 다음과 같이 행동 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나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일에 가장 큰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2. 구역장으로서 구역 소그룹 모임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 구역 소그룹에 속한 구역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4. 구역 소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개인적인 다짐 혹은 교역자에게 하고 싶은 부탁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구역장들의 기도로 이 약속들이 성실히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약속들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2. 1. 4. (금)요일, 연합구역예배 헌약자: _____ 사인

(구역장용) 구역 소그룹 성경공부 2002.1.16.수

◆ 제4과: 여호와 경외와 몸의 양약 ◆ 성경: 잠언 3:1-8
 ◆ 찬송: 488,102장 ◆ 기도: _____ ◆ 암송: 잠 3: 7,8(5,6)

♥마음 열기

듀크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는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티졸은 동맥에 수많은 작은 상처를 낸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분노는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성을 떨어뜨려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들의 신체를 병들게 하거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은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며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삶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져다 준 죄악 즉 영적인 문제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건한 삶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은 가지치기에 불과한 처방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뽑고 고통에서 해방되며 참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근본을 바라보게 하고 참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고 그 용서의 기쁨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 위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 즉 갈등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 즉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행복이란 불가능하다고 말합

니다. 오직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본문 관찰과 적용

1.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들은? (1-2절)

- 가. 장수하여 많은 해(年)를 누리게 하십니다(2절)
- 나. 평강을 더하게 하십니다(2절)

☞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은 각각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의미하지만 한 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잊어버리지 말라**”는 부정적 표현과 “**마음으로 지키라**”는 긍정적 표현 모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장수와 평강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 **열왕기상 3장 13,14절**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와 부요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법과 명령, 그분의 나라와 의)을 그 무엇보다 먼저 순종(구함)했을 때 받은 축복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3-4절)

- 가.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3절)
- 나. 인자와 진리를 우리 목에 매야 합니다(3절)

다. 인자와 진리를 우리 마음 판에 새겨야 합니다(3절)

☞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니까? 인자는 계약이나 서약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런 사랑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눅 2:52).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참된 비결은 **빌 2:5-11절**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 인자와 진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주변에 있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에 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단계적이라기 보다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더욱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어느 정도 충성하고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인자와 진리에 대한 충성과 순종과 사랑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입니까?(떠나지 않게) 목입니까? 아니면 마음 판입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3.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6절)

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때 (5절)

나.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5절)

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6절)

☞ 우리가 생전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을 갈 때는 안내자의 인도나 혹은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단 한번 뿐 인지라, 지나간 삶은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내 삶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만 끙끙거리며 앞다가 더욱 어렵게 된 경험은 무엇인가? 그 때 좋은 안내자가 돼주었던 사람이나 그 무엇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보자!**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4.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7-8절)

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7절). 나. 여호와를 경외한다(7절). 다. 악을 떠난다(7절)

☞ 위의 세가지 역시 동일한 의미이지만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즉 우리의 신앙은 마음(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겸손함)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라는 확고한 신념을 거쳐서 악을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다다르게 될 때 몸과 골수(영혼) 모두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받았던 몸과 영혼과 물질의 축복들을 서로 나누며 영광 돌리자!

♥서로 돌보며 기도하자

1. 구역의 지체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영적인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3장 5,6절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구역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그룹원용) 구역 소그룹 성경공부 2002.1.16.수

◆ 제4과: 여호와 경외와 몸의 양약 ◆ 성경: 잠언 3:1-8

◆ 찬송: 488, 102장 ◆ 기도: _____ ◆ 암송: 잠 3: 7,8(5,6절)

♥마음 열기

듀크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는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티졸은 동맥에 수많은 작은 상처를 낸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분노는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성을 떨어뜨려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위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 즉 갈등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 즉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행복이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본문 관찰과 적용

1.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들은? (1-2절)

☞ 열왕기상 3장 13,14절:

마태복음 6장 33절 :

♣하나님의 말씀(법과 명령, 그분의 나라와 의)을 그 무엇보다 먼저 순종(구함)했을 때 받은 축복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3-4절)

☞ 눅 2:52 :

빌 2:5-11 .

♣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어느 정도 충성하고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인자와 진리에 대한 충성과 순종과 사랑은 어디까지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입니까?(떠나지 않게) 목입니까? 아니면 마음 판입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3.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6절)

♣ 내 삶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만 끙끙거리며 앞다가 더욱 어렵게 된 경험은 무엇인가? 그 때 좋은 안내자가 돼주었던 사람이나 그 무엇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보자!

♣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4. 우리의 몸이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7-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받았던 몸과 영혼과 물질의 축복들을 서로 나누며 영광 돌리자!

♥서로 돌보며 기도하자

- 1.구역의 지체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영적인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3장 5,6절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3.구역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부록 5

성 경 공 부

(2002. 1. 20 제 4번) (시편 136편~140편, 베드로후서 3장)

_____ 구역 중,고, 청년국 직분 _____ 성명 _____

※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 시편 136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① 은혜 ② 긍휼 ③ 감사 ④ 진리
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계속 반복(26번)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6편) ()
3.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 울었도다” (시 137편)
*본 시편은 바벨론 포로생활의 애환을 노래한다(3,7절)
4.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이 노를 ()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 138편)
5. “하나님이여 ()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 신지요 그 수(생각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 많도소이다” (시 139편)
*내 전부를 아시는 주님(1~4절)께서 갖고 계신 나를 향한 생각은 보래보다 많습니다.
6. “여호와여 나를 ()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40편)
7. 둘째 편지(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 진실한 믿음을 ()하게 하여...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한 것을 () 하려 하노라” (벧후 3장)
8.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벧후 3장)
()
9. “주의 약속(날)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지연)고 오래 참는 이유는? (벧후 3장)
()
10. 베드로는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힘쓰라(14절), 여기라(15절), 삼가라(17절), 자라가라(18절)고 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삶에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힘쓰고, 여기고, 삼가고,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 수요일까지 안내석 함에 제출하시면 채점 후 십일조 함을 통하여 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6

제1기 기도 훈련자 학교

1. 목적 진술

기도 훈련자 과정을 통해 영성회복과 기도 사역자를 양성하여 말씀과 영성을 겸비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운다. 다양한 기도의 종류와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서 실제로 교회와 기관과 교역자 그리고 전성도들을 위한 능력 있는 기도 사역을 감당한다.

2. 일시: 2001.12.4.-2002.3.5.(매주 화 저녁 7:00-8:30, 12주 과정)

3. 장소: 세미나실

4. 참석 대상: 장로와 장립집사, 권사, 기관장, 희망자

5. 교 재 : 중보기도학교(교회성장연구소, 8천원)

6. 회 비 : 일 만원(10,000원)

7. 모임 진행: 찬양(10분), 강의(40분), 기도(섬김과 돌봄: 30분)

8. 예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회비	교재 8000 * 30 = 240,000
10,000 * 30 = 300,000	산상 기도회 (2회) 300,000
평신도사역 개발원 지원	진행비(자료 및 보조자료) 100,000
300,000	간식 및 기타 비용 60,000
총: 600,000	총 : 600,000

♣ 참가 신청 : 사무실 혹은 백현목사

9. 세부 프로그램

순서	내 용	일시	비 고
1주	중보기도의 중요성	12/4	첫 모임
2주	중보기도와 일반기도	12/11	
3주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12/18	
4주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12/23	
5주	중보기도와 은사 개발	2002년 1/8	산상기도
6주	중보기도 특공대의 선발과 훈련	1/15	
7주	중보기도와 목회자	1/22	
8주	중보자의 자기 개발	1/29	
9주	중보기도와 기도 동역자	2/5	
10주	중보기도와 교회 성장	2/19	
11주	중보기도의 생활화	2/26	
12주	중보기도와 응답	3/5	산상기도
참조 사항	1.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2. 모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들어도 결석하지 않는다 3. 우리가 이웃과 교회의 영적 부흥에 밑거름이 되자. 4. 모든 은사를 이웃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한다. 5.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로 섬긴다. 6. 모든 진행과정에서 지도교역자의 지도를 받는다.		

참 고 문 헌

1. 국문서적

- 강문석. 교회성장과 전도전략.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고강태. “교회성장과 새신자 양육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1996.
- 구본승. “한국교회 부흥운동.”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대학원, 1984.
- 권성수. “한국교회 성장 정체 현상의 신학적 고찰”. 교회와 신앙. 1997. 9월호.
- 김만년. 경기노회 사진 연감(1907-1986년). 서울: 성일사, 1986.
- 김만배. 선교지향적 팀목회론. 서울: 진리와 자유, 1999.
- 김성수. “목회자의 리더십과 지교회 개척성장에 관한 연구: 양문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98.
-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제자, 1997.
- 김영환. “한국교회 성장 둔화 요인에 관한 개혁 신학적 연구”. 교회문제연구소. 1996.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김정순.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사.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 김준규. 2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 정책연구 보고서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2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 1997.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명성훈. “한국교회 성장의 실상 분석과 대책”. 목회와 신학. 1996년 9월호.
- 명성훈. 교회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 문교수. “평신도 소그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94.
-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운동. 서울: 두란노, 1998.
- 박홍석. “교회성장 이론들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1989.
- 백운형. 개척에서 성장까지. 서울: 지평서원, 1996.
- 심상철. “선교지향적 교회로의 전환.”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97.

오성택. 훈련된 신자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서울: 엘멘, 1999.

오세준. "김포 신도시 개척교회의 성장사례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 19

옥한흠. "교회 부흥을 교회가 막고 있다". 월간 목회. 1994년 4월호.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90.

이동순. "신앙공동체 본질에 입각한 교회의 개척." 신학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이만열. "한국교회는 왜 성장 둔화의 침체에 부딪혔는가". 월간목회. 1992년 10월호.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9.

이만용. "지도자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

이성환. 수원제일교회 40년사(1953-1993년). 경기 수원: 수원제일교회 출판부, 1993.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 신학. 1993.7.

이종호. "한국교회의 성장저해 요인과 바람직한 성장방안." 신학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대학원, 1997.

장신택. "농촌교회와 소도시 교회의 성장 비교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1997.

전호진. "교회성장의 원리와 전략". 교회문제연구 3집. 1982.

정동진. "교회성장과 목회자 리더십의 상관관계."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98.

제9회 전국교역자초청특별세미나. 교회성장: 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목회방향. 서울: 서울서적, 1992.

조범식. "교회성장학파의 교회론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994.

차윤순. 교회성장은 그리스찬이 방해한다. 서울: 예찬사, 1987.

채영기. 가정교회로 세원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신문사, 2000.

최인배. “교회개혁전략의 이론과 실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대학원, 1996.

한영성. “21세기 도시사회에서 한국교회의 변화전망에 따른 교회성장의 전략적 방향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1998.

한국기독교학생회.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기독교학생출판부, 1999.

한명수. 다시보는 세상. 서울: 아게페, 2000.

_____. 창훈대교사 33년사(1964-1997년).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7.

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3.

2. 번역서적

Anderson, Leith. 교회를 향한 제3의 물결. 김철직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Barna, George. 21세기 교회를 잡아라(The Frog in the Kettle).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_____.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김광점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_____. 위기에 처한 목회자, 비전은 있다.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_____. 비전있는 지도자 비전있는 사역(The Power of Vision). 곽춘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9.

_____. 교회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Braoudakis, Paul. ed. 월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1998.

Bugbee, Bruce. 네트워크 사역: 개인의 열정, 은사, 스타일에 맞춘 봉사.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Chandler, Russell.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맹용길 역. 서울: 쿤판출판사, 1993.

David Brainerd, William C. Bruns, John Eliot, Henry Martyn and John G. Paton, eds. 오인의 개척 선교사.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Donahue, Bill. 월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6.

Din, Webracht.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배안호 역. 서울: 조이선교회, ???

Finnel, David. 셀교회 평신도.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 Fryling, Alice.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IVF자료개발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3.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_____. 교회성장의 한계 이렇게 돌파하라. 최예자,유진화 역. 서울: 프리셉트, 1996.
- Getz, Gene A.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디모데출판부 역. 서울: 디모데, 1997.
- Gillbert, Larry. 팀사역. 채수범·황석호 공역. 서울: 프리셉트, 1995.
- Green, Michael.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 Hanrichsen, W. A. and Garrison, W. N. 평신도 사역자를 계발하라.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 1991.
- Hiebert, Paul G. 문화속의 선교.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 Hiebert, Paul G. and Eloise Hiebert Meneses. 성육신적 선교사역(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oty). 안영권. 이대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The Disciple Making Church).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_____. 목회자가 제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요단출판사, 1999.
- Huntley, Martha. 한국개신교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1985.
- Logan, Bob.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1년 6월호, 38-51.
- Lynne and Hybels, Bill.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7.
- McBride, Neal F.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1.
- _____.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2001.
- McGavran, Donld. A. 교회 성장학. 서울: 보이스사, 1974.
- _____.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McQuilkin, Robertson. 지상명령 왜 지연되는가. 김경옥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6.
- Moore, John and Ken Neff. 이제는 목회 방법이 거듭나야 합니다. 한상석 역. 서울: 나침반, 1996.

- Murren, Doug.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김기역 역. 서울:베다니출판사, 1998.
- Neighbour, Ralph W. 셀목회 지침서(Where do we go from here?). 장학일 역. 서울:서로사랑, 1999.
- Ogden, Greg.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The New Reformation: Returning the Ministry to the People of God). 송광택 역. 개정 2판. 서울:미션라이브러리, 2000.
- Richards, Lawrence O. and Gilbert R. Martin. 평신도 사역. 여상기 역. 서울:평신도신학연구소, 1994.
- Ron Nicholas, Steve Baker, Judy Johnson, Rob Malone, and Doug Whallon, ed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 Schaller, Lyle E. 목회 혁신(Innovation in Ministry:Models for the 21st Century). 김영실,임종원 역. 서울:프리셉트, 1994.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ment). 윤인수,정진우,박동건,오탈균 공역. 개정 2판. 서울:도서출판NCD, 2000.
- Schwarz, Christian A and Cristiper Shak.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 지침서. 이준영,오탈균 공역. 서울:도서출판 NCD, 2000.
- Sine, Tom.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주순희 역. 서울:두란노서원, 1985.
- Smith, Chuck. 위대한 추수(HARVEST). 박현식 역. 서울:나눔터, 1994.
- Sneller, Alvin.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손성은 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Stevens, R. Paul.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Liberating the Laity: Equipping all the saints for Ministry). 김성오 역.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_____.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7.
- Stevens, R. Paul.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The Equipping Paster). 최기숙 역. 서울: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0.
- Stockstill, Larry.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백광진 역. 서울:베다니출판사, 1998.
- Wagner, C. Peter. 개척하라. 홍용표 역. 서울:예찬사, 1997.
- _____. 더 큰 수확을 위한 교회개척 가이드. 서울:서로사랑, 1990.

- _____. 방패기도. 명성훈 역. 서울: 나눔터, 1994.
- _____.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서울: 나눔터, 1994.
- _____.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광림출판사, 1989.
-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류형기 역. 개정 3판.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5.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회, 박경범 공역, 서울: 디모데, 1997.
- Westing, Harold J. 개성있는 교회가 성장한다:창의적인 목회자를 위한 사역철학 설계집. 오진탁 역. 서울: 디모데, 1997.

3. 외국서적

- Brock, Charles.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as illustration Thai Theravad Buddis. McGavran, Don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0.
- Neighbour, Ralph. The Leaders Guidbook: A Leader's Guid for the Cell Group Chuch. Houston, TX: Touch Publication, 1992.
- Patterson, George.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
- Winter, Ralph D. and Hawthorne, Steven C.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Leader. Pasadena, California: William Carey Library, 1981.

Vita of HOON BOOK LEE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ChangHunDae Church, Suwo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May 11, 1955
 Marital Status : Married to JinHyun Um in February 20, 1982
 Home Address : 229-27 YeonMoo-dong ChangAn-ku, Suwon,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Hapdong)
 Ordained : October 13, 1985

Education

B.A. : Chongshin University, Seoul, 1978
 M.Div. : Chongshin University, Seoul, 1982
 Th.M. :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CA, 1990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2

Ministerial Experience

2001 to present ChangHunDae Church, Assistant Pastor
 1988 to 2000 SongTanNamBoo Church, Senior Pastor
 1982 to 1988 Se Kwang Church Assistant Pastor

Teaching Experience

1989 to present Suwon Bible College, Lecturer